

북한의 「제3차 7개년계획」 종합평가

1994

통 일 원

〈일 러 두 기〉

- 본 보고서는 북한의 「제3차7개년계획」 수행실적을 당원에서 자체로 분석·평가한 것임.
- 일차적인 분석 근거는 조선중앙년감, 로동신문, 민주조선 등 북한 간행물들에서 추출된 경제관련 정보를 기초로 하였음.
- 그러나 북한경제관련 통계지표는 북한당국이 거의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농촌진흥청 등 국내전문기관에서 이미 발표한 추정통계들을 활용하였음.
- 본 보고서에는 경제체제의 상이, 자료의 제약 등으로 시장경제체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제용어나 분석에 의한 접근방법이 포함되어 있음.
- 본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통일원, 제3차7개년계획 종합평가, 1994, ○쪽”임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람.
- 수록된 자료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통일원 정보분석실 제2분석관실(720-2425~6)에 문의하시기 바람.

목 차

I. 개 관	3
1. 제 3 차 7 개년계획(1987~'93)의 목표	3
2. 경제시책방향	10
3. 경제규모의 변화	15
II. 부문별 평가	19
1. 총량부문	19
2. 재정·금융부문	26
3. 농림수산부문	39
4. 광업부문	50
5. 에너지부문	55
6. 금속·기계공업부문	66
7. 건재·화학공업부문	75
8. 경공업부문	81
9. 수송·통신부문	85
10. 도시와 농촌건설	97

Ⅲ. 대외경제	102
1. 무역부문	102
2. 대외경제협력	123
3. 경제개방정책 추진	134
4. 외채현황	140
Ⅳ. 종합평가 및 전망	143
1. 종합평가	143
2. 실패의 요인	146
3. 전 망	148

I. 개 관

1. 제 3 차 7 개년계획(1987~'93)의 목표

- 제 3 차 7 개년계획(1987~'93)은 제 2 차 7 개년계획(1978~'84)이 실패로 끝남에 따라 2년간의 조정기를 거친 후 새로 착수한 북한의 장기 경제발전계획임.
- * 제 2 차 7 개년 경제계획은 당초 경제성장목표를 연평균 9.6%로 설정하였으나 성장실적은 연평균 4.5%로 추정된 바 있으며, 주요 산업별 생산실적도 곡물, 직물, 시멘트는 목표의 70% 수준을 달성하였으나 전력, 석탄, 강철, 비철금속 등 기간산업부문의 계획수행률은 30~50%에 불과하였음.
-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 8 기 제 2 차회의('87. 4. 21~23)을 통해 밝힌 제 3 차 7 개년계획의 주요 계획목표를 보면 <표 1>과 같음.

<표 1> 제 3 차 7 개년계획의 주요 계획수치

구 분	3차7개년 계획목표	구 분	3차7개년 계획목표
전 력(억kwh)	1,000	간척지조성(만ha)	30
석 탄(만t)	12,000	경지10ha당트랙타대수(대)	10~12
철 강(만t)	1,000	1ha당 화학비료소비량(t)	2.5
비철금속(만t)	170	육류생산(만t)	170이상
기 계(배)	2.5	계란생산(억개)	70이상
화학비료(만t)	720	산림조성(만ha)	150

구 분	3차7개년 계획목표	구 분	3차7개년 계획목표
화학섬유(만t)	22.5	과일생산(만t)	200이상
합성수지·가소재(만t)	50	수산물생산(만t)	1,100
탄산소다(배)	4.5	어류(만t)	매년300 이상
가성소다(배)	2.1	해조·패류양식(만t)	800
유 산(배)	3	주택건설(만세대)	매년 15~20
시 멘 트(만t)	2,200	기술자·전문가수(만명)	200
직 물(억m)	15	예방치료집단수(배)	1.2
지방공업(배)	2.5	병원침대수(배)	1.3
곡 물(만t)	1,500	인구1만명당의사수(명)	43
쌀 (만t)	700		

출처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 8 기 제 2 차회의('87. 4. 21~23)시 이근모
정무원총리의 보고내용

- 제 3 차 7 개년계획의 기본 과업은 제 2 차 7 개년계획과 크게 다른 점이 없으나 성장목표는 이전의 어느 경제계획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한 것이 특징임.
- 북한은 동계획에서 제 2 차 7 개년계획과 마찬가지로 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를 기본과업으로 표방하였으며
- 계획기간중의 성장목표는 국민소득 1.7배(연평균 7.9%), 공업생산 1.9배, 농업생산 1.4배 등 계획사상 가장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였음.

〈표 2〉

북한의 경제계획별 연평균 목표성장률

계 획	국 민 소 득	공 업 총 생 산
제 1 차 1 개년계획 (1947)	—	20.0%
제 2 차 1 개년계획 (1948)	—	41.0%
2개년계획 (1949~50)	—	39.3%
전후복구 3개년계획 (1954~56)	20.5%	37.5%
5개년계획 (1957~61)	17.1%	21.1%
제 1 차 7 개년계획 (1961~70)	15.2%	18.1%
6개년계획 (1971~76)	10.2%	14.0%
제 2 차 7 개년계획 (1978~84)	9.6%	11.9%
제 3 차 7 개년계획 (1987~93)	7.9%	9.6%

자료 : 북한 최고인민회의 발표내용 종합

- 또한 기간중 주요 산업부문별 생산 및 건설목표는 로동당 제 6 차대회 시(1980. 10. 10) 김일성이 제시한 바 있는 『'80년대말 사회주의 경제 건설 10대 전망목표』를 일부 수정하는 선에서 설정되었음.
- 『'80년대말 사회주의 경제건설 10대 전망목표』와 비교하여 볼 때 철강생산 목표는 1,500만톤에서 1,000만톤으로 대폭 하향 조정되었으나 전력, 석탄, 알곡 등 5개의 생산목표치는 변경되지 않았으며 유색금속, 화학비료, 시멘트 및 수산물 생산목표는 소폭 상향 조정되었을 뿐임.

〈표 3〉 '80년대말 10대 전망목표와 제 3 차 7 개년계획 비교

구 분	단 위	'80년대말 10대 전망목표	제 3 차 7개년계획	비고
전 력	억kwh	1,000	1,000	불변
석 탄	만톤	12,000	12,000	"
강 철	"	1,500	1,000	감소
유 색 금 속	"	150	170	증가
화 학 비 료	"	700	720	"
시 멘 트	"	2,000	2,200	"
직 물	억m	15	15	불변
알 곡	만톤	1,500	1,500	"
수 산 물	"	500	1,100	증가
간척지조성	만정보	30	30	불변

- 결과적으로 제 3 차 7 개년계획은 1989년까지 달성하기로 했던 『'80년대말 10대 전망목표』의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1993년까지로 계획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제 3 차 7 개년계획은 정치선전적 목적에 따라 생산목표를 지나치게 높게 잡았던 과거의 경제계획에 비해 비교적 합리성·현실성에 기초하여 수립된 계획이라고 할 수 있음.
- 제 3 차 7 개년계획에서 내용상 특히 주목되는 것은 ①기술혁신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제기하고 있고 ②무역과 대외경제협력의 확대·발전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는 점임.
 - 기간중 국민소득의 3~4%를 과학기술개발 부문에 집중 투자하기로 계획하였으며
 - 무역은 기초년도에 비해 3.2배(연평균 증가율 18.1%) 증대시킬 것

을 목표로 설정하였음.

* 한국의 경우 6차 5개년계획(1987~'91)기간중 과학기술부문 투자
지출계획은 GNP의 3% 수준

- 이러한 점들은 북한이 기술낙후를 경제건설의 주요 제약요인으로 보고 낙후된 산업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무역증대를 통해 설비 및 원자재 공급을 원활히 하고 대외자본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북한은 제 2차 7개년계획 실패 원인중의 하나가 전력, 석탄, 금속공업 등 에너지 및 소재 산업부문의 시설 미비에 있다고 판단하고 제 3차 7개년계획에서는 동 부문의 정비·보강에 역점을 두었음.
 - 태천, 금강산, 남강, 동평양화력, 12월화력 등 10여개 이상의 대규모 수·화력 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 안주지구, 순천지구 등 주요 탄광을 개발 확장하여 부족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 제철·제강소 시설의 대폭 확장과 비철금속 생산기지의 건설 등을 통해 금속공업부문의 생산능력을 제고시키는데 정책우선 순위를 두었음.
- 한편 북한의 주민생활수준이 날로 악화됨에 따라 화학공업, 경공업 및 도시건설 부문에서는 북한주민의 『식·의·주』문제 해결에 목표를 두고
 - 순천비날론, 사리원카리비료 등 대규모 연관 산업공장의 건설을 추진하는 한편, 매년 15~20만세대의 주택을 건설하고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이룩하여 소비상품 유통액을 2.1배로 증대시키기로 계획하였음.
- 이로 볼 때 제 3차 7개년계획은 종래의 중공업우선정책을 다소 완화하는 대신 경공업을 비롯한 주택건설 등 주민소비생활과 관련된 산업을 보완한다는 구도하에서 수립된 것이라고 하겠음.

〈표 4〉

제 3 차 7 개년계획의 주요 부문별 목표

부 문 별	계 획 내 용
기본건설투자	제 2 차 7 개년계획기간에 비하여 1.6배의 기본건설투자 실시, 기본건설투자의 80% 이상 생산적 건설에 투자
국 민 소 득	국민소득 1.7배 증대, 근로자 실질소득 1.6배, 농민실질소득 1.7배 증대
과학기술개발	과학연구사업에 국민소득의 3~4% 투자, 광섬유 케이블화, 인공위성 통신망 확장, 해외 유학생·연구생 파견으로 공동연구 강화 과학자·기술자 1인 1기술개발 의무화
전 력 공 업	태천발전소·금강산발전소·희천발전소·남강발전소·금야강발전소·어랑천발전소·다목적갑문발전소·지방중소수력발전소 등 신규수력발전시설 400만kw이상 건설, 안주화력발전소·사리원화력발전소·해주화력발전소·동평양화력발전소·12월화력발전소·김책화력발전소 건설, 대규모 원자력발전소 건설
석 탄 공 업	안주지구탄광 개조·확장, 순천지구·덕천지구·북창지구·강동지구·북부지구 등 각지구 탄광 확장
광 업	무산광산연합기업소 확장, 무산-청진간 정광수송관 증설, 덕현광산 등 서부지구 철광산 확장, 신규 내화물 생산기지 건설
금 속 공 업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제 2 단계건설공사 완료, 대형 용광로·대형산소전로·소결로 등 증설로 생산능력을 연산 500만톤 이상으로 확장, 황해제철연합소·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성진제강연합기업소 등의 개조 확장, 검덕지구·단천지구·양강도지구 등의 비철금속광산 개조·확장, 11월8일광산, 3월 5일청년광산 등의 비철금속광산 개조 확장, 알루미늄·알루미늄 생산기지 건설, 티탄·마그네슘 생산기지 건설
기 계 공 업	기계공업생산 2.5배, 수치제어(NC) 선반 생산기지·자동차엔진·디젤기관·유압기구 생산기지·전기기계 생산기지 증설 전자·자동화요소 생산기지·전자일용품공장 건설, 평양지구 등에 로봇트 생산기지 건설

부 문 별	계 획 내 용
화학·건재공업	<p>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연산 10만톤) 건설 사리원카리비료연합기업소 건설 순천탄산소다공장 건설 함흥지구 합성고무생산기지 건설 남흥지구 석탄가스화에 의한 합성수지생산기지 건설 상원시멘트공장 완성, 사리원지구, 개천지구에 시멘트생산 기지 건설</p>
경 공 업	<p>방직설비 현대화 및 증설 지방공업부문 생산공장의 생산공정과 설비 현대화</p>
농 립 수 산 업	<p>100정보당 트랙터 보유대수 10~12대, 정보당 화학비료 시 비량 2.5톤이상, 30만ha의 간석지 간척(처음 3~4년간 15 만ha) 축산기지 확대 150만ha의 산림에 낙엽송 등 식림 14,000톤급 대형가공모선·3,750톤급 선미트롤선·1,000톤급 ·480톤급 등 각종 어선 건조 연안 양식면적을 10만ha로 확대 현대적 수산물가공기지, 저장시설 증설</p>
교 통 · 운 수	<p>북부철도 완성, 서부지구에 새로운 환상선철도 형성 평양~청진간 복선철도 완공, 평양~사리원간 주요 간선철 도 복선화 주요 간선도로 고속도로화</p>
도 시 건 설	<p>매년 15~20만세대 주택건설, 평양 광복거리, 낙랑거리 등 에 주택가 조성 대동강, 보통강, 룡라도, 양각도에 근로자 문화휴식장 건설 지방도시와 농촌에 씨리카트 벽돌주택건설, 백두산·금강산 ·묘향산 종합개발 명사십리·몽금포 등에 해수욕장 조성</p>
주민생활향상	<p>인민소비품 생산에서 일대 혁명 소비상품 유통액 2.1배 증대, 특히 농촌에 상품공급 치중</p>

2. 경제시책방향

가. 『기본건설』 관련 시책

- 제 3 차 7 개년계획기간중 북한은 전력, 석탄, 금속공업 등 소위 『선행부문』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건설사업의 추진이 역량을 집중하였음.
 - 특히 당면한 전력난과 관련, 10여개 이상의 대규모 수·화력 발전소의 건설과 탄·광산능력 확장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 철도운수부문에서는 수송애로 해소의 일환으로 철도전기화·중량화 시책을 강구하였음.
- 계획 초반에는 중요 대상건설 사업들의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였으나 건설장비 및 자재부족, 기술부족 등으로 대부분의 대상건설사업이 난관에 봉착함에 따라 후반에는 당면 경제난국 타개에 필요 불가결한 일부 중요 대상건설사업들만을 선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되었음.
 - '91. 1. 1 김일성은 신년사를 통해 “제 3 차 7 개년계획 수행에 관건이 되는 중요 대상건설사업”의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하였는 바
 - 이는 북한이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개최('89. 7월)를 위한 체육·문화시설 등 비생산부문의 건설에 치중한 결과, 당초 계획했던 건설사업의 정상적 추진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임.

나. 『식·의·주』 관련 시책

- 『식·의·주』문제와 관련 김일성은 “인민들이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사는 것”이 사회주의 건설의 당면목표

라고 기회 있을때마다 언급·강조해 왔음.

- 제 3 차 7 개년계획 기간중 북한은 『먹는 문제』와 관련하여 농업생산을 '86년의 1.4배(연평균 증가율 4.9%)로 증대시킨다는 목표하에
 - 해마다 소위 『농사제일주의 방침』관철을 강도높게 촉구하는 가운데 농촌 4화, 농경지 확장사업 등 농업생산 기반 강화책을 계속 추진하였음.

* 농촌 4화 :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

농경지 확장사업 : 서해안 30만정보 간석지 개간, 20만정보 새땅
찾기운동 전개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량생산량이 매년 감소추세를 나타내자 김일성은 '92년도를 『대농의 해』로 설정하고 농업생산 증대를 독려했음.
- 주민생활품의 만성적 부족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경공업부문 시책은 『8.3인민소비품』증산운동으로 구체화되었음.
-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이 개최되었던 '89년도에는 경공업 발전 및 소비재 증산 문제가 경제정책의 우선적인 과제로 대두되었음.

〈표 5〉 '89년도 주요 경공업부문 발전시책

일 자	주 요 내 용
1. 1	○ 김일성 신년사를 통해 '89년도를 『경공업의 해』로 설정
5. 27	○ 8.3 인민소비품 생산처리에 관한 규정(전문 4장 17조) 채택
6. 7~11	○ 『경공업발전 3개년계획』 채택(당중앙위 제 6 기 제16차 전원회의)
6. 22	○ 『8.3 인민소비품 생산 모범군(구역)』칭호 수여에 관한 규정 채택
8. 11	○ 『가내작업반 관리규정』 제정

- 주택부문에서는 평양시 3만세대의 아파트건설 등을 비롯하여 각 도시 및 농촌들에서 주택건설사업이 추진되었으나 평양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건설자재공급 부족으로 건설이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하였음.

다. 과학기술관련 시책

- 북한은 과학기술의 낙후가 경제건설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당중앙위 제 6 기 제13차 전원회의('88. 3. 7~11)를 통해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을 제시하였음.
 - 이 계획은 『제 3 차 7 개년계획 성과의 관건』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중요시된 '88. 7월~'91. 6월까지의 계획으로서 주로 전자공학·생물학·열공학 발전에 초점이 맞추어졌음.
 - 전자공학분야에서는 경제의 자동화·로봇화·전산화와 집적회로(IC)의 연구개발 및 광섬유 통신에 필요한 전자장치 연구사업 강화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 생물학의 경우는 세포공학·유전자공학·미생물공학 등의 발전과 우량품종 육종 등에
 - 그리고 열공학에서는 저열탄 활용문제, 태양력·풍력 등 자연에너지의 효과적 이용 등이 주요 관심과업으로 다루어졌음.
- 그러나 북한은 이 계획의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91. 8월 정무원 기관지 「민주조선」을 통해 다시 제 2 차 『과학기술발전 3개년 계획』('91. 7월~'94. 6월)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음.
 - 이 계획은 김정일 주도하에 수립된 것이며 기계공업, 전자, 자동차공업, 화학공업, 농업 등 경제 주요부문의 과학기술수준을 선진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을 골간으로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무원에서는 「제 2 차 계획」의 철저한 집행을 촉구하는

『결정』을 채택, 시달하는 한편,

- ①과학기술역량 집중 ②과학기술행정사업 강화 ③연관부문과의 상호협조체계 확립 ④기타 구체적인 실무대책 수립 등을 지시하였음.

○ 또한 북한은 '91. 10월 개최된 『전국과학자대회』를 통해 과학기술부문의 중장기 계획인 『2000년 과학기술발전 전망목표』를 제시하였는바,

- 이 계획 역시 전자·기계·열·생물·화학공학 등 북한의 과학기술부문에 있어 취약부문으로 지적되고 있는 첨단과학기술부문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음.

〈표 6〉 2000년 과학기술발전 전망목표

- 2000년까지 수학 등 기초과학발전 토대 구축
- 컴퓨터·원자력 이용 기술 등 첨단과학기술발전 도모
- 금속·전자·기계공업·경공업·농업 등 산업 전부문의 과학기술 발전
- 2000년까지 연간 국민소득의 5%를 과학기술분야에 투자
 - 박사, 준박사 등 200만명의 기술자, 전문가 양성
- UNDP 등 유엔산하 과학기술기구와의 교류증대 및 지원기금확보를 통한 선진기술 도입
- 연구단지 조성 및 공장, 기업소 등 현장 연구소의 현대화 등 연구환경 개선

○ 이밖에 북한은 과학기술축전 등 과학기술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관련 행사들을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과학기술의 개발도입 및 일반화에

주력하기로 하였음.

- 과학기술성과 발표회, 새 기술 도입 및 기술혁신 성과 발표회, 기술혁신 현상모집, 기술혁신 전시회, 기술강습 등 진행

라. 대외무역 및 경제협력관련 시책

- 당초 북한의 무역정책방향은 사회주의권 시장을 기본 토대로 하고 서방권 시장에 진출하여 수출증대를 꾀함으로써 심화되는 외화부족 문제를 해소시킨다는데 역점이 두어졌음.
- 그러나 '90년대 들어오면서 구소련 및 동구사회주의 제국의 붕괴로 대외무역환경이 불리하게 급변함에 따라 북한은 과거와는 달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무역시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었음.
 - 북한은 상품의 품질, 국제적 신용도, 서방시장에서의 무역관행에 대한 정보 등이 수출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 동남아시아, 비동맹국가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경제외교를 통해 시장개척활동을 전개하는 등 무역다변화시책을 적극 강구하기 시작하였음.
-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사업은 주로 합영기업 유치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었으며 일본의 조총련 상공인 및 구소련과는 특히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음.
 - '87~'89 기간중 합영실적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북한은 합영기업의 유치 또는 해외진출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정무원내 합영공업부를 신설('88. 11. 26)한 바 있음.
- 그러나 투자여건 미비로 인한 서방기업의 대북 투자 외면으로 북한 측이 원하는 첨단과학기술부문이나 기간산업부문에 대한 합영 유치

실적은 매우 부진했으며 서비스 및 경공업·농업부문의 소액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 이에 따라 북한은 합영 일변도의 기존 대외경제협력 정책에 대폭적인 수정을 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

- '90. 5월 북한은 합영공업부를 신설 1년 6개월만에 폐지하고 대신 합영사업관련 업무를 합영공업총국에서 담당토록 하였으며 그동안 부정적 입장을 고수해 왔던 중국식의 『경제특구』방식을 적극 검토하기에 이르렀음.
- 이에 따라 북한은 '91. 12. 28 『정무원 결정 74호』를 통해 함경북도 나진-선봉지역의 621km²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하고 나진·선봉, 청진을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하였음.
- 그 이후 북한의 핵문제와 맞물리면서 외자 유치실적이 저조하였으나 북한은 서방의 선진자본과 기술유치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령정비 작업에 주력해 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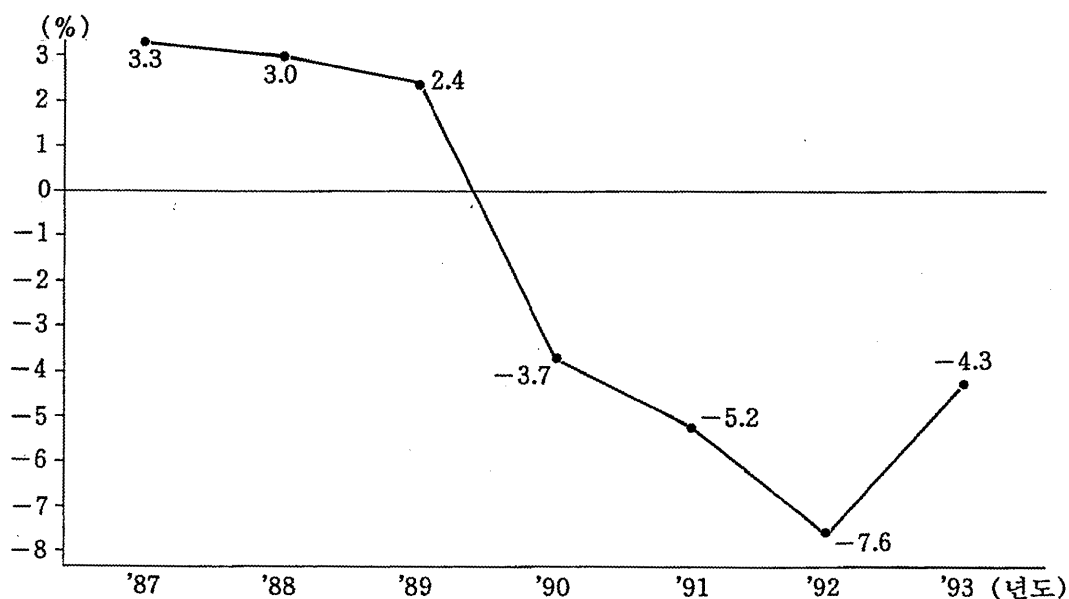
3. 경제규모의 변화

가. 경제성장률

- 북한은 제 3 차 7 개년계획기간에 경제성장목표를 연평균 7.9%로 설정 하고 제 2 차 7 개년계획과 마찬가지로 채취(특히 석탄) 전력, 금속공업 및 수송부문을 소위 『선행부문』으로 하여 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음.
- 그러나 '87~'89 기간중 성장실적을 보면 목표성장에 크게 미달한 가운데 3.3%→3.0%→2.4%로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성장률이 떨어지는 경향을 나타내었음.

- 더우기 '90~'93년 기간중에는 경제성장률이 각각 -3.7%, -5.2%, -7.6%, -4.3%로 4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으로써 북한경제는 전후 최악의 침체국면으로 접어들었음.
- 그 결과 제3차 7개년계획기간중 북한의 경제규모는 매년 평균 1.7%씩 감소함으로써 계획 종료년도인 '93년도의 경제규모는 '86년도에 비해 오히려 12% 줄어든 것으로 평가되었음.

〈그림 1〉 경제성장률 추이



나. GNP 및 1인당 GNP

- 북한의 경상 GNP는 '86년의 194억달러에서 점차 늘어나 '90년에 231억달러로 정점을 이루었다가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93년에 205억달러로 줄어들었음.
- '86년 불변가격으로 평가할 경우 '93년도의 GNP는 12% 감소한 153.1억달러에 불과함.

- 그 결과 남북한의 경상 GNP 규모는 '86년에 6.1 : 1이던 것이 '93년에는 16.0 : 1로 그 격차가 크게 확대되었음.

〈표 7〉 남북한 GNP 규모 (단위 : 억달러, 배)

구 분	'86	'87	'88	'89	'90	'91	'92	'93
한 국	1,054	1,334	1,798	2,204	2,518	2,920	3,057	3,287
북 한	174	194	206	211	231	229	211	205
한국/북한	6.1	6.9	8.7	10.4	10.9	12.8	14.5	16.0

- 북한의 1인당 GNP는 '86년의 853달러에서 '93년에는 904달러로 소폭 늘어났으나
 - 이에 비해 남한은 '86년의 2,568달러에서 '93년에는 7,466달러로 대폭 증가함으로써 남북한 격차는 3.0 : 1에서 8.3 : 1로 확대되었음.
- 기간중 남북한의 1인당 GNP 격차가 GNP 절대규모 격차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벌어지게 된 이유는
 - 남북한의 인구증가 속도가 남한은 완만한데 비해 북한은 상대적으로 빠른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임.
 - * '87~'93 기간중 남북한의 연평균 인구증가율 :
남한 0.94%, 북한 1.55%

〈표 8〉 남북한 1인당 GNP (단위 : 달러, 배)

구 분	'86	'87	'88	'89	'90	'91	'92	'93
한 국	2,568	3,218	4,295	5,210	5,883	6,757	7,007	7,466
북 한	853	936	980	987	1,064	1,038	943	904
한국/북한	3.0	3.4	4.4	5.3	5.5	6.5	7.4	8.3

다. 생산성의 변화

○ 실질경제성장에 기초하여 제 3 차 7 개년계획기간중 북한의 1인당 평균생산지수의 변화를 총량적으로 살펴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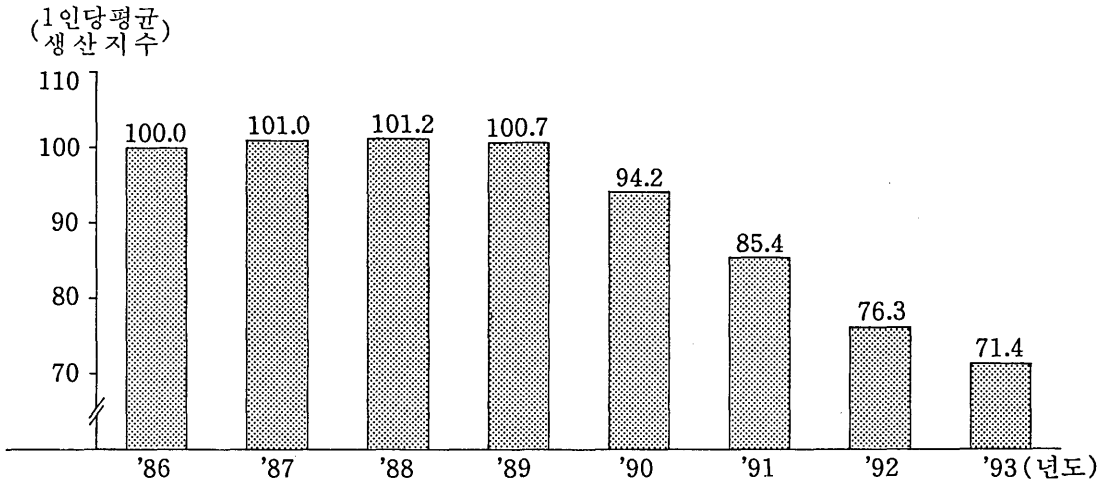
- '87~'89년 기간중에는 1인당평균생산지수가 101.0수준으로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임으로써 '93년에는 71.4로 '86년에 비해 28.6% 낮아졌음.

* 여기서 말하는 1인당평균생산지수는 실질 GNP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누어 기준년도 대비 100분율로 나타낸 것임.

$$\text{1인당평균생산지수} = \frac{\text{당해년도 실질 GNP}}{\text{당해년도 경제활동인구}} \div \frac{\text{기준년도 실질 GNP}}{\text{기준년도 경제활동인구}} \times 100$$

<그림 2>

1인당평균생산지수의 변화



○ 이와같이 기간중 1인당 평균생산지수가 급감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 북한이 노동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적정수준의 자본시설 확보가 어려운 여건하에서
- 노동을 과다 투입함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임.

II. 부문별 평가

1. 총량부문

〈경제성장률〉

- 제 3 차 7 개년계획기간('87~'93년)중 북한은 국민소득을 기초년도보다 1.7배(연평균 7.9%)로 늘린다는 성장목표를 제시하였음.
- 기간중 실제로 달성한 성장실적은 연평균 1.7%의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이에 따라 계획종료년도의 경제규모는 불변가격 기준으로 기초년도의 88% 수준으로 감소되었음.
- 따라서 국민소득의 경우 계획수행실적은 당초 목표의 51.8% 수준에 머물렀음.
- 제 3 차 7 개년계획기간중의 경제계획수행률을 연도별로 보면, 계획초기부터 수행실적이 경제계획목표에 미달하는 저조한 실적을 보였으며 이러한 실적 부진현상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회복되지 못하고 오히려 심화되는 추세를 나타내었음.
- '87~'89년 기간중 점감추세에 있기는 하나 비교적 높은 경제계획수행률을 보였다고 할 수 있는 바
 - 이는 무엇보다도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개최와 관련, 기본건설 및 연관산업부문에 집중적으로 노동력과 투자재원을 투입한 결과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하겠음.
 - * 기본건설 : 생산적 및 비생산적 고정재산을 새로 만들며 이미 있는 고정재산을 개건확장하는 물질적 생산부문(사회과학출판사, 경제사전, 1985, p.276)
- 그러나 '90년대에 진입하면서부터 이와같은 기본건설부문 중심의 성

장전략은 재정부족→투자부진→기본건설 부진→여타 산업부문 확산 등의 경로로 후유증이 확대되었으며

- 특히 구소련 및 동구제국의 붕괴이후 국제질서가 자국 실리주의 경향으로 재편됨에 따라 정치적 유대에 기초했던 북한의 대외거래 기반이 무너짐으로써 북한경제는 대내외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음.

* 북한은 '93. 12. 9 『제 3 차 7 개년계획('87~'93)수행 정형에 대한 당중앙위 전원회의 보도』를 통해 “여러 사회주의 나라들과 세계사회주의 시장 붕괴로 이 나라들과 맺었던 장·단기 무역협정들이 형클어지고 그 이행이 거의 중단되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이로 인해 “제 3 차 7 개년계획을 원래 예견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음.

〈표 9〉 제 3 차 7 개년계획기간중 연도별 경제계획수행률 (단위 : %)

구분	'87	'88	'89	'90	'91	'92	'93
실질성장률	3.3	3.0	2.4	-3.7	-5.2	-7.6	-4.3
총성장실적	3.3	6.4	9.0	4.9	-0.5	-8.1	-12.0
목표성장률	7.9	7.9	7.9	7.9	7.9	7.9	7.9
총목표성장	7.9	16.4	25.6	35.5	46.2	57.8	70.0
계획수행률	95.7	91.4	86.8	7.4	68.1	58.2	51.8

주 : 총성장실적 및 총 목표성장은 당해년도의 기준년도('86년) 대비 성장실적 및 성장목표를 말함.

〈국민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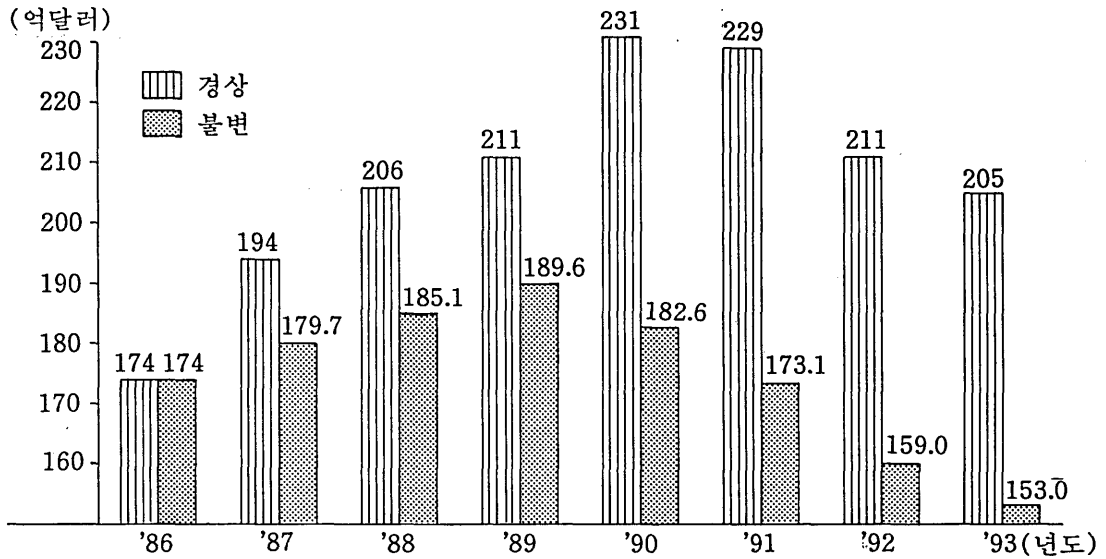
○ 경상 GNP를 보면 기준년도인 '86년에 174억달러이던 것이 '93년에

는 205억달러로 기준년도보다 약 1.18배 증가하였음.

- 경상 GNP의 규모가 가장 컸던 해는 '90년으로서 231억달러에 이르렀으나 이후 연속적인 부의 성장을 기록함으로써 하향추세를 보였음.

○ 그러나 '86년 불변가격으로 실질 GNP를 산출하면 '93년에는 153억달러로 기준년도의 174억달러보다 그 규모가 12.0% 줄어들었음.

〈그림 3〉 연도별 경상 및 불변 GNP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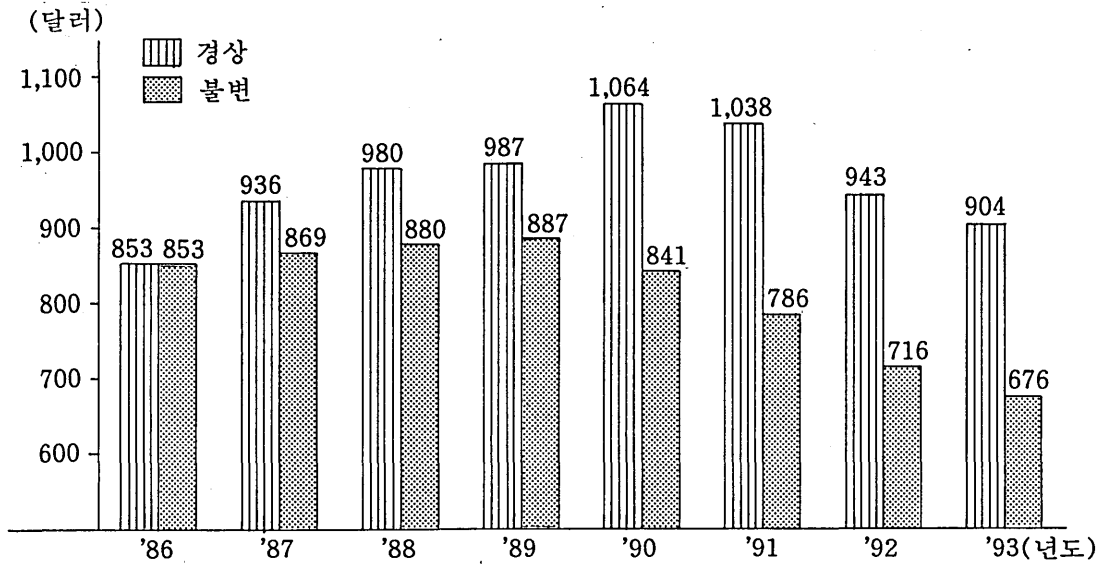


주 : 1990년부터 추정기관이 바뀜에 따라 추정상의 오차가 있을 수 있음.
불변가격 기준년도는 1986년임.

○ 경상가격 기준의 1인당 GNP 추세를 보면 '86년의 853달러에서 '90년의 1,064달러를 정점으로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여 종료년도인 '93년에는 904달러로 줄어들었음.

○ 그러나 불변가격 기준 1인당 GNP는 '86년의 853달러에서 '93년에 676달러로 20.8% 감소하였음.

〈그림 4〉 연도별 경상 및 불변 1인당 GNP 추이



주 : 1990년부터 추정기관이 바뀜에 따라 추정상의 오차가 있을 수 있음.
 불변가격기준년도는 1986년임

- 따라서 북한이 제 3차 7개년계획 중점과제의 하나인 『식·의·주』 문제 해결을 통한 주민생활수준 향상은 완전히 실패하였으며 오히려 '86년의 수준보다 더 열악(20.8% 이상)해짐으로써 주민의 불평불만은 크게 증대되었음.
- 그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기본건설부문 투자와 군사비 지출을 무리하게 증대시켜 옴으로써 주민에게 돌아가는 실질소득은 불변가격기준에 의한 1인당 GNP의 감소폭보다 더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 것으로 평가됨.

〈표 10〉 북한의 실질군사비지출 규모와 대 GNP 비중
(단위 : 억달러, %)

구 분	'87	'88	'89	'90	'91	'92	'93
실질군사비	42.2	44.2	44.9	49.6	51.3	55.4	56.2
군사비/GNP	21.8	21.5	21.3	21.5	24.3	26.3	27.4

〈노동생산성〉

- 제 3 차 7 개년계획기간중 북한의 인구는 연평균 1.55%씩 증가하여 '86년에 20,340천명이던 것이 '93년에는 22,645천명으로 약 1.1배 증가하였음.
- 북한의 인구증가율은 기간중 1.38%~1.70%로 아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제 2 차 7 개년계획('78~'84)시기의 1.89%~1.95% 보다는 크게 낮아졌음.
- 경제활동인구는 '86년의 8,678천명에서 '93년에는 10,674천명으로 1.23배가 증가하였으며
- 15세이상 인구(생산가능연령인구)에 대한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인 경제활동참가율은 '86년의 67.3%에서 '93년에는 68.4%로 높아졌음.

〈표 11〉 북한의 인구관련지표
(단위 : 천명, %)

구 분	'87	'88	'89	'90	'91	'92	'93
총 인 구 수	20,685	21,030	21,375	21,720	22,028	22,336	22,645
인 구 증 가 율	1.70	1.67	1.64	1.61	1.42	1.40	1.38
경제활동인구	8,868	9,122	9,383	9,652	10,083	10,430	10,674
경제활동참가율	66.7	66.6	66.5	66.5	67.8	68.4	68.4

- 북한의 실질 GNP를 당해년도 경제활동인구로 나눈 다음 1인당평균 생산지수를 산출하면 기간중 북한 노동생산성의 변화를 간접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음.

$$* \text{1인당평균 생산지수} = \frac{\text{당해년도 실질 GNP}}{\text{당해년도 경제활동인구}} \div \frac{\text{기준년도 실질 GNP}}{\text{기준년도 경제활동인구}} \times 100$$

〈표 12〉 북한 1인당평균생산 지수의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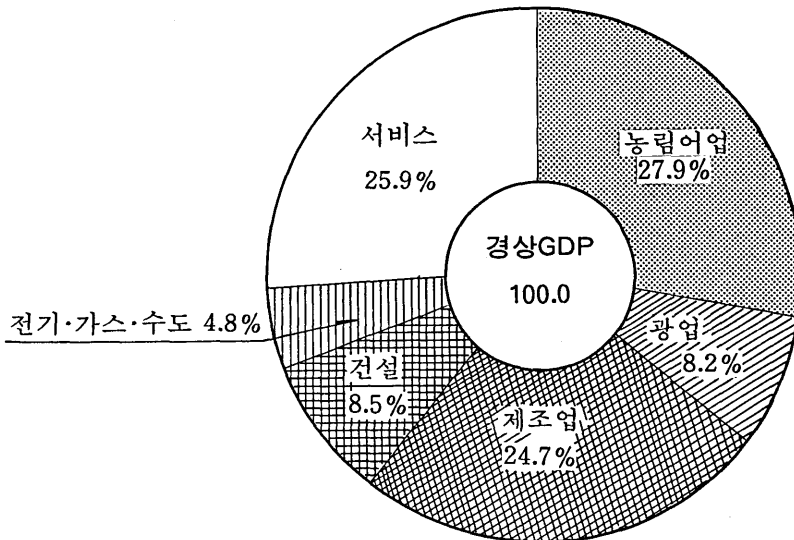
연 도	실질 GNP(억달러)	경제활동인구(천명)	1인당평균생산 지수
'86	173.5	8,673	100.0
'87	179.2	8,868	101.0
'88	184.6	9,122	101.2
'89	189.0	9,383	100.7
'90	181.7	9,652	94.2
'91	172.2	10,083	85.4
'92	159.1	10,430	76.3
'93	152.3	10,674	71.4

- 〈표 12〉에 의하면 북한의 노동생산성이 제 3 차 7 개년계획기 초반에는 현상유지를 하다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급락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음.
- 기준년도인 '86년의 1인당평균생산지수를 100.0이라고 할 때 북한의 1인당평균생산지수는 '90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종료년도인 '93년에는 71.4로 기준년도 대비 28.6%나 감소하였으며 이는 같은 기간 실질 GNP규모 감소율 12%보다도 감소폭이 큰 것임.

〈산업구조〉

- 한편, 제 3 차 7 개년계획기간중 북한의 산업구조를 보면 북한이 경제 운용의 대원칙으로 『자력갱생』 및 『군산복합형 산업정책』을 견지함으로써 농림어업과 광업 등 원시산업부문의 비중이 전산업의 약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 주민생활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공업 및 건설업과 서비스 부문의 비중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기간중 주민의 물질문화생활 향상을 목표로 하여 경공업부문의 증산을 추구하였으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경공업 정책이 추진되지 못한 가운데 주로 『8.3 인민소비품』생산운동에 의존함으로써 중공업과 경공업간의 불균형은 개선되지 못하였음.
 - 기간중 중공업과 경공업간의 생산비율은 각 연도마다 다소간의 변동은 있었으나 대체로 73 : 27 수준으로 추정되었음.

〈그림 5〉 북한의 산업구조(1993년 현재)



2. 재정·금융

가. 재정수입

- 계획경제인 북한의 재정수입은 당해년도 북한경제가 이룩한 실적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으며 당초 책정된 예산과 결산에서 나타난 실적을 통해 산출된 계획수행률은 북한의 재정사정을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 있음.
- 제 3 차 7 개년계획에서 북한은 국민소득 수준을 '93년까지 1.7배로 높인다는 목표를 설정한 만큼 재정계획 역시 동 목표의 달성을 뒷받침하도록 수립, 시행되어야 할 것임.
- 그러나 제 3 차 7 개년계획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7.9%를 목표로 하였으나 예산은 연평균 5.1% 증가하는데 그쳐 경제건설에 필요한 재정을 예산면에서 뒷받침하지 못하였음.

〈표 13〉

예산수입 및 수행률

(단위 : 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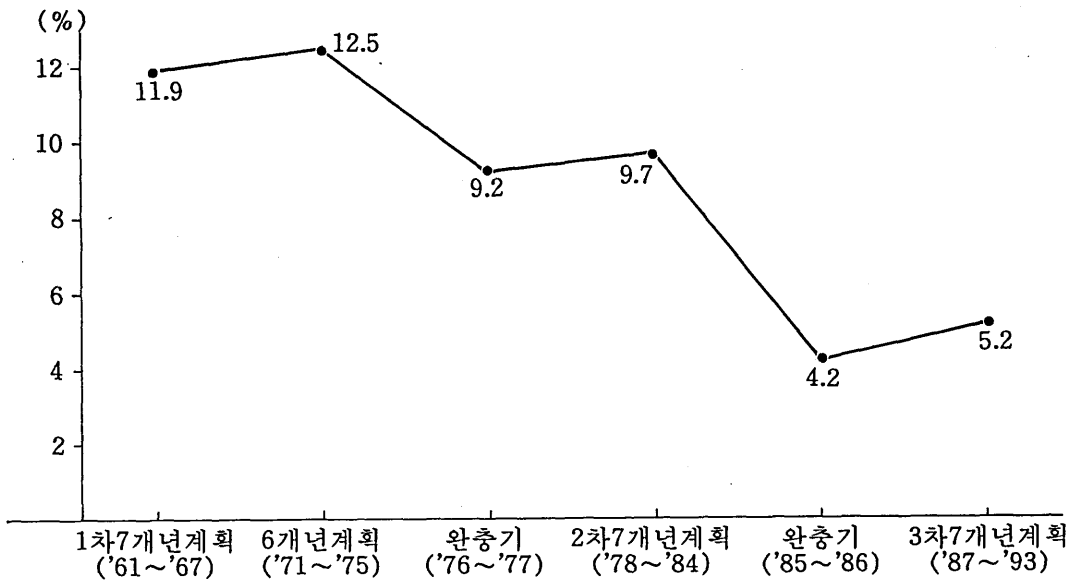
구 분	예 산	결 산	결 산 / 예 산
1987	3,030,770	3,033,720	100.1
1988	3,185,210	3,190,580	100.2
1989	3,355,070	3,360,810	100.2
1990	3,565,610	3,569,041	100.1
1991	3,712,060	3,719,484	100.2
1992	3,950,092	3,954,042	100.1
1993	4,044,985	4,057,120	100.3

- 또한 계획기간중 북한경제사정 악화로 인해 재정수입 확보에 큰 어

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은 연평균 재정수입증가율이 종래의 어느 경제 계획기 보다도 낮다는 점에서도 찾아 볼 수 있음.

- 북한 발표로 볼 때 '60년대 이후 재정수입증가율이 연평균 9.7~12.5%로 고속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제 3차 7개년계획기에는 5.2%로 급격히 둔화되었음.

(그림 6) 경제계획기간별 연평균 재정수입증가율



-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재정수입이 주로 조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 북한의 경우에는 거래수입금, 국가기업이익금, 협동단체 이익금 등 사회주의적 경제활동 성과의 전반을 반영하는 소위 『사회주의 경리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예산수입구조를 보면 『거래수입금』은 사회주의 경리수입의 55% 이상을 점하고 있으며 『국가기업이익금』은 30%내외, 『협동단체이익금』 및 기타 수입이 15%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북한이 제 3 차 7 개년계획기간중 『지방예산』의 잉여분을 『중앙예산』으로 여입하였다고 밝힌 것은 '90년까지이며 그 이후부터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어서 지방예산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움.
- 그러나 북한이 각 년도별 최고인민회의에서의 재정보고를 통해 밝힌 『지방예산』의 『국가예산』납부규모에 북한경제 현실에 근접하는 가정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는 추정할 수 있음.
- 북한의 지방예산수입규모는 『국가예산』에서 『중앙예산』(거래수익금 + 국가기업이익금)을 뺀으로써 대체적이나마 산출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표 14>와 같음.

<표 14> 중앙예산 및 지방예산 수입의 평가 (단위 : 만원, %)

구 분	국 가 예 산		중 앙 예 산		지 방 예 산	
	규 모	비 중	규 모	비 중	규 모	비 중
'87	3,033,720	100.0	2,563,107	84.5	470,613	15.5
'88	3,190,580	100.0	2,705,848	84.8	484,732	15.2
'89	3,360,810	100.0	2,856,689	85.0	504,121	15.0
'90	3,569,041	100.0	3,066,067	85.9	502,974	14.1
'91	3,719,484	100.0	3,242,818	87.2	476,666	12.8
'92	3,954,042	100.0	—	—	—	—
'93	4,057,120	100.0	—	—	—	—

주 : '87~'89년은 북한발표 전년비 증가율에 의거 역산출

- 추정결과 제 2 차 7 개년계획기간중에는 전체 예산에서 16.7%를 차지 하였던 지방예산 수입규모가 제 3 차 7개년계획기간에 들어와서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임.
- 국가예산중 지방예산의 비중이 '87년 15.5%에서 '91년 12.8%로

크게 감소하였음.

- 이는 북한이 '78.12월 이래 예산수입 증대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지방예산제가 제 3차 7개년계획기에 와서는 동원할 수 있는 지방의 예비(유휴 또는 잠재된 원료, 자재, 시설, 노동력 등 경제자원)의 고갈로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임.
- 또한 중앙예산중에는 지방예산에서 계획외의 수입초과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방예산으로부터 중앙예산에 여입하였던 부분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중앙예산 수입의 수행률이 계획에 미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는 중앙예산의 납부대상이 되는 국영기업소를 비롯한 기간 공장, 기업소의 생산실적 및 거래 부진이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이익금 수입부진으로 투영되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임.

나. 재정지출

- 제 3차 7개년계획기간중 북한의 재정지출규모는 '86년의 283억 9,610만원(127.3억달러)에서 7년동안 연평균 5.1%의 증가세를 보여 '93년에는 약 1.4배 증대된 402억 4,290만원으로 늘어났음.
- 그러나 기간중 재정지출의 증가속도는 연평균 10.1%의 증가율을 실현하였던 제 2차 7개년계획시기보다 절반수준으로 대폭 둔화된 것임.
- 또한 시기별로 보면 '87~'90년까지는 재정지출이 전년비 5~6%선을 유지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2~4%선으로 더욱 하락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이와같은 재정지출의 급격한 둔화추세는
 - 제 2차 7개년계획추진시 출혈적인 지출로 인해 이미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 전반기에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개최, 유경호텔 건설 등 전시적·과시적 건설사업의 무리한 추진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재정지출의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나 재정상황이 더욱 빈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 '90년대 들어서부터는 독일통일, 구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등으로 기존의 사회주의 무역 및 경제협력질서가 무너짐으로써 악화일로에 있는 재정사정을 더욱 압박, 북한으로서는 재정의 긴축운용이 불가피하였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임.

〈표 15〉 예산지출규모 추이

구 분	금 액(만원)	증가율(%)	비 고(억달러)
'86	2,839,610	3.9	127.3
'87	3,008,510	5.9	140.6
'88	3,166,090	5.2	147.3
'89	3,338,294	5.4	149.7
'90	3,551,348	6.4	166.0
'91	3,690,924	3.9	171.7
'92	3,930,342	6.5	184.5
'93	4,024,297	2.4	187.2

주 : 비고는 미달러화로 표시한 북한의 예산지출규모임.

○ 북한에서는 재정지출항목을 크게 인민경제비, 사회문화시책비, 군사비, 기관관리비 등으로 분류하고 있음.

* 인민경제비 : 북한의 경제발전과 주민생활 향상과 관련된 지출로서 추가적 시책비, 공업사업비, 농업사업비, 도시경영사업비, 지방사업비, 대외경제사업비, 과학기술발전사업비 등이 포함되어 있음.

- * 사회문화시책비 : 교육, 문화, 보건부문 등 사회문화부문의 발전을 위해 지출되는 예산자금
- 북한의 재정지출내역은 명확히 발표되지 않고 있으나 지출구조상의 구성비 또는 항목별 증가율 그리고 종래의 추세 등을 종합 분석하여 제 3 차 7 개년계획기간중 기능별 지출규모를 추계하여 볼 수 있음.
- 인민경제비는 '86년 186억 1,505만원(83.5억달러)에서 '93년에 약 1.5 배 증대된 272억 9,607만원(126.9억달러)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5.6 %를 기록하였음.
 - 이는 제 2 차 7 개년계획시의 연평균 인민경제비 증가율 11.6%보다 증가세가 대폭 둔화된 것임.
- 사회문화시책비는 '86년의 54억 6,094만원(24.5억달러)에서 '93년에 약 1.4배 증대된 76억 5,908만원(35.6억달러)으로 기간중의 연평균 증가율은 5.0%로 나타나고 있음.
- 그리고 군사비는 '86년 총재정규모의 13.8%인 39억 1,866만원(17.6억달러)에서 '93년에 약 1.2배 증대된 46억 2,794만원(21.5억달러)으로 연평균 2.4%의 매우 둔화된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발표되었음.
 - 제 2 차 7 개년계획시기에는 연평균 군사비 증가율이 9.0%로 매우 높은 증가세를 나타낸 것으로 발표되었음.
 - 군사비가 낮은 증가세를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강성산 총리는 제 3 차 7 개년계획의 실패원인을 '재정의 많은 부분을 군사 비로 돌렸기 때문'이라고 언급, 북한의 실질적인 재정운용과 관련 시사하는 바가 큼.
- 이와는 달리 기관관리비는 '86년 4억 145만원(1.8억달러) 에서 '93년에는 약 1.7배 증대된 6억 6,528만원(3.1억달러)으로 연평균 7.5%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 제 2 차 7 개년계획시 관리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1.7%에 불과
- 정상적 지출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기관관리비의 지출 증가 폭이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북한 기관, 기업소들의 비생산적·낭비적 지출이 확대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임.

〈표 16〉 기능별 예산지출내역 (단위 : 만원, 결산기준)

구분	총 계	인민경제비	사회문화비	군 사 비	기관관리비
'86	2,839,610	1,861,505	546,094	391,886	40,145
'87	3,008,510	1,997,395	568,897	397,123	45,095
'88	3,166,090	2,127,226	600,185	386,263	52,416
'89	3,338,294	2,250,605	631,395	400,595	55,694
'90	3,551,348	2,399,145	669,279	426,162	56,762
'91	3,690,924	2,504,707	692,704	446,602	46,911
'92	3,930,342	2,662,504	750,891	448,058	68,879
'93	4,024,297	2,729,067	765,908	462,794	66,528

주 : 북한발표 자료에 의거 산출

〈표 17〉 기능별 예산지출 증가율 (단위 : %)

구분	총 계	인민경제비	사회문화비	군 사 비	기관관리비
'87	5.9	7.3	4.2	1.3	12.3
'88	5.2	6.5	5.5	-2.7	16.2
'89	5.4	5.8	5.2	3.7	6.3
'90	6.4	6.6	6.0	6.4	1.9
'91	3.9	4.4	3.5	4.7	-17.4
'92	6.5	6.3	8.4	6.3	46.8
'93	2.4	2.5	2.0	3.3	-3.4
연평균	5.1	5.6	5.0	2.4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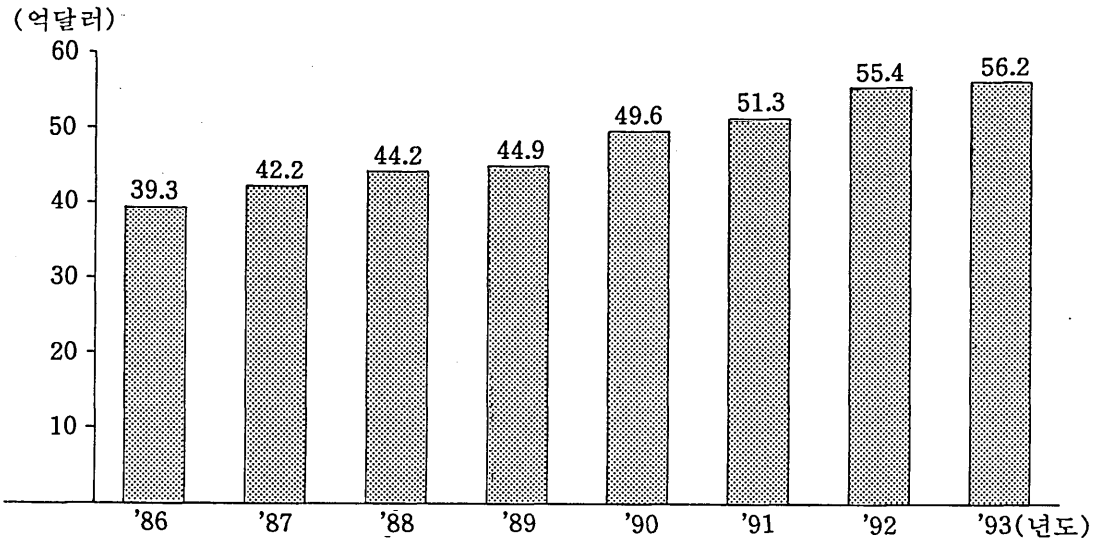
○ 그러나 북한이 밝히고 있는 군사비 지출규모는 인민경제비, 사회문화시책비 등 타항목에 상당부분을 은폐시키고 있기 때문에 실제 재정지출 구성비와는 크게 다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북한은 4대군사노선을 추진했던 1967~71년 기간중 군사비의 대 예산비중을 31~32%로 발표하였으며 그 이후 지금까지 북한이 군사력강화정책을 계속 견지해 오고 있는바, 이를 감안할 때 실질 군사비 지출규모는 통상 예산총액의 30%수준으로 분석됨.

○ 제 3 차 7 개년계획기간중의 실질군사비는 '86년 87.6억원(39.3억달러)에서 '93년에 121.7억원(56.2억달러)으로 약 1.4배 증대된 것으로 분석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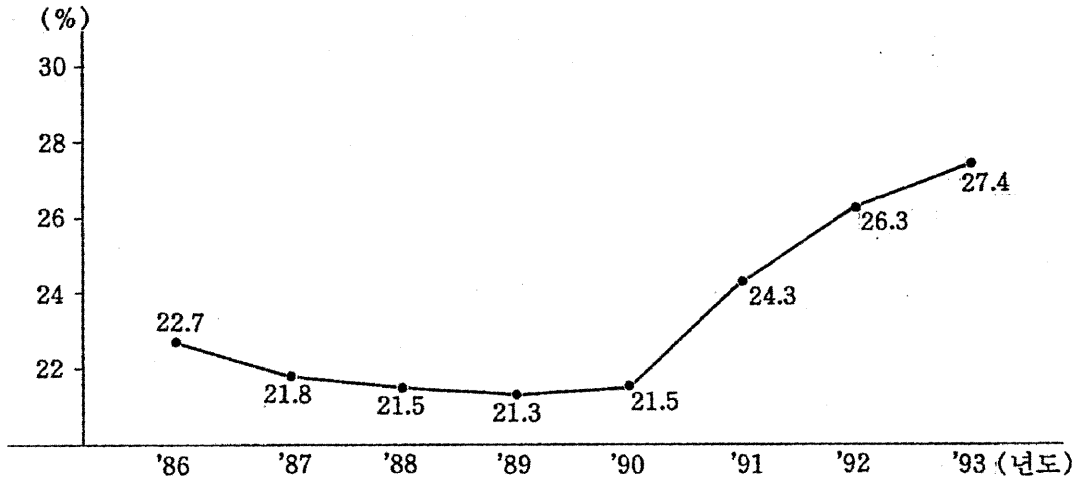
○ 따라서 기간중 북한 실질군사비 부담률은 '86~'90년에는 연평균 21.8%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급등세를 보여 종료년도인 '93년에 27.6% 보인 것으로 추정되었음.

〈그림 7〉 북한의 실질군사비의 추정결과



<그림 8>

북한 실질군사비의 대 GNP 비중 추이



다. 화폐·금융

- 실물공급 경제인 북한의 화폐·금융부문은 재정의 한 부분으로서 올바른 독립채산제 시행을 위한 감독 등 재정통제적인 기능(『원에 의한 통제』)이 매우 강한 속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 밀접한 연계를 맺고 있는 재정부문과는 사실상 별도로 구분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 원에 의한 통제 : 북한이 재정은행기관들을 통해 수입금을 받아들이고 자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기관·기업소의 경영활동에 대하여 실시하는 화폐적 통제
- 제 3 차 7 개년계획기간중 가장 특기할만한 화폐·금융부문의 시책은 '92. 7. 15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새 돈을 발행함에 대하여”)을 통해 단행된 4번째의 『화폐교환』시책임.

〈표 19〉

분단이후 북한의 화폐개혁(교환)

구 분	시 기	내 용
1차 화폐개혁	1947.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제시대 발행·통용되던 화폐중 보조화폐를 제외한 전 화폐를 1:1 비율로 교환 ○ 1949. 5이후 새 보조화폐 발행, 1949. 8. 15이후 『조선중앙은행』발행 화폐만 통용 ○ 『북조선 인민위원회 법령 제30호』에 근거
2차 화폐개혁	1959.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5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 누증방지, 새로운 재정금융 토대 구축 및 새 경제계획 실시에 따른 투자재원확보 목적 ○ 구화폐 100원 : 신화폐 1원 비율로 교환 ○ 『내각 결정 11호』에 근거
3차 화폐개혁	1979.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액의 제한없이 1:1비율로 교환 ○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는 보유화폐를 은행에 입금시킨후 필요한 만큼 새돈을 지불받음. ○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에 근거
4차 화폐개혁	1992.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화폐제도의 공고화, 화폐유통의 원활화 ○ 100원, 50원, 10원, 5원, 1원 등 5종의 중앙은행권 발행·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전은 계속 유통 ○ 신구권 교환비율은 1:1 ○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에 근거

〈화폐교환의 배경〉

- 북한은 무리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준비, 기간산업 위주의 편중투자 등으로 전반적인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실물부족 현상이 전 사회에 만연됨에 따라
 - 개인 및 기업은 부족한 물자의 신속한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보다 유동성이 강한 현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음.
- 이에 따라 북한당국은 사장통화를 환수함으로써 부족한 재정자금을 조달하는데 주력하였으나 큰 성과는 없었음.
 - 『전국저금일군대회』('90. 7. 28~29)를 개최하고 저축운동 장려를 통해 유휴화폐자금의 최대한 동원을 결의
 - 『전국재정은행일군대회』('90. 9. 13~14)에서는 화폐유통 공고화, 재정통제 강화 등 재정은행기관들의 재정관리사업 개선방향을 제시
- 그러나 계속적인 화폐의 사장현상으로 인해 화폐공급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화폐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 통화관리에 커다란 차질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화폐의 유통속도가 크게 둔화되었으며
 - 특히 재정금융기관의 『원에 의한 통제』기능이 크게 저하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계획 및 집행이 어렵게 되었음.
- 주민들의 누적된 불평·불만 무마용 재정지출확대 정책이 무리하게 추진됨으로써 북한의 재정사정이 한계에 이르게 된 것도 『화폐교환』배경의 하나로 볼 수 있음.
 - '89. 5. 18 제13차 『세계청년학생 축전』을 앞두고 전체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특별상금』(6억 4천만원으로 추정)을 지급
 - '92년 김부자생일행사 및 3.1부터 시행된 임금, 연금, 장학금, 농산

물 수매가의 대폭적인 인상으로 재정지출 급증

- 또한 경제의 부분적 개방과 관련 환차를 이용하여 북한 원화를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합영기업이 늘어나고
 - 재외교민 등 방북자의 증가로 구매력 있는 현금을 많이 소지한 새로운 계층이 발생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증대되고 있음.
- 화폐가치가 암거래 등으로 명목적인 액면가와 크게 괴리됨으로써 화폐유통질서를 교란하는 지하경제부문에서의 인플레이 해소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음.

〈목 적〉

- 첫째, 사장된 화폐를 강제적으로 환수하여 경제건설자금으로 이용하는 등 부족한 재정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 당시 북한은 주민 1인당 화폐교환한도액을 400원으로 설정하고 초과보유화폐에 대해서는 조선중앙은행에 강제입금토록 조치함으로써 재정자금으로의 전용을 시도하였음.
- 둘째, 금융기관의 재정통제(원에 의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등의 탈법적 경제활동을 방지하고 올바른 재정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셋째, 암거래 등 지하경제부문의 시장경제적 요소억제, 계획경제질서 강화 등을 통해 왜곡된 화폐유통질서 정상화하겠다는 것임.
- 넷째, 적정수준의 통화공급량을 유지하여 인플레이 요인을 제거한다는 것임.

〈평 가〉

- 북한의 제 4 차 화폐교환 조치는 단순한 화폐교환이라기 보다는 화

폐개혁의 성격이 농후함.

- 명목상 신권과 구권의 교환비율 1:1이나 일정한도 이상(400원)의 사장통화 환수에 따른 통화공급량의 감소로 단기적으로는 신권의 실질교환가치가 구권보다 높아졌다고 하겠음.
- 그러나 북한의 화폐교환조치는 실시 이후 단기적으로는 재정상태가 다소 호전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으나 실물부문의 구조적인 생산공급부진으로 화폐유통 및 상품거래가 다시 경색됨으로써 침체된 경제를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3. 농림수산부문

가. 농 업

(1) 정책방향

- 북한은 제 3 차 7 개년계획기간('87~'93년)중 공업과 더불어 북한 경제의 양축(2대부문)을 이루는 농업부문의 발전에 정책의 중점을 두어 '93년까지 알곡 1,500만톤(그중 벼 700만톤)생산 등 농업 부문에서 1.4배의 성장목표를 설정하였음.
- 동 계획기간중 북한은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한 농업정책의 기본방향에 따라 농업의 공업화 노력과 함께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하기 위한 물질적·기술적 토대 구축을 도모하였음.
- 특히 농업의 공업화를 위해 농업의 종합적 기계화, 화학화의 완성과 함께 수리화·전기화 성과를 확대·발전시키기로 하였음.
 - 계획기간중 경작지 100정보당 트랙터 10~12대 공급 및 이앙기,

- 수확기, 탈곡기 등 각종 농기계의 대량 공급으로 영농작업의 완전 기계화를 실현하는 동시에
- 정보당 화학비료 시비량을 2.5톤에 이르게 하고, 특히 미량원소비료와 유기질비료의 충분한 공급에 주력하며
 - 살초제를 비롯한 각종 농약 공급량을 결정적으로 증대시킬 것을 계획하였음.
 - 그리고 기존의 관개시설 정비와 기술개조에 박차를 가해 현대적 관개체계를 수립하며 통수능력 제고로 관개용수를 충분히 보장하고
 - 전력의 이용분야를 확대시켜 농촌 전기화의 수준을 높이기로 계획하였음.
- 또한 곡물증산을 위해 간석지 개간, 새땅 찾기운동 전개 등 경작지 확대계획을 제시하였으며, 다수확 품종의 재배 등 육종을 통한 농작물의 수확량 제고에도 깊은 관심을 나타냈음.
- '93년까지 간석지 30만정보 개간, 새땅찾기 20만정보 목표로 설정
- 그밖에 축산업 과수업을 발전시켜 제 3 차 7 개년계획기간 종료년도에 고기생산은 170만톤, 알생산은 70억개, 과일생산은 200만톤 이상의 목표를 제시하였음.

(2) 생산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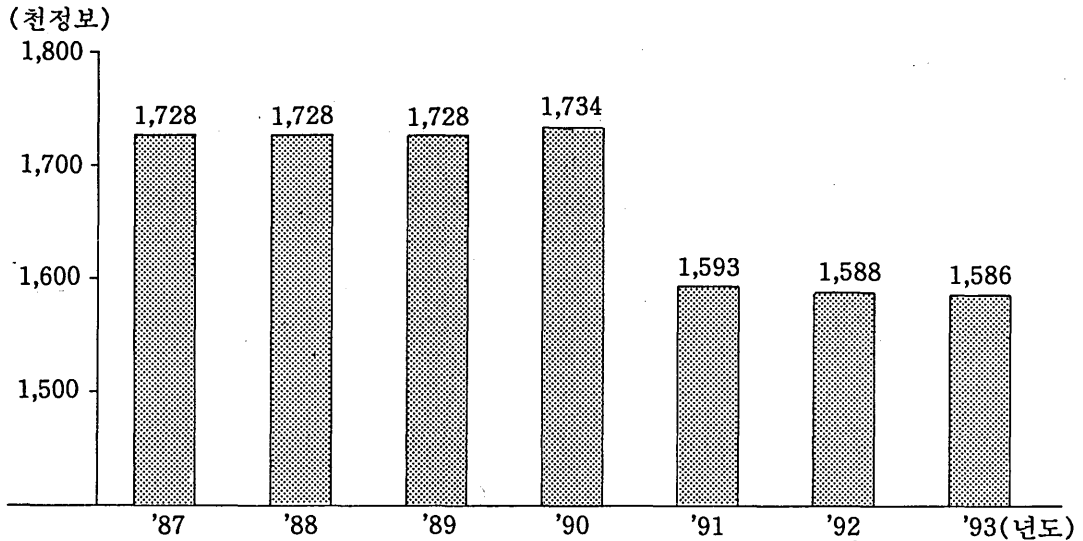
- 북한의 평야지대는 주로 서해안지역의 큰 강들의 하류나 해안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주요 평야지대는 안주평야, 평양평야, 재령평야, 함흥평야, 연백평야 등이 있음.
- 제 3 차 7 개년계획기간중 북한의 절대경지 면적은 '90년까지의

214.1만정보에서 '91년에는 16.7만정보 감소된 197.4만정보로 평가되었으며, 그중 논의 면적은 31.1%인 61.4만정보, 밭은 68.9%인 136만정보임.

- 북한은 식량증산을 목적으로 '81년부터 『30만정보 간석지개간』, 『20만정보 새땅찾기』 등 경지면적확대 사업을 추진하여 왔음.
- 30만정보 간석지 개간사업은 황해남도 8만정보, 평안남북도는 각각 11만정보의 간석지를 개간할 목표를 세웠으나
 - 기간중 개간실적은 은률, 강령, 용매도, 청수도 간석지 등 황해남도지역 16,500정보, 금성, 대계도, 광산간석지 등 평안남북도 지역 15,000정보, 기타 1,300정보 등 모두 32,800정보에 불과하였음.
- 주로 양강도의 개마고원일대 함경남도 북부산간지대를 중심으로 추진하였던 20만정보 새땅찾기사업은 기간중 26,000정보를 개간하여
 - '87~'88년간 양강도에 국영 백암지구농장(10,000정보 규모), 10월15일농장(10,000정보 규모)을 새로 설치하고
 - 함경남도 신흥군에 400정보의 산지를 개간하였음.
- 한편 북한의 식량작물 재배면적은 '90년의 173.4만정보를 고비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바, 이는 간척지의 사후 관리부실, 다락밭의 토사유실 등에 기인한 것임.
- 북한은 계획수행기간중 『사회주의 농촌테제』의 기본 실현과제로 『농촌의 4화』, 즉 농촌의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제시하였는 바
- 『수리화』사업에 최우선적으로 역량을 집중하여 기간중 2,000리 수로를 포함하여 26,000리 수로와 양수장 2,400개, 저수지 190개, 지하수시설 16,000개를 건설하였다고 밝혔음.

〈그림 9〉

식량작물 재배면적



- 그러나 『기계화』, 『전기화』의 실적은 언급하지 않고 단지 『화학화』사업에서 계획기간중 화학비료 공급량이 1.4배로 증가하였다고만 밝혔다.

(3) 생산실적

- 제 3 차 7 개년계획기간의 최종 연도인 '93년의 곡물생산량(388.4만톤)은 지난 '80년(371.3만톤)이래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90년부터 4년연속 감소추세를 보임으로써 북한의 식량난을 더욱 가중시켰음.
- '93년의 곡물생산실적은 목표 1,500만톤(조곡)대비 520만톤(정곡 388.4만톤)의 부진한 실적을 기록함으로써 계획수행률은 34.7%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표 20〉

연도별 곡물생산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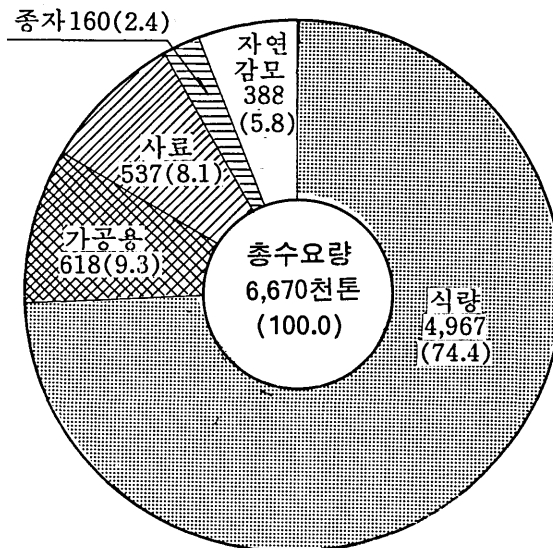
(단위 : 정곡기준 만톤, %)

구 분	총 생산량		벼		옥수수		기 타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87년	495.2	2.6	203.4	1.2	240.9	1.6	50.9	14.4
'88년	521.0	5.2	209.9	3.2	250.3	3.9	60.8	19.4
'89년	548.2	5.2	215.9	2.9	268.1	7.1	64.2	5.6
'90년	481.2	△12.3	193.2	△10.5	238.0	△11.2	50.0	△22.1
'91년	442.7	△ 8.0	164.1	△15.1	212.0	△10.9	66.6	33.2
'92년	426.8	△ 3.6	153.1	△ 6.7	211.2	△ 0.4	62.5	△ 6.2
'93년	388.4	△ 9.0	131.7	△14.0	196.3	△ 7.1	60.4	△ 3.4

○ 북한에서의 주민에 대한 식량공급량은 성인 노동자 기준 1일 700g(절약미 등을 공제한 실제 공급량은 586g)에서 탁아소 어린이기준 1일 300g(실제 공급량 100g)에 이르기까지 직업별, 나이 별로 차등을 두고 있으며, 연간 식량 총소요량은 근 500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그림 10〉

'94년도 곡물수요량



- 따라서 북한의 연간 곡물생산량으로는 가공용, 사료, 종자 및 자연감모분을 제외하더라도 주민들의 식량수요만을 충족시키기에도 모자라는 실정임.
- 북한은 기간중 중국, 태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으로부터 가격이 저렴한 사료용 곡물 등을 수입하여 식량부족분을 일부 충당하는 한편, 주민들에 대한 배급량 감소나 사료용, 가공용 양곡의 절약 또는 비축 양곡의 방출 등을 통해 식량위기를 근근히 버텨나온 것으로 판단됨.

〈표 21〉 최근 북한의 식량수급 실태 추이 (단위 : 만톤, 정곡기준)

구 분	총 수 요	전 년 도 생 산 량	부 족 량	부족량	
				수 입 량	절대부족량
'91년	647	481.2	165.8	129	36.8
'92년	650	442.7	207.3	83	124.3
'93년	658	426.8	231.2	109	122.2
'94년	667	388.4	278.6	·	·

나. 임 업

(1) 정책방향

- 북한은 계획기간('87~'93년)중 새로운 산림개발, 임산작업의 기계화 실현 및 임산화학공업을 발전시키기로 하고 속성수·경제림을 집중적으로 조성하여 산림자원을 확대키로 하였음
 - 통나무 생산, 목삭판, 목섬유판생산 확대
 - 목재의 종합적·효과적 이용

- 이깔나무 등 경제림 150만정보 조성
- '92. 8월 임업 노동자절 30주년을 기해 발표된 김정일 서한 『임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에서는 산림자원의 적극 탐사, 산림조성, 임업과학의 연구사업 강화, 동계 통나무생산 강화 및 수로를 통한 목재운송, 목재의 종합적 이용방안 개발, 목재처리를 위한 화학공업기지 조성 등을 당면 과업으로 제시하였음.
- '93. 10월 산림조성·보호 및 이용 등 임업발전에 관한 정무원 결정 채택
- '93. 12월 산림법 채택 등 후속조치

(2) 생산여건

- 북한의 산림면적은 940만정보로서 북한 면적의 근 80%에 달하고 있음.
- 북한의 산림분포는 침엽수대인 한대림과 활엽수대인 온대림으로 형성되며 자강도 북부지역인 압록강, 두만강 상류지대의 한대림을 제외하면 대부분 온대림에 속함.
- 침엽수는 전체 산림면적의 54%, 활엽수는 46%를 점유하고 있으며 침엽수의 주요 서식지는 량강도 삼지연군, 백암군, 보천군, 운흥군 등임.

(3) 실 적

<조림사업>

- 북한은 연 2회(춘계 3~4월, 추계 9~10월) 정기적인 식수조림 기간을 설정하고 기업소, 기관, 협동농장 등 각급 경제단위와 사

로청조직·학교단위별로 조림구역을 할당, 조림사업에 주력하는 한편

— 각 협동농장별로 농장림 100정보 조성, 영농자재 및 땔감나무 등 자체 해결

○ 계획기간중 대표적 속성수종인 포플러나무를 남포 등지에 집중적으로 조림하는 한편 오동나무·조피나무 등의 조림면적을 확장하였음.

* '93년 기준 산림면적은 980만정보로 추정

<임산물생산>

○ 북한은 기간중 목재생산 증대를 위해 60여개에 달하는 임산사업소, 갭목생산사업소를 중심으로 기계톱, 유압식 상차기, 집재기, 권양기, 삭도 등을 활용하는 임산작업의 기계화를 추진하였으며, 연간 목재생산량은 약 300만㎥인 것으로 평가됨.

○ 한편 통나무 생산 및 그 가공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 잡목 등을 활용하여 목재가구를 비롯하여 각종 생필품과 악기, 화학제품의 생산 등 목재 부산물 활용도를 제고키 위해 노력하였으나, 갭목, 침목 등의 생산은 부진하였음.

<러시아 벌목>

○ 북한은 구소련과의 『조·소 목재벌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시베리아 벌목사업에 많은 노동력(약 2만명 내외)을 투입하여 채벌 벌목을 분배받고 있음.

— 북한은 러시아 시베리아지역 하바로브스크 일대에 15개 내외의 작업소를 설치 운영

- 이들 작업소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연간 벌목하는 총량의 약 30~40%에 해당하는 연간 90만m³내외의 목재, 목편 등을 반입
- * '93년말 현재 북한노동자들의 감소(1만명정도)로 연간 목재 반입량은 약 16만m³로 감소

다. 수 산 업

(1) 정책방향

- 계획기간중 수산부문을 현대화·과학화하고 수산자원을 적극 개발함으로써 '93년까지 수산물 생산목표를 1,100만톤(그중 어류 300만톤)으로 설정하였음.
- 기간중 14,000톤급 대형가공모선, 3,750톤급 선미트롤선, 1,000톤 및 480톤급 어선 등을 대량 생산
- 각종 어선에 현대적 어구 장치
- 과학적 어로체계 수립
- 양식면적은 기간중 10만정보로 증대시키고 천해양식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다시마, 미역, 김 등 해조류 및 각종 조개류 생산목표를 800만톤으로 세웠음.
- 그밖에 어류·해조류의 가공처리를 위한 냉동시설을 비롯한 현대적 수산물 가공기지과 저장시설계획도 밝힌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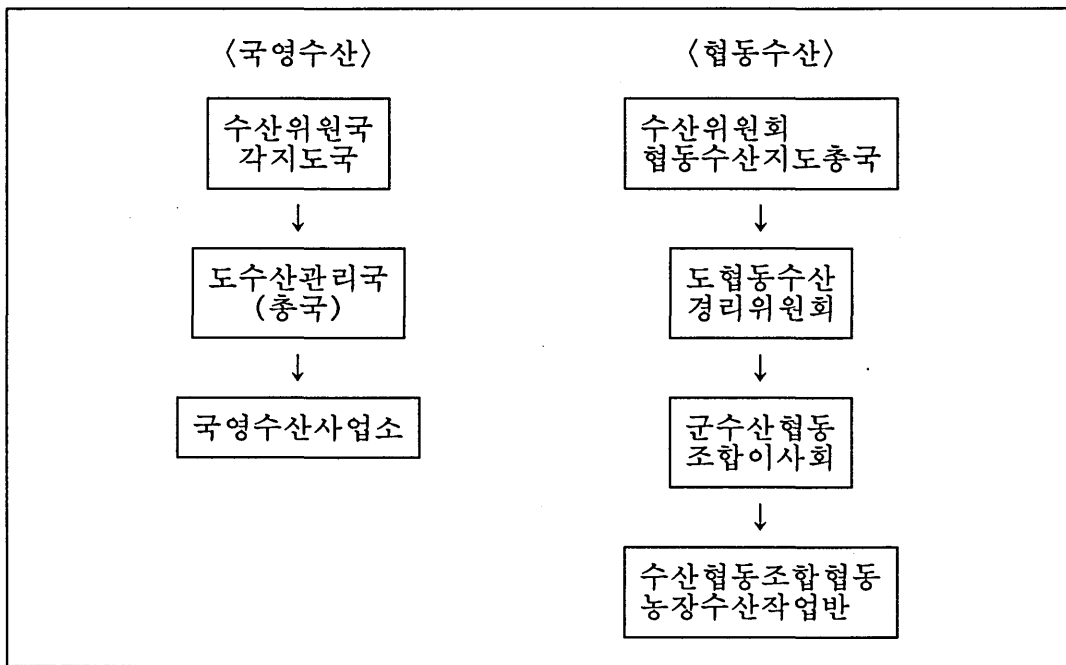
(2) 생산여건

- 북한의 해역은 동해와 서해로 양분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바, 동해는 난류인 동한해류와 한류인 연해주해류가 교차함으로써 어족 서식에 유리한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어 600여종에 달하는 각종

어족이 서식하고 있음.

- 서해는 전반적으로 얕은 대륙붕 구역에 속하는 바다로서 부유생물이 풍부하여 각종 어족들의 산란장소로 적합함.
- 한편 북한의 수산업은 국영수산사업소와 수산협동조합을 기본생산단위로 하고 있으며, 이들은 각각 상이한 지도체계에 따라 활동하고 있음.

〈그림 11〉 수산부문 지도체계도



- 북한은 원양어업을 위한 3,750톤급 선미트롤선과 연근해 어업을 위한 450톤급 어선을 비롯하여 총 4만여척에 달하는 크고 작은 어선(무동력선 포함)을 보유하고 있음.
- 동력선은 15~20마력급 소형 어선이 대부분이며, 가공모선은 8척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동해어장에는 계절에 따라 일시 다획성 어족이 많아 트롤, 저인망 위주의 어업을 하고 있으나, 서해어장은 수심이 얇고 간만의 차가 심하여 소규모 안강망 어업이 주축이 되고 있음.
- 북한의 어로사업은 여름철 물고기잡이(3월~9월)와 겨울철 물고기잡이(11월~2월)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으며 주 어로작업은 명태의 회유기인 겨울철에 실시되고 있음.
- 그러나 북한은 어로장비의 노후, 어로기술 낙후, 산란기에 있는 어류 및 치어 등의 무분별한 남획으로 연근해 정착성 어자원이 감소되고 있는데다가 극심한 유류난에 기인하여 어선의 출어일수가 줄어들어 등 조업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임.
 - 이러한 조업여건 악화에 따라 북한의 수산위원회, 먼바다어업총국 등은 일본으로부터 어선과 유류를 대여받아 조업한 후 임대료를 현물(수산물)로 지급하기도 함.
- 더욱이 북한 최대의 원양어장인 쿠릴열도, 캄차카반도 일대에서의 어획쿼터량이 '91.2월이후 러시아로부터 무상 3만톤, 유상 3만톤으로 제한되었으며 '93.2월부터는 실적부진으로 쿼터량이 4만톤으로 감소되었음.
 - 향후 러시아측의 200해리 내 외국어선 조업규제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서의 북한의 어로활동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됨.

(3) 생산실적

- 연근해 어족자원의 고갈 및 선박용 디젤유의 공급부족 등 조업여건의 악화로 어선의 출어율이 30% 미만에 그침으로써 기간중 어획고는 '90년대 들어 매년 감소추세를 보였음.

- 생산 어획량중 명태 어획량이 70%내외, 정어리가 20%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어, 멸치 등의 어종이 나머지를 구성하고 있음.
- 그러나 북한은 대일 수출전략 상품인 김, 다시마, 대합, 모시조개 이외에 게, 굴뱅이 등 정착성 어패류의 양식에 주력하여 기간중 양식생산고가 다소 증가추세를 보였음.
- 북한의 전체 수산물 생산실적을 보면, 북한은 '93년말까지 수산물 생산목표를 1,100만톤으로 제시한데 비해 109만톤을 생산하는데 그쳐 9.9%의 극히 저조한 계획수행률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되었음.

〈표 22〉 연도별 수산물 생산량 (단위 : 만톤)

연 도	총생산량	증 감 률		천해양식 기 타
		해면어업		
'87년	156	△11.0	111	45
'88년	157	0.6	110	47
'89년	161	2.5	106	55
'90년	145	△ 9.9	93	52
'91년	120	△17.2	68	52
'92년	114	△ 5.0	61	53
'93년	109	△ 4.4	50	59

4. 광업부문

가. 석탄생산

(1) 정책방향

- 북한은 기간중 연료, 원료, 동력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인민경제

의 주체화를 다그치기 위하여』석탄생산 증대에 주력하기로 하고

- 이를 위해 매장량이 풍부한 안주지구탄광들을 집중적으로 개선·확장하며, 순천·덕천·북창·강동·북부지구를 비롯한 여러지구의 대규모 탄광들을 확장기로 하는 한편
- 발전전망이 큰 지대들에 새로운 탄광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며 저열탄·초무연탄 산지들을 적극 개발기로 하였음.
- 또한 북한 탄광에 적합한 각종 굴진, 채탄·운반설비들을 갖추고 채취설비를 대형화, 현대화, 고속도화 하여 탄광들의 기술장비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일 것을 제시하였으며
- '93년까지 1억 2,000만톤의 석탄생산 목표를 수립하였음.

(2) 생산여건

- 북한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석탄자원의 종류는 무연탄, 갈탄, 니탄 등이 있으나 고열탄인 역청탄(탄소함량 75~85%)은 발견되지 않고 있음.
- 유연탄은 함경북도 아오지를 중심으로 하는 북부탄전지대와 평안남도 안주를 중심으로 하는 서부탄전지대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으며, 무연탄은 평남 신창과 함남 고원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왔음.
- 최근 북한은 석탄생산 증대를 위해 안주, 덕천, 개천지구를 중점 개발하는 한편 새로운 탄맥을 찾기 위한 지질탐사 작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나, 채굴장비가 노후화되고 갱도가 깊어져 채굴여건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음.
- 또한 석탄생산의 최하부 단위인 탄광은 중소탄광을 포함하여 200여개가 북한 전역에 걸쳐 산재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이중 규모가 크고 채탄여건이 비교적 좋은 탄광은 100여개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3) 실 적

- 기간중 북한은 1억 2,000만톤의 석탄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장량이 풍부하고 채굴조건이 좋은 안주지구탄전, 순천지구탄전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기존 탄광의 개선·확장공사를 추진하는 한편, 새 탄광의 개발과 함께 벨트컨베이어 수송능력 향상에도 주력 하였음.
- 그러나 제 3 차 7 개년계획기간('87-'93)중의 석탄증산 및 석탄수송능력 향상 노력에도 불구하고 갱도의 심부화, 에너지부족 등 채탄조건 악화, 탄광개발 투자비의 부족으로 석탄생산 실적이 부진하였음.
 - '93년도 생산목표 1억 2,000만톤의 23%에도 미달하는 2,710만톤을 생산하였던 것으로 평가됨.
- 이와 같이 석탄생산이 부진함에 따라 화력발전소 등 전반적인 생산시설에 대한 석탄공급이 차질을 빚게 되어 유류난과 더불어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나. 광물생산

(1) 정책방향

- 기간중 북한은 철광석 생산부문에서 무산광산을 대대적으로 개선·확장하고 서부지구 철광산들의 생산능력을 제고시키며 새 철광석 후보기지 개발을 적극 추진키로 하였음.
- 비철금속 광물생산에서는 검덕, 단천, 양강도 지구를 중심으로 대

규모 유색금속 광산들을 개선·확장하는 한편 새로운 유색금속 광산들을 개발하여 유색금속 170만톤의 생산목표를 달성할 계획을 세웠음.

- 또한 마그네사이트 광석과 마그네샤 크링카 생산을 증대하고 현대적 내화물 생산기지를 새로 건설하여 새로운 품종의 양질의 내화물을 생산할 계획을 밝혔음.

(2) 생산여건

- 북한의 철광석 생산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무산광산을 비롯해서 은률, 재령, 신원, 용원, 덕현광산 등 20여개의 광산이 북한 전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철광석 광산들은 전반적으로 철광석 매장상태가 점차 심부화 하여 종래의 노천채굴 방식에서 지하채굴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음.
- 한편 외화획득의 주요 원천이 되고 있는 연·아연 등은 북한 전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광물인 바, 자강도, 평안남도, 황해남도지역에서 주로 산출되고 있으며 약 30여개의 광산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동은 약 10개 내외의 광산이 산재해 있음. 금·은은 동일광석으로 되어 있는데 광산이 북한 전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금·은의 생산실적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고 있음.

(3) 실적

- 기간중 북한은 강철생산 1,000만톤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북한 최대의 철광석 생산기지인 무산광산을 비롯해서 장림, 8월 10일 광산 등의 생산능력 확장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홍산, 인곡,

삼수광산 등을 새로 개발하였음.

- 특히 무산광산은 『가까운 몇해안에』 1,100만톤의 정광생산능력을 갖춘다는 목표하에 2단계 확장공사(1단계 확장공사는 '70년대 초에 완료)를 추진하여 왔음.
 - 그러나 계획기간중 무산광산은 4·5호 박토운반용 컨베이어 설치, 침전지 건설, 1·2·3호 낙광정·파쇄장 완공 등 부분적인 건설실적을 거두었으나 전반적으로 시설보완이 주축을 이룸으로써 생산능력은 큰 향상을 보이지 못하였음.
- 이상과 같이 북한 철광석 생산량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무산광산의 확장공사가 부진하였을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철광산들의 철광석 매장상태가 점차 심부화 하여 채광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광산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대체장비의 공급부진 등으로 '93년 북한의 철광석 생산량은 476.3만톤에 그친 것으로 추정됨.
- 한편 북한은 주요한 외화획득원이 되고 있는 비철금속 및 광물생산을 확대하기 위하여 유색금속광물의 최대 생산기지인 검덕광산을 비롯해서 주요 광산들의 연·아연, 동, 금 및 마그네사이트 광석 생산능력확대에 주력하였으며 광범위한 지역에서 새로운 광산들을 개발하였음.
- 이에 따라 북한은 유색금속 부문에서 연간 선광능력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되나, 채광 및 운반능력 확장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어 확장효과를 상쇄한 것으로 보이며 '93년도 유색금속 생산량은 16.4만톤이었던 것으로 추정됨.

5. 에너지부문

가. 전 력

(1) 정책방향

- 제 3 차 7 개년계획기간중 북한의 발전소 건설은 기본적으로 수력 발전소와 화력발전소, 대규모 발전소와 중소규모 발전소의 건설을 배합하여 추진한다는 방침하에 전개되었음.
- 또한 전력생산설비를 보강·확장하여 '93년에는 1,000억kwh(발전 시설용량 1,700만kw 추정)를 생산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음.
- 수력발전부문에서는 태천발전소, 금강산발전소, 희천발전소, 남강 발전소, 금야강발전소, 어랑천발전소 등 신규 대규모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한편
 - 발전소 건설이 유리한 강하천에 다목적 갑문발전소와 함께 북한 전역에 걸쳐 중소규모의 수력발전소를 대대적으로 건설함으로써
 - 기간중 총 400만kw이상의 발전능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음.
- 화력발전부문에서는 안주화력, 사리원화력, 해주화력, 동평양화력, 12월화력, 김책화력 등 신규 대규모 화력발전소들을 건설하여 화력발전소의 비중을 높이는 동시에
 - 여열과 폐열을 이용한 공장 화력발전소의 건설도 계속 추진하기로 하였음.
- 또한 자체 부존자원에 기초하여 동력공업을 발전시킨다는 방침하에 그동안 건설이 추진되지 않았던 원자력발전소도 대규모적으로 건설한다는 계획을 내세워 수·화력발전소 중심의 전력공업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하였음.

(2) 생산여건

- 북한은 수자원이 풍부한데다가 지형상 산악지대가 많아 수력발전
에 매우 유리한 자연적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음.
 - 댐건설에 적합한 장소는 200개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 발전가능한 포장수력은 '57년 500만kw, '63년에는 886만kw, 최
근에는 1,000만kw 정도로 알려지고 있음.
- 또한 북한의 서해안지역은 조석간만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조력
발전가능 지점이 11개소나 되며 총발전 가능량은 464만kw가 되
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북한은 '60년대까지는 거의 수력의존적이었으나 계절변화에 따른
강수량의 심한 차이로 발전량의 기복현상과 송배전상의 문제가 심
각하게 됨에 따라 '70년대부터 화력발전소 건설에도 주력하였음.
- 아울러 지방의 소규모 공장과 가정용 전력수용을 충족하기 위해
건설비용이 적게 들고 건설기간도 짧은 100~1,000kw 규모의 중
소형발전소 건설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
- '86년말 현재 북한의 총발전시설용량은 610.7만kw이며 그중 수력
은 349.7만kw, 화력은 261만kw로 수·화력발전시설의 비중이 57.
3 : 42.7로 추정되었음.
- 계획종료년도인 '93년의 총발전시설용량은 714.2만kw로 계획초기
에 비해 16.9% 증가하였으며 북한의 지속적인 수력발전소 증설
노력에 힘입어 수·화력의 비중은 60.1 : 39.9로 수력시설의 비중이
더욱 높아졌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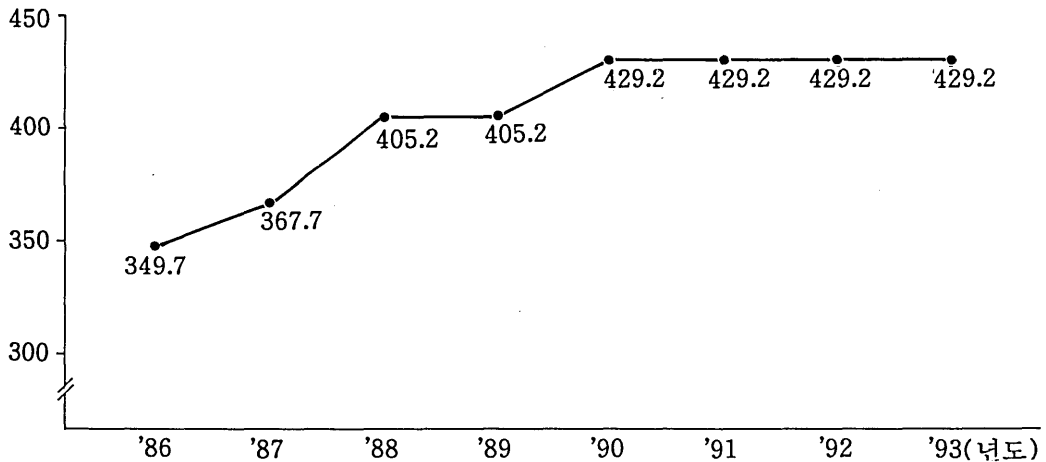
(3) 생산 및 건설실적

- 북한의 전력생산량은 제 3 차 7 개년계획 전반기에는 수·화력발전소의 증설에 힘입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후반기부터는 석탄 생산 감소, 유류공급부족, 발전시설 노후화 등으로 가동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발전량이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음.
- 설비별 전력생산을 보면 '86년에는 수력 130억kwh, 화력 123억kwh를 생산함으로써 수력 대 화력의 구성이 51.4 : 48.6으로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었으나
 - '93년에는 수력 133억kwh, 화력 88억kwh를 생산, 수력 대 화력의 구성이 60.2 : 39.8로 수력발전소의 생산비중이 크게 높아지는 변화를 보였음.
- 북한의 주요 발전소 건설은 계획초반까지는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나 '90년대들어 북한경제가 투자재원 조달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건설추진이 급속도로 둔화되었음.
- 계획기간중 북한이 수력부문의 전원개발사업중 가장 역점을 두었던 사업은 『4대자연개조사업』('81. 10 당중앙위 제 6 기 4 차전원회의 결정)의 일환으로 '82년이래 추진하여 왔던 태천발전소 건설사업임.
 - 이에 따라 '88. 8. 30 태천1호발전소(규모 미상) 및 2호발전소(15만kw 추정)가 조업하였으며 5호발전소(30만kw 추정)는 발전기 조립 등 마무리 단계에서 완공을 보지 못하였음.
- 또한 위원발전소('90. 11. 15), 레성강 5호발전소('90. 12. 22), 기본수원 확보를 위한 3월 17일발전소 3단계공사 등의 완공으로 발전시설능력이 다소 제고되었으나

- 남강, 녕원, 의진, 금야강, 어랑천, 홍주발전소 등 다른 중점건설 사업의 추진성과는 투자재원 조다르이 한계로 인해 전반적으로 부진하였음.
- 이에 따라 수력발전시설용량은 '86년의 349.7만kw에서 '90년에 429.2만kw로 79.5만kw가 늘어났으나 이후부터는 발전소 건설실적이 부진, 시설능력을 확대시키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그림 12〉
(만Kw)

수력발전시설용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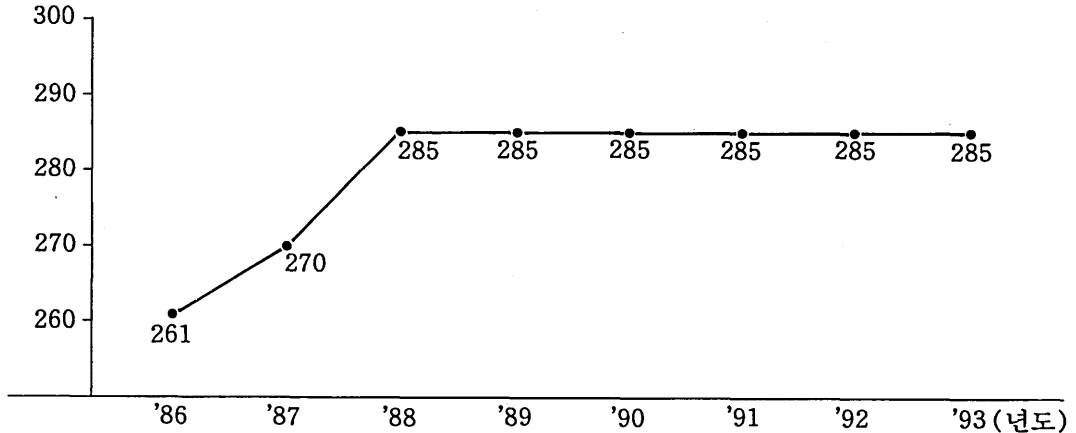


- 한편, 계획기간중 화력부문에서는
 - 순천화력, 함흥화력 등 '80년대 초반부터 추진해 왔던 화력발전소건설의 계속적 추진과 함께
 - 동평양, 12월, 해주, 사리원 등의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이 주력사업으로 적극 추진되었으며
 - 기간산업시설의 안정적인 전력공급 확보책의 일환으로 주요공장, 기업소에 자체 화력발전소의 건설도 추진되었음.
- 그러나 화력발전시설용량은 '86년 261만kw에서 '88년까지는 285만kw로 24만kw 증대되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화력발전소의 신설

또는 확장실적이 전무하여 화력발전시설능력에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림 13〉
(만Kw)

화력발전시설용량 추이



- 이 밖에도 북한은 기간중 운봉, 광천 등 북한 전역에 걸쳐 680여개의 중소형 발전소를 완공하는 한편,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도 큰 관심을 보였음.
- '85년 구소련과 “경제 및 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을 통해 44만 kw급 4기(176만kw)의 원전 건설에 대한 구소련의 지원을 합의하여 '90년초 착공에 들어 갔으나
- 구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경제 및 기술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사실상 원전건설 추진은 중단상태에 놓여 있으며
- 다만 '86년초 5천kw급 시험용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한 경험에 기초하여 5만kw급 1기 및 20만kw급 1기 원자로의 건설이 추진되었음.
- 전반적으로 볼 때 북한의 총발전시설용량은 '86년의 610.7만kw에서 '93년에는 103.5만kw(수력 79.5만kw, 화력 24만kw)가 들어

714.2만kw로 되었으며

- 이에 따라 계획기간 총발전능력 조성목표를 1,700만kw(전력생산목표의거 역산출)에 대한 계획수행률은 4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23〉 수·화력발전시설의 구성 추이

구 분	'86	'87	'88	'89	'90	'91	'92	'93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력	57.3	57.6	58.7	58.7	60.1	60.1	60.1	60.1
화 력	42.7	42.4	41.3	41.3	39.9	39.9	39.9	39.9

나. 석탄생산

- 북한은 제 3 차 7 개년계획 석탄생산목표를 1억 2,000만톤으로 설정하고 기존의 대규모 탄광을 개건 확장하는 한편 생산정상화를 통해 탄광당, 갱당 생산량을 높이는데 주력하였음.
- 북한은 『제 3 차 7 개년계획 수행정형에 대한 당중앙위 전원회의 보도』('93. 12. 9)를 통해 '93년의 석탄생산이 '86년보다 1.4배(연평균 4.9%) 늘어났다고 밝힌 바 있으며 '86~'89년 기간중에는 연간생산 실적을 절대규모 또는 지수의 형태로 발표하였음.
- 이와 같이 북한이 간헐적이거나 석탄생산실적을 발표한 것을 토대로 연도별 석탄생산량과 계획수행률을 평가하면 〈표 24〉와 같음.
- 이와 같이 북한발표에 의거할 경우 북한 석탄생산의 계획수행률은 89.3% 이상의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표 24〉

북한발표 석탄생산실적 추이

(단위 : 만톤, %)

구분	'86	'87	'88	'89	'90	'91	'92	'93	평균
목 표	-	8,155	8,693	9,267	9,879	10,530	11,226	12,000	9,964
실 적	7,650	7,800	9,532	8,500	(9,002)	(9,533)	(10,096)	10,710	9,310
수행률	-	95.6	109.7	91.7	91.1	90.5	89.9	89.3	93.4

주 : 목표치는 '87~'93년의 연평균 증가율 적용 산출

()내 수치는 '90~'93년의 연평균 증가율에 의거 산출

- 제 3 차 7 개년계획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석탄생산실적이 계획에 비해 저조한 추세가 두드러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 이는 '90년대들어 재정사정 악화로 신규 탄광의 건설·확장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장비노후화, 채굴의 심부화 등 열악한 채탄 환경하에서 노력동원을 통한 증산운동에 의존한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겠음.
- 또한 북한은 석탄생산실적을 7,800만톤 이상으로 발표하고 있으나 북한의 석탄매장량, 탄광의 시설능력 등을 종합 감안하여 실제 생산량을 추정하면 연산 3,500만톤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특히 '89년이후부터 채탄실적이 계속 부진하여 결과적으로 계획기간 중 북한의 석탄생산은 '86년 3,750만톤에서 '93년 2,710만톤으로 27.7%나 감소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이와 같이 실제 생산량으로 평가한 북한의 계획수행률을 살펴보면 계획종료년도인 '93년도의 석탄생산실적이 목표대비 22.6%에 불과하며 따라서 연평균 계획수행률은 34.9%에 머무른 것으로 평가되었음.

〈표 25〉 북한의 연도별 실질 석탄생산실적 및 계획수행률 평가

(단위 : 만톤, %)

구 분	'87	'88	'89	'90	'91	'92	'93	평균
목 표	8,155	8,693	9,267	9,879	10,530	11,226	12,000	9,964
실 적	3,900	4,070	4,330	3,315	3,110	2,920	2,710	3,479
수행률	47.8	46.8	46.7	33.6	29.5	26.0	22.6	34.9

주 : 실적은 정부평가치임.

다. 석유산업

(1) 석유탐사개발

- 북한의 유전개발 추진상황은 북한당국이 극비로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이용가능성이 많아 정확한 실상 파악에는 한계가 있음.
- 그러나 지금까지의 각종 경로를 통한 정보를 종합해 볼 경우 북한의 유전개발에 대한 집념은 매우 강한 것으로 판단됨.
 - 최근 서해의 남포 및 동해의 대륙붕에서 유전개발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북한의 유전탐사개발 동향〉

- '57년 함경북도 아오지지역(현 은덕군 학송)에서 구소련과 루마니아의 기술 및 장비지원아래 지질조사 및 시굴탐사 실시
- '76년 해저유전채굴방법 연구를 위해 구소련의 카스피해대륙붕 유전에 북한의 전문기술단 파견 연수
- '77년 일본과 Jack-up식 석유굴삭기 도입 교섭

- '86. 1월 구소련과 『조·소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에 관한 조약』 체결하고 대륙붕 자원 공동개발 추진
- '88년 이란 Leeward사와 호주의 Meridian사가 서해 남포 앞바다 탐사
 - 일부 시추공에서 경제성이 없는 유정 발견

- 최근에는 프랑스의 TOTAL, 호주의 BHP 등 석유메이저와 함께 스웨덴의 Taurus, 캐나다의 Cantek 등 서방의 소규모 유전개발전문회사 내지 용역회사들이 북한 유전개발에 직·간접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그러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만한 석유탐사실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정치적 위험, 경제성 문제 등으로 서방기업이 본격적인 유전개발 진출에는 많은 장애가 남아 있는 것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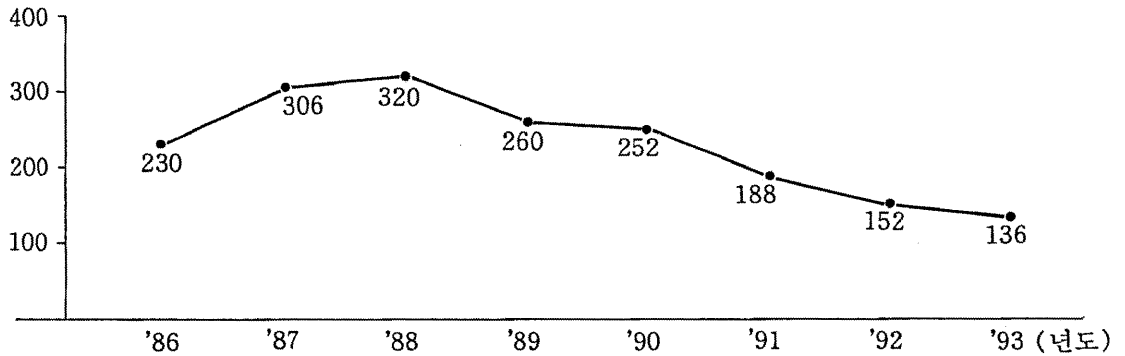
(2) 원유도입

- 북한의 연간 정유능력은 승리화학공장 200만톤, 봉화화학공장 150만톤으로 총 350만톤이나 원유도입량은 정제능력에 비해 크게 미달하고 있어 공장가동률은 매우 낮은 실정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차 7개년계획기간중 원유도입량은 특히 구소련이 해체된 '90년대이후 부터는 계속 감속추세를 나타냈음.
 - '86년 230만톤에서 '90년까지는 증가세를 타나냈으나 이후부터 격감하여 '93년에는 기준년도보다 40.9% 줄어든 136만톤을 기록하였음.

<그림 14>

원유도입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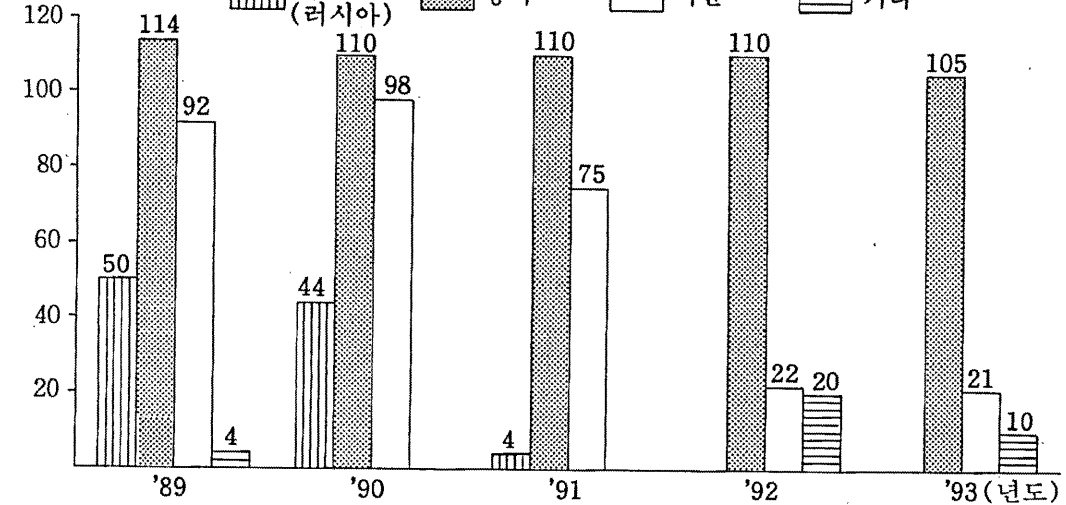
(만톤)



<그림 15>

국가별 원유도입량

(만톤)



○ 계획기간중 북한의 원유도입선에 있어서 주목되는 것은

- 중국은 110만톤 수준을 계속 유지, 북한의 최대 원유도입 대상국이 되고 있는데 비해
- 구소련(러시아)으로부터의 도입량은 구소련의 체제붕괴이후 격감하였으며 특히 '92~'93년에는 도입실적이 거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임.

- 또한 이란과는 '80년대 중반이후 이란-이라크전을 계기로 긴밀한 정치경제적 관계에 의해 일시적으로 원유도입량이 증가하였으나 종전후부터는 다시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임.
- 특히 '90년대초 러시아와의 교역방식이 『우호가격의 구상무역』형태으로부터 『시장가격의 경화결제』방식으로 전환되자 대러시아 원유도입은 북한측의 경화결제능력 부족으로 거의 중단된 것으로 보임.

라. 에너지 공급의 총량적 평가

- 제3차 7개년계획기간중 북한의 1차에너지공급총량은 '86년의 2,492.2만 TOE에서 '93년에 1,879.5만TOE로 7년동안에 약 24.6%가 줄어든 것으로 평가되었음.
- 그 추이를 보면 '89년의 2,874.2만TOE를 정점으로 계획초반에는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이후부터는 석탄생산 감소, 원유도입 부진 등으로 급격한 감소세를 기록하였음.
- 또한 북한의 에너지공급구조는
 - 석탄생산 부진에 따라 석탄류의 공급 구성비가 '86년의 71.8%에서 '93년 68.8%로 다소 감소하였으며
 - 석유류 역시 러시아로부터의 원유도입이 거의 중단됨으로써 '86년의 8.2%에서 '93년 6.4%로 감소한데 반해
 - 자연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 수력의 비중은 '86년의 13.0%에서 '93년 17.7%로 대폭 높아지는 변화를 보였음.
- 이와 같은 1차 에너지공급 총량의 감소추세는 계획초기 공급량 소비수요에 크게 미달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계획기간중 북한의 에너지난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뿐만 아니라 경화부족, 국제적 신용실추 등으로 에너지의 대부분(90% 이상)을 석탄, 수력 등 대내생산부문에 불가피하게 의존하고 있는 바,
- 이러한 현상은 북한의 에너지 자립도가 높은 것이라기 보다는 『자력갱생』의 한계를 나타낸 것이라고 하겠음.

6. 금속·기계공업부문

가. 금속공업

(1) 정책방향

- 북한이 제시한 기본적인 금속공업 시책방향은 자체의 원료·연료에 의존하여 금속공업을 주체화·현대화해 나간다는 것임.
- 제 3차 7개년계획기간중 북한은 금속공업부문의 발전이 『인민경제의 기술개조와 함께 사회주의 물질기술적 토대 강화』의 기본열쇠라는 인식하에 금속공업부문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선행부문』의 하나로 설정하였음.
- 특히 철강공업부문에서는 선철의 생산보다 강철과 압연강재의 생산능력을 제고시킴으로써 낙후된 기존의 철강생산구조를 개선시키고자 하였음.
 - 계획기간중 북한은 강철생산을 자체 수요충족의 원칙하에 김책제철 등 기존의 제철·제강소들을 개건·확장하여 '93년까지 연간 1,000만톤의 강철생산목표 달성을 계획하였으며
 - 압연강재생산은 냉간압연의 비중을 높이는 가운데 각 경제부문에 절실히 요구되는 형강, 후판 등의 생산을 늘이는 동시에 불

수강관, 규소강관, 고압관, 아연도금판, 석도금판, 크롬도금판 등 특수합금강의 생산을 늘리기로 하였음.

- 비철금속공업부문에서는 계획기말 유색금속 생산목표를 연간 170만톤 이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검덕·단천지구, 양강도지구의 주요 광산들을 대대적으로 확장하기로 하였음.
- 특히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현대적인 대규모 경금속 생산기지를 건설하여 알루미늄과 그 합금의 생산량을 40만톤에 이르도록 하였음.
- 이 밖에 북한 자체의 자연부원을 적극 개발하여 이용하기 위해 티탄과 마그네슘 생산기지도 새로 확보하는데 주력하기로 하였음.

(2) 생산여건

- 북한은 그동안 중국과 구소련의 지원에 힘입어 금속공업부문의 보강, 확장에 주력해 왔으나 자본 및 기술부족으로 생산시설 자체의 전반적인 근대화는 거의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대부분의 생산시스템도 종합화, 기계화, 자동화되지 못하고 전근대적인 계열화, 분업화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생산효율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됨.
- 더우기 북한의 금속공업은 선형산업인 광업부문의 생산부진, 코크스, 역청탄의 수입 감소, 전기분해에 필요한 전력부족 등으로 제철 및 제련시설의 가동률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음.
- 철강·금속산업시설의 분포에 있어서는 북한의 산업입지 측면에서 볼 때 동서부지역이 비교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하겠음.
 - 동부지역에는 『김책제철소』를 비롯하여 『청진제강』, 『성진제강』, 『부령야금공장』과 『홍남제련소』, 『문평제련소』 등이 입지하고

있고

- 서부지역에는 『황해제철소』, 『4.13제철소』, 『천리마제강소』, 『남포제련소』, 『해주제련소』, 『북창알루미늄공장』 등이 위치하고 있음.

○ '86년말 현재 북한의 금속제품생산 시설능력은

- 철강부문에서는 선철 512만톤, 강철 430만톤, 압연강재 339만톤으로 생산시설의 구성이 선철등 저부가가치생산물 중심의 생산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 비철금속부문의 생산능력은 연 4.8만톤, 아연 27.5만톤, 동 9.7만톤, 알루미늄 2만톤 등으로 추정되고 있음.

○ 계획종료년도인 '93년의 금속공업 시설능력은

- 철강부문에서는 북한이 선철보다는 강철 및 압연강재 시설의 보강 및 확장에 주력함으로써 선철 537만톤, 강철 598만톤, 압연강재 404만톤으로 강철생산능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 비철금속부문에서는 연 8.7만톤, 아연 29.5만톤, 동 9만톤, 알루미늄 2만톤 등으로 연, 아연의 생산시설이 비교적 크게 확장되는 변화를 보였음.

○ 이에 따라 철강부문은 계획기간중 제선능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대신 제강능력의 구성비가 증가함으로써 선철생산을 위주로 한 철강산업시설구조가 상당한 정도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압연강재의 생산능력을 100으로 하였을 때 '86년의 경우 제선, 제강능력은 각각 151.0, 126.8이었으나 '93년에 들어와서는 132.9, 148.0으로 변화되었음.

○ 이는 북한이 종래와 같은 1차 철강 원료·제품 중심의 철강산업육

정책에서 탈피하여 중간재인 강철생산을 보강하는 동시에 투자재원 및 기술이 허락하는 범위안에서 압연강재의 시설능력 확장에 주력한 결과로 분석됨.

- 그러나 압연강재의 경우 기술집약도가 낮은 일부의 조강류 및 판재류는 생산·공급하고 있으나 이는 기간산업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대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수준으로서 전반적인 생산시설능력은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3) 생산 및 건설실적

- 제 3 차 7 개년계획기간중 북한의 강철생산능력은 김책제철, 황해제철, 천리마제강 등 주요 제철·제강소의 확장에 힘입어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하였음.
 - 그러나 에너지 및 원자재의 절대부족으로 가동률이 저하됨으로써 실제 생산량은 기본적인 시설능력을 크게 하회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 북한이 간헐적으로 밝히고 있는 철강생산량과 비교하여 보면 대체로 발표치가 추정치보다 2.1배~4.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북한발표치에 의할 경우
 - 전반적으로 연간 생산량이 실제 생산능력을 크게 초과하고 있어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는데다가
 - 강철의 생산활동이 비교적 활발했던 '88년과 '89년에 강철 생산량이 전년보다 오히려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북한 발표치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표 26〉

북한발표 강철생산량과 실제 생산능력

(단위 : 만톤)

구 분	'87	'88	'89	'90	'91	'92	'93
생 산 량	683	(636)	593	700	(754)	(812)	875
생산능력	481	504	594	594	598	598	598

주 : ()내 수치는 '87~'89년과 '90~'93년 기간중의 연평균 증가율을 각각 적용·산출

○ 따라서 제 3 차 7 개년계획기간중 북한의 철강생산목표 1,000만톤에 대한 계획수행률을 산출하여 보면

- 북한 발표치에 의할 경우에는 '86년보다 '93년도에 1.3배 증가하여 계획수행률이 87.5%를 기록하고 있고 연평균으로는 85.0%에 달하고 있으나
- 실제로는 원자재 부족에 따른 가동률 저하현상(30~50% 수준)으로 연평균 계획수행률이 북한발표치보다 크게 낮은 20~30%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93년도의 계획수행률은 18.6%에 머문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표 27〉

기간중 연간 강철생산 계획수행률

(단위 : 만톤)

구 분	'86	'87	'88	'89	'90	'91	'92	'93	연평균
목 표	-	712.2	753.6	797.5	843.9	893.0	945.0	1,000	849.3
생산량	673	683	(636)	593	700	(754)	(812)	875	721.9
수행률	-	95.9	84.4	74.4	82.9	84.4	85.9	87.5	85.0

주 : 북한발표 기준

* 연간 생산목표량은 기초년도('86)의 생산실적에 '93년까지 목표달성에 요구되는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출

- 한편, 철강부문의 건설실적을 보면 철강재 및 2차 금속가공제품 생산을 목적으로 건설이 추진된 김책제철소 제2단계 공사가 완공('89. 9. 8)된 것을 비롯하여
 - 천리마제강 불수강관직장 조업('87. 8. 7), 황해제철 생산능력확장('88. 6. 24), 천리마제강 5월18일단조공장 조업('89. 10. 9), 해산강철공장 조업('91. 2. 21)등 강철 및 압연강재 계통의 능력확장이 거의 매년 이루어졌음.
- 또한 비철금속부문에서는 단천제련소 조업('87. 12. 24)을 비롯하여 9월 21일제련소 연생산계통 조업('88. 7. 20), 727제련소 조업('91. 4. 14), 평북제련소 제2 유산생산공정 조업('91. 2. 14) 등 연·아연의 제련시설을 중심으로 능력확장이 이루어졌음.
- 이와 같은 금속공업부문 건설실적의 특징을 보면
 - 철강공업부문에서는 지금까지 선철 중심으로 시설능력을 확장해 오던 기존의 방침에서 벗어나 강철 및 압연강재 위주로 생산능력이 확장되었다는 점이며
 - 비철금속부문에서는 수출상품으로 큰 비중을 점하고 있는 연, 아연의 생산시설 확장이 두드러졌다는 점임.

나. 기계공업

(1) 정책방향

- 제3차 7개년계획기간중 북한은 기존의 생산기지를 확장하는 동시에 기계설비의 정밀화, 대형화, 고속도화에 중점을 두기로 계획하였음.
 - 경제 각 부문의 뒤떨어진 기술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고 현

대적인 공장들을 건설하며

- 특히 『4대자연개조사업』에 요구되는 각종 기계설비들의 생산에
치중기로 하였음.

○ 이에 따라 공작기계 생산에 중점을 두면서 각종 중기계와 자동차
및 트랙터, 채취설비, 건설기계, 농기계 등의 생산에 주력하여 계
획기간중 기계제품 생산을 2.5배로 늘이기로 하였음.

○ 그리고 계획기간중 CNC선반생산기지과 자동차 기관, 디젤기관 생
산기지, 유압기구생산기지, 전기기계생산기지 등 현대적인 기계가
공 조립기지를 새로 조성하는 한편

- 기계공업부문의 형단조화, 프레스화 비중을 높이고 주물작업 및
용접작업의 기계화, 로봇화에 주력하기로 하였음.

○ 이 밖에 기계공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북한이 기술
수준향상에 필요한 전자·자동화 공업과 같은 첨단산업개발에 관심
을 보이기 시작하였다는 것임.

-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전자공업, 특히 극소형전자공업과 자동화
공업을 발전시켜 집적회로 등 각종 전자 및 자동화 요소와 조종
장치, 전자일용품의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며

- 전자·자동화 공업의 발전을 토대로 로봇공업을 대대적으로 발
전시킨다는 것임.

(2) 생산여건

○ 북한은 중공업우선정책에 의해 일찍부터 기계공업부문을 북한경제
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해 오며 따라 동 부문은 여타 산업부문에
비해 가장 앞서 있는 산업부문이 되고 있음.

○ 주요 공장으로는 각종 공장건설에 필요한 대형설비를 제작하는 용

완공됨으로써 후라이스반 5천대의 생산능력이 추가되었기 때문임.

(3) 생산 및 건설실적

- 제 3 차 7 개년계획기간중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생산량을 '86년에 비해 '93년에 2.5배(연평균 14.0%)로 증대시키겠다는 목표하에
 - 주로 대규모 수·화력발전소 건설,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 건설 등 대규모 건설사업에 요구되는 동력설비, 화학설비, 광산설비 등의 생산에 역점을 두었음.
- 이에 따라 용성기계총국을 비롯하여 대안중기계, 낙원기계 등 북한의 주요 기계공장들에서는
 - 12.5만kw급 및 5만kw급 수력발전기, 10만kw급 변압기, 대형 메타놀합성탑, 원심압축기 등의 생산에 주력하였음.
- 또한 '88.11월 이후부터는 당중앙위 제 6 기14차전원회의결정 『공작기계공업과 전자, 자동화공업을 빨리 발전시킬데 대하여』에 따라 생산공정의 기계화, 자동화, 로봇화, 전자계산기화에 역량을 집중하였음.
- 전자공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선컴퓨터센터』가 신설되었으며 기존의 일선 공작기계공장들에서는 수자조종공작기계, 수자식종합가공반 등 자동화 공작기계와 산업용 로봇 개발에 주력하였음.
- 그러나 수송기기부문에서 승리자동차종합공장의 능력확장이 추진되었지만 큰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였으며 특히 조선건조(화물선, 어선) 실적은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제 2 차 7 개년계획기간중 선박 건조 총실적은 14.6만G/T이나 제 3 차 7 개년계획기간중에는 총 15,000여G/T에 불과함.
- 북한이 제 3 차 7개년계획기간중에 기계공업부문 성장목표를 지금

까지의 성장속도보다 높은 연평균 14.0%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기계공업부문에 대한 북한의 정책적인 의욕이 매우 강함을 반영하는 것임.

- 또한 계획기간중 기계공업부문의 주요 건설실적은
 - 희천공작기계 능력확장, 4월3일공작기계내 수자조종공작기계 생산기지 조성, 5월18일대형단조공장 조업 등이며
 - 집적회로, 전자계산기, 조종장치 등 전자 및 자동화 요소 생산기지와 전자일용품 생산기지가 소규모로 조성된 것이 전부임.
- 결국 계획기간중 북한의 기계공업은 시설의 확장보다는 대내 경제적 수요에 따라 기존 공장, 기업소의 생산시설을 최대한 운용하는데 중점을 두고 각종 기계, 장비의 생산에 주력해 온 결과 건설실적은 극히 부진하였던 것으로 평가됨.

7. 건재·화학공업부문

가. 건 재

(1) 정책방향

- 기간중 북한은 생산력 발전 및 건설을 대대적으로 벌이기 위하여 건재공업을 신속히 발전시켜야 한다고 전제하고 '93년까지 시멘트 2,200만톤의 생산목표를 제시하였음.
- 이를 위해
 - 기존 시멘트 공장들이 새로운 소성방법을 받아들임으로써 생산력을 제고하고
 - 추진중에 있는 시멘트공장 및 소성로들의 증설공사에 박차를 가

하며

- 사리원·개천지구에 새 원료에 의한 대규모 시멘트 생산기지를 건설할 계획을 밝혔음.

(2) 생산여건

- 시멘트공업의 기본원료인 석회석이 북한 전지역에 걸쳐 풍부하게 부존되어 있는 바, 순천, 승호리, 사리원지구, 해주지구, 자강도, 황해북도 등 북한의 동서부지역에 대규모 시멘트공장들이 가동되고 있으며, '89년에는 현대적 설비를 갖춘 연 생산능력 200만톤 규모의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가 조업하였음.
- 시멘트 이외의 중요 건재공업생산 공장들은 성천강, 청천강 등 주요 하천지역에서 채취되는 규산염과 생석회를 가압하여 생산하는 씨리카트벽돌공장 및 평양목재종합공장, 평양수지건재공장 등이 있음.
- 한편 북한의 각 지방에서는 건재수요를 자체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중소규모 시멘트공장 등 각종 건재 생산기지를 보장하여 건재·건구에 대한 생산 비중을 높이고 있음.
 - '87~'88년중 평양시 등에 40개 건재 생산기지가 조성되어 타일, 합성수지 위생기구, 금속건구, 비닐장판·벽지, 보온재, 방열기 등을 생산
 - '89년에는 함경북도내 10여개 시·군에 시멘트, 강재, 부재, 벽돌, 금속건구공장 등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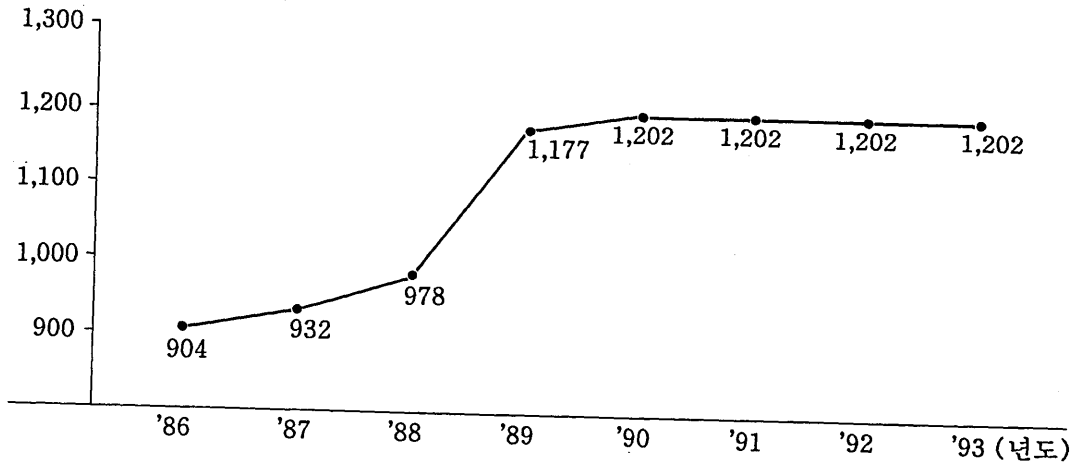
(3) 실 적

- 기간중 북한은 시멘트 2,200만톤의 생산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88년 독일 등에서 생산설비를 도입하여 연산 200만톤 규모의 상원시멘트공장을 건설('89년 조업)하고

- 시멘트 생산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순천, 2.8, 고무산, 해주시멘트공장 등의 시설개체 및 생산능력 확장공사를 추진하였음.
- 이로써 북한의 시멘트 생산능력은 '86년의 904만톤에서 종료연도인 '93년에 1,202만톤으로 증가되었으나 실질생산실적은 생산목표(2,200만톤) 대비 18.1%에 불과한 398만톤에 머문 것으로 평가되었음.

〈그림 16〉 기간중 시멘트 생산능력 증가 추이
(만톤)



- 한편 기타 건재공업부문에서는 성진내화물공장, 청진씨리카트벽돌공장, 평양8월17일부재공장, 백암마그네샤지붕판공장, 혜산흡관공장 등이 건설되었으며, 함흥목재가공공장 및 평양금속건재공장등은 생산시설을 개건·확장하였음.

나. 화학공업

(1) 정책방향

- 북한은 화학공업 발전의 기본방향을 각종 경공업 원료·자재의 생산 보장과 농촌경리의 화학화 촉진에 두고
- 기간중 화학비료는 720만톤, 화학섬유는 22만 5천톤, 합성수지·가소제는 50만톤의 생산목표와 아울러 탄산소다 4.5배, 가성소다 2.1배, 유산 3배의 생산목표를 제시하였음.
- 이러한 생산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간중 내부자원에 의거하는 새로운 화학공업 기지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할 것임을 밝혔음.
 - 대규모 종합화학공업기지인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 건설에 힘을 집중함으로써 '88년까지 10만톤의 비날론 생산능력을 조성하는 동시에 80만톤 이상의 질소비료와 2만톤 이상의 합성수지 생산능력을 조성하고
 - 사리원카리비료연합기업소 건설을 추진하여 내부자원에 의존하는 카리비료공업을 새로 창설하며
 - 기초 화학공업기지인 순천탄산소다공장을 건설하여 기초 화학제품에 대한 인민경제의 수요를 원만히 보장할 것이며
 - 함흥지구·남흥지구에 각종 합성수지 생산기지과 가소제 생산기지를 더 건설하여 합성고무공업을 발전시키기로 계획하였음.

(2) 생산여건

- 북한지역의 화학공업의 기반은 '30년대에 현대적 대규모 화학공업의 효시라 할 수 있는 홍남비료공장이 건설되면서부터 비롯되었음.

- 그 후 함흥지역을 중심으로 분공화학, 아오지화학, 영안화학공장을 비롯하여 무기화학공장들이 설립되었으며 화학비료, 카바이드, 가성소다 등 각종 화학제품의 생산기반이 조성되었음.
- 특히 함흥지역은 화학공업의 원료를 제공해주는 광산뿐 아니라 장진강·부전강 발전소, 성천강으로부터의 전력 및 공업용수공급, 철도·해상 교통의 요충지 등 화학공업 입지상의 여건이 양호하여 종합적 화학기지로 발전할 수 있었음.
- 북한은 기존 화학공업 기반을 바탕으로 생산시설을 개선·확장 또는 신설하여 왔으며 특히 '61.5월 2.8비날론공장 건설을 계기로 종래의 무기화학공업에 편중된 화학공업구조에서 탈피하여 유기화학공업 발전에도 관심을 기울여 왔음.

(3) 실 적

〈화학비료〉

- 기간중 북한은 화학비료생산목표를 720만톤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리원카리비료공장,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 질소비료 공장, 단천미량원소혼합비료공장, 7월4일공장(린비료) 등의 건설을 추진하였으며, 기존의 흥남비료공장의 생산능력을 확장하였음.
- '93년말 현재 북한의 화학비료 총생산능력은 351.4만톤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실질생산량은 목표 720만톤의 22.3%인 160.9만톤에 그쳤음.
- 북한은 '93년에 560만톤 이상을 생산함으로써 목표대비 77.7% 이상의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주장하였음

〈화학섬유·기타〉

- 기간중 북한은 화학섬유 22.5만톤, 합성수지·가소제 50만톤의 생산 및 탄산소다 4.5배, 가성소다 2.1배, 유산 3배의 증산을 목표로 설정하였음.
- 북한은 화학섬유의 생산증대를 위하여
 - '87년 순천비날론공장 건설을 시작하여 '89년 1단계 조업을 함으로써 연산 5만톤의 비날론생산능력을 갖추었으며
 - 기존의 2.8비날론공장은 기간중 모빌론생산공정 및 염화비닐 생산공정 등 생산기술의 현대화에 주력하였으며, '91. 11월 산소분리기직장 1단계 건설을 완공하였음.
 - 신의주화학섬유공장은 전해조 개조 등 능력확장공사를 추진하여 스프생산능력을 2배로 증대하였음.
 - 남흥청년화학공장은 '87년 안주아닐론방직공장 및 '88년 청년수지마대공장을 각각 조업하고 '89.9월에는 프로필렌수지공정 건설을 완공함으로써 저압폴리에틸렌, 신발창고무, 유기유리, 프로필렌 글리콜 등 각종 화학연료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음.
- 그러나 화학섬유의 경우 실제생산실적은 '93년에 5.3만톤을 기록함으로써 23.6%의 계획수행률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되었음.
- 한편 기초 화학공업 생산과 관련해서는
 - '87년 착공한 순천비날론공장에서 비날론, 질소비료 이외에 카바이드 100만톤, 메타놀 75만톤, 염화비닐 25만톤, 가성소다 25만톤, 탄산소다 40만톤 규모의 생산능력을 목표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 2.8비날론공장은 '92년중 메타놀공장 건설을 추진하였음.

8. 경공업부문

(1) 정책방향

- 기간중 북한은 『식·의·주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며,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경공업 발전에서 새로운 전변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하고
 - '89년도를 『경공업의 해』로 정하여 경공업제품의 질적 향상과 양산을 촉구하는 한편,
 - '89. 6월 당 제 6기16차전원회의에서는 『경공업발전 3개년계획』을 채택하고 기간중 경공업부문에 집중 투자하여 경제적 잠재력을 적극 동원할 것임을 밝혔음.
- 먼저 방직공업부문에서는 기존 방직설비들을 현대화하는 한편 새설비를 증설하여 '93년까지 직물생산을 15억m에 이르게 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 비날론 가공기술을 발전시켜 각종 천생산을 늘이며, 편물생산기지를 확대하여 편물의류 비중을 높여 나가기로 하였음.
- 신발공업부문에서는 신발의 품질향상 및 다양화에 주력기로 하였음.
- 식료가공품, 일용품(특히 기계·전자일용품)의 생산량을 늘이고 경공업제품의 포장을 전반적으로 개선기로 하였음.
- 또한 지방공업공장들의 생산공정과 설비를 현대화하고 지방원료기지를 조성하여 지방공업 생산을 2.5배 신장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음.

(2) 생산 여건

- 북한에서의 경공업 생산체제는 대규모의 중앙공업, 중소규모의 지방

공업 및 각 공장·기업소·협동농장 등에 조직된 가내작업반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가내작업반에서는 공장·기업소의 부산물, 폐설물 등을 활용하여 생필품, 즉 『8.3인민소비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러한 『8.3인민소비품』은 국영상업망 유통량의 약 1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경공업제품 생산은 일부 대규모 방직, 섬유, 식료가공공장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4,000여개에 달하는 중소규모 지방산업공장에 의존하고 있으나 제품들의 품질은 매우 낮은 수준임.
- 이에 따라 북한의 낙후된 경공업 기술 및 품질의 향상을 위해 조총련계 기업들과 봉제섬유, 식료가공부문의 합영·합작사업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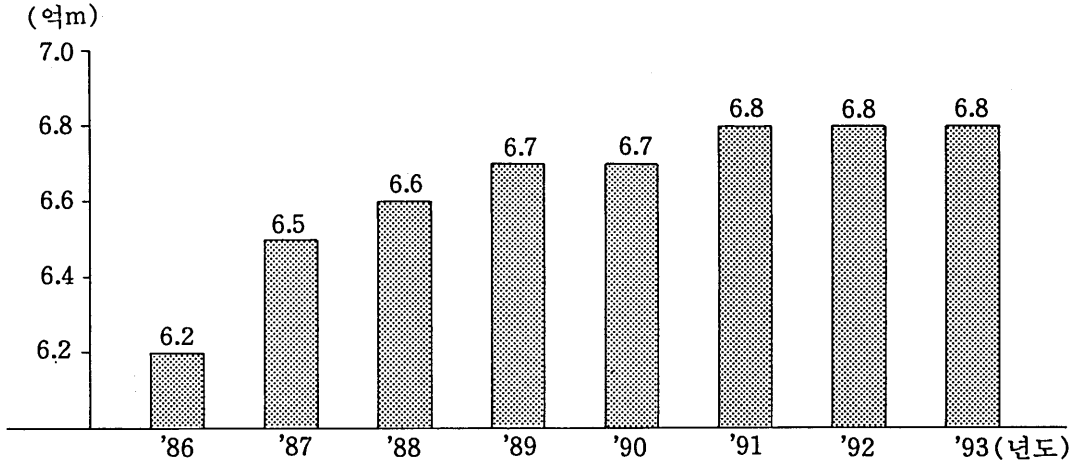
(3) 실 적

〈방직공업〉

- 북한은 '93년까지 직물 15억m 생산목표를 내세우고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북한 최대규모 방직공장인 평양종합방직공장을 비롯하여 사리원, 구성, 개성, 숙천방직공장 등의 생산능력 확장을 추진하였으나 신규 공장의 건설은 없었음.
 - 이에 따라 북한의 직물생산능력은 '87년도의 6.5억m에서 '93년에는 6.8억m로 다소 증가하는데 그쳤음.
- 직물생산에 있어서는 '93년에 1.9억m를 생산하는 저조한 실적을 나타냄으로써 12.7%의 낮은 계획수행률을 보였음.

〈그림 17〉

기간중 직물 생산능력 증가 추이



- 편물생산기지를 확대하여 편물의류 비중을 높여 나가기로 한 계획은 기간중 피현영예군인편직공장만이 생산능력을 확장하였을 뿐 다른 공장들은 이렇다할만한 동향을 보이지 않았음.
- 한편 견방직공장의 모체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영변견직공장의 직포종합직장이 '89년 조업함으로써 연간 생산능력이 배가되었으며, 전사생산공장인 대성제사공장 건설 및 청천강합영회사 2단계 공사가 각각 '89년, '91년에 완공되었으며 강계견방직공장 건설이 추진되었음.

〈피복공업〉

- 북한은 수출증대를 위해 조총련계 기업과의 합영·합작사업으로 봉제의류 임가공 부문의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기간중 관련공장의 설립이 활발하여 북한 최대의 합영회사인 모란봉합영회사의 대동강피복공장 등 15개 공장이 건설·조업하였으며
- 은하무역총국이 '92년 UNDP의 지원하에 컴퓨터 피복설계기술을

도입하는 등 5개 공장에서 현대화공사가 추진되었음.

〈식품공업〉

- 식품(가공)공장의 설립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기간중 총 24개의 공장건설이 완공되어 조업하거나 건설이 진행되었음.
 - 특히 기간중 일본의 조총련계 기업으로부터 기증 또는 합영·합작하는 8개 식품공장·기업소가 새로 조업하였음.
- 그 밖에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1단계 공사가 완공되고 강계맥주공장, 만포제분공장 등의 확장공사가 진행되었으며, 평양, 남포, 평성시 등에 김치공장 건설이 추진되었음.

〈신발공업〉

- 기간중 3월4일공장이 완공('93년)되어 연간 흰고무신 15만켤레를 생산하게 되었으며 신의주신발공장에는 수출종합직장이 완공·조업하였으며, 평양염화비닐신발공장 및 순천구두공장은 각각 능력확장공사를 추진하였음.

〈제지공업·기타〉

- '88년중 해주종이공장이 조업하여 황해남도 용진·강령일대에 풍부하게 서식하는 갈을 원료로 종이를 생산하게 되었으며 '91년에는 평양종이공장이 조업하였음.
- 또한 북한은 대외무역을 강화하면서 초물제품을 주요 수출품목으로 개발해 왔는 바 기간중에는 조총련계 기업과의 합영으로 벗짚을 이용, 돛자리를 제조하는 조선만풍합영회사, 은천벗짚가공공장 등이 조업되었음.

〈8.3인민소비품〉

- 북한은 기간중 생필품 부족을 타개하기 위하여 각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 가내작업반을 확대 조직하여 공장·기업소의 부산물, 폐설물을 이용해 8.3인민소비품 생산증대운동을 전개하였음.
- '89년에는 전문 4장 17조로 구성된 『8.3인민소비품 생산처리에 관한 규정』을 채택하는 한편 『8.3 인민소비품 생산 모범군(구역)』 칭호를 제정하였는 바
- 8.3인민소비품의 유통량은 북한의 국영상업 유통량의 10% 내외를 점유하고 있는것으로 추정됨

9. 수송·통신부문

가. 수 송

(1) 정책방향

- 북한의 수송체계는 북한지역이 대부분 험준한 산악지대라는 지형적 제약에 따라 철도수송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로수송과 하천 및 해상수송은 철도수송과의 연계를 위한 철도수송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바
- 철도 및 도로망이 비교적 지대가 낮은 서해안지대에 발달되어 있으며, 동해안 지대에는 해안선을 따라 철도와 도로망이 집중되어 있음.
- 북한은 이른바 “철도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더욱 강화하여 인민경제의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한다는 기본 정책방향에 따라
- 수송의 기본수단인 철도수송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철도

전기화』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면서 철도의 광궤화, 중량레일화 및 신규 철도건설을 병행하여 왔음.

- 그러나 '70년대 후반부터 경제규모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수송애로가 심화되자 당중앙위원회 제 5기13차회의('77. 4)를 통해
 - 수송사업의 혁신을 내세워 집중수송, 연대수송, 짐함수송 등 소위 『3대수송방침』을 제시하고 도로수송과 하천을 이용하는 내륙수운부문의 개발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하였음.
- 제 3차 7개년계획기간중의 중점 추진 목표로서
 - 철도전기화의 완성, 집중 수송과 짐함수송(컨테이너 수송)의 발전 및 철도운영의 과학화를 지향, 철도화물 수송량을 1.6배로 늘이고
 - 주요 간선도로를 『고속도로화』함으로써 자동차 화물수송량을 2.6배로 증대시킬 것을 설정하였음.

(2) 수송부문 현황

- 화물수송의 경우 철도가 전체물동량의 90%를, 도로와 해운이 각각 7%, 3%를 담당하고 있음.
- 여객수송 분담률은 철도가 62%, 도로가 37%를 차지하고 있고 해운은 1%미만으로 추정되고 있음.
- 한편 장거리 화물수송의 철도의존률은 '86년 86% 정도이던 것이 '93년에는 90% 이상으로 계획착수이전보다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철도수송>

- 철도망은 1993년말 현재 약 60여개의 철도노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50% 이상이 평균 30km 정도의 구간거리를 가지고 있는 바

- 철도노선 총연장은 약 5,112km로서 이중 3,866km가 전기화(75%)되어 있으며 표준궤구간은 4,451km(88%), 협궤구간은 474km(9%), 나머지 134km 정도는 표준궤와 광궤의 혼합구간임.

* 북한이 발표한 공식자료에 의하면 철도총연장은 8,960km로, 전기기관차에 의한 견인 비중은 90.1%로 주장하고 있음.

○ 주요 간선 및 지선수는 총 46개 노선에 대부분이 단선철도로 되어있고, 서해안 평야지대에 철도망이 밀집되어 있는 것이 특징임.

〈표 29〉 철도총연장 실태

연도별	철도총연장(km)	전철총연장(km)	전철화 비율(%)
1986	4,549	2,813	61.8
1987	4,703	2,868	61.0
1988	4,927	2,996	60.8
1989	5,024	3,084	61.4
1990	5,045	3,114	63.3
1991	5,059	3,280	64.8
1992	5,096	3,397	66.7
1993	5,112	3,866	75.0

○ 주요 철도노선으로는 서해안지대를 잇는 경의선(개성-사리원-평양-신의주), 동해안을 따라 부설된 원라선(원산-홍남-청진-나진), 동서를 횡단하는 평원선(평양-원산), 북부내륙의 『북

- 부순환선계』및 황해남북도의 『서부순환선계』등을 들 수 있는 바
- 기존 평원선의 부하를 경감하기 위하여 2차 7개년계획기간중 평산-세포구간 163km를 잇는 제 2의 동서횡단 철도를 신설한 바 있고
 - 3차 7개년계획기간중에는 북부지구의 자강도 만포에서 양강도 혜산을 연결하는 북부순환선(북부철길)을 완공(1988. 8)하여 운행중에 있으며
 - '91년중에는 해주-웅진, 신강령-부포간 철도확장공사와 온천-남동간철도(80km)공사를 추진하였으며, 동림-동천간 철도가 개통되었고
 - '93. 2월 북부내륙선 철도(양강도 혜산-자강도 만포간 255km) 및 평부선(평양-개성간 187km)의 일부구간인 황북 평산-개성간 60km의 철도전기화가 이루어졌음.
- 국제철도노선으로는 6개의 중국노선과 1개의 러시아 노선이 개설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신의주-단동(중국), 남양-도문(중국), 두만강역-햏산(러시아)의 3개 노선만 연결·운행하고 있음.
 - 대중국 철도노선의 경우 평양-북경구간(총연장 1,347km)을 주 4회 정기운행하고 있으며, 청진-남양-도문-연길로 연결되는 노선은 주로 청진항을 이용하는 중국의 중계화물 수송에 이용되고 있음.
 - 대러시아 철도노선은 1963년 이후 두만강-햏산구간을 부설, 시베리아철도와 연결하고 있으나 양국간의 철도궤폭차이(북한 표준궤 : 1,435mm, 러시아 광궤 : 1,676mm)로 인해 두만강역과 햏산역에 각기 환차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 또한 나진항을 구소련측에 독점 개방한 1974년 이후 이 항구를

통한 러시아의 중계화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두만강-나진간 50 km 구간을 혼합선으로 건설하고 1989년에는 이 구간을 청진까지 연장하였음.

- 한편 평양-모스크바 여객노선에는 주 1회 신의주-단동(중국)-바이칼을 경유하는 총연장 8,666km 노선과 주 2회 두만강-하산-하바로프스크-바이칼을 경유하는 총연장 10,214km의 노선이 있음.
-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기관차의 종류는 일제시대의 증기기관차, 수입 디젤기관차와 1961년 이후부터 자체 생산한 전기기관차 등이 있는 바
 - 3차 7개년계획기간 착수년도('87년)부터 8축 전기기관차와 100톤 화차의 생산을 시작, 1993년말 현재 화물차량 20,099량, 객차는 1,040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현재 북한의 철도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 높은 전철화 비율(약 75%)에도 불구하고 전체노선의 약 98%가 단선이기 때문에 열차운행 빈도가 높아질수록 중간역에서 정체되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 철도수송 고유의 장거리화, 대량화, 중량화 등의 특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는 실정이며
 - 장거리지역간 수송에 유리한 철도가 단거리 수송에도 크게 이용되고 있어 전체 철도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도로수송〉

- 철도수송의 보조수송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도로수송 분담률은

화물수송이 7%, 여객수송이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93년말 현재 도로총연장 길이는 23,219km, 고속도로는 524km인 것으로 알려진 바

- 고속도로망은 평양-순안(15km), 평양-남포(53km), 평양-원산(172km), 평양-개성(170km)간 4개노선과 동해안의 원산-금강산(114km)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포장도로는 약 1,861km로서 포장비율은 전체도로의 10% 미만이며 '93년말 현재 평양-회천간(120km)의 고속도로 공사가 진행중임.

* 북한의 자동차 보유수는 1993년 기준 약 29만대 정도로서 차량생산능력은 연간 3만 3천대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음.

〈표 30〉 도로운송 실태

연도별	도로총연장(km)	고속도로(km)	자동차보유(만대)
1987	22,000	230	na
1988	23,000	230	24.8
1989	23,000	344	26.0
1990	23,000	354	26.4
1991	23,000	354	27.0
1992	23,219	524	27.7
1993	23,219	524	28.7

- 북한의 주요 간선도로는 서부간선도로(개성-평양-신의주), 동부해안 간선도로(고성-원산-청진-나진-온성), 동서횡단도로(평양-원산), 북부동서횡단도로(신의주-온성) 등이 있는 바

- 서부간선도로는 총연장 약 400km이며 중국과 연결되고 있으며 평양-개성간은 1991년말 기존 도로를 확장, 고속도로를 건설하였으며
- 동부해안간선도로는 총연장 900km에 달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연해주, 중국의 길림성과 연결되는 경제·군사적 특성이 짙은 도로로서 이중 고성-원산 구간은 금강산 관광개발 목적으로 1989년 완공되었음.
- 한편 북부동서횡단도로는 총연장 약 1,000km로서 북부국경을 따라 산악지대를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 특히 남포-평양-원산간 고속도로는 동서를 횡단하는 북한의 가장 중심적인 도로교통축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북한의 도로운영 체계는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일반도로의 경우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나뉘어지며, 고속도로와 1등급~3등급 도로는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4등급~6등급 도로는 지방에서 관리하고 있음.

〈해 운〉

- 북한의 해상운송은 해안선이 동-서로 단절된 불리한 여건과 주요무역대상국인 중국, 러시아가 모두 육상운송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해운부문의 화물수송 분담율은 대략 3% 정도에 불과함.
- 원래 북한지역의 항만은 입지조건이 유리한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발달되어 있으나 1986년 『서해감문』의 완공으로 2만톤급의 선박통과가 가능해짐으로써 서해안지역의 수송능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항만하역능력은 1970년대까지는 기존 시설의 복구·정비 등 현 상유지정도에 그쳤으나 1980년대로 접어들어 대외무역 활성화 방침에 따라
 - 주요 무역항인 청진·남포·해주·송림항 등의 확장공사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 특히 1991년 12월,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하고 나진·선봉·청진 등 3개항을 자유무역항으로 지정, 대외개방을 위한 전진기지로 개발할 것임을 밝혔음.
- 1993년말을 기준으로 볼 때 동해의 청진·나진·선봉·홍남·원산과 서해의 남포·송림·해주 등 모두 8개 무역항의 연간 총하역능력은 3,501만톤으로 추정되고 있음.

〈표 31〉 주요 항만시설

구 분	나 진 항	청 진 항	남 포 항	해 주 항	송 립 항
하역능력	연 300만톤	연 800만톤	연 700만톤	연 240만톤	연 100만톤
통과능력	연 300만톤	연 800만톤	연 750만톤	연 150만톤	연 250만톤
수 심	15m	15m	10m	10m	10m
부두길이	2,115m	2,380m	1,319m	410m	445m
접안능력	1.5만톤	2만톤	2만톤	1만톤	1만톤
정 박 소 수용능력	1만톤급8척 5천톤급5 "	1만톤급8척 5천톤급5 "	2만톤급8척 1천톤급1 "	1만톤급3척	2만톤급3척
총 부 지 면 적	38만㎢	100만㎢	45만㎢	48만㎢	—
화 물 보관면적	203천㎡	126천㎡	85천㎡	32천㎡	—
철 인 도 입 선	16km	21.6km	19km	—	—

〈항 공〉

- 북한에서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여객을 위하여 평양-함흥-청진간 정기노선이 개설되어 있으며 기타 인력과 물자수송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정기 국내항공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바
 - 순안·원산·선덕·청진·혜산·삼지연·순천·과일 등지의 10여곳에 민용항공터미널이 설치되어 있고
 - 국제공항은 평양근교의 순안비행장 하나 뿐임.
- 국제선의 경우 IL-62, AN24기 등 주로 구소련제 중·장거리용 항공기를 주축으로 4개국, 5개도시에 4개 정기노선이 운항되고 있는 바,
 - 북한과 직접 취항계약을 맺고 있는 외국항공사는 『중국민항』(CAAC)과 러시아의 『Aeroflot 항공』 2개사임.
 - 또한 북한이 보유한 여객수송용 국제항공기는 '87년의 17대에서 '93년 21대로 늘어났으며 주요 기종은 AN24, TU종류, IL종류 등으로 알려지고 있음.
- 현재 평양-북경노선에는 중국과 북한 양국의 항공사가 각기 자국의 항공기를 별도로 운항하고 있으나
 - 평양-모스크바간은 구소련의 항공기를 공동으로 취항시키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 1987년 평양-모스크바 노선을 동베를린까지 연장한데 이어 1988년에는 불가리아의 소피아에 정기노선을 개설하였음.
- 한편 북한은 일본과의 내왕이 증가함에 따라 1975년에 개설된 평양-하바로프스크간 정기노선에 기 개설·운항중인 일본의 니이가타와 하바로프스크간 노선을 연결, 평양-하바로프스크-니

이가타의 간접항로를 개설하였음.

- 또한 1990년초 평양-홍콩간 전세기운항을 위한 시험비행을 실시, 평양과 일본사이의 전세기 운항에 관한 협정을 조인('92. 1) 한데 이어 '92. 8월에는 태국과 평양-북경-방콕간의 정기노선(주 2회) 운항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음.('93. 4 평양-방콕간 직항로 개설)

나. 통신부문

(1) 정책방향

- 북한의 통신정책은 1차적으로 공적인 행정수요 충족에 목적을 두어 왔기 때문에 사적인 통신부문은 극히 낙후된 실정이나 1980년대로 접어들어 대외무역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부터 국내·국제 통신시설 확장 및 현대화를 추진하기 시작하였음.
- 계획기간중 북한은 '89년의 세계청소년축전 행사 개최 및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설치 등을 계기로 통신시설의 확장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 전화의 자동화와 관련 '92년 7월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중앙과 도·시·군·리에 이르기까지 2단계로 전화의 자동화 실현을 추진, 1단계로 100만회선, 2단계 300만회선의 증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2) 통신시설 현황

- 북한은 '80년대부터 대외무역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제통신부문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특히 '89년 평양세계청년학생축전 준비

과정에서 대내외 통신시설 확장 및 현대화를 추진하기 시작했음.

- 중국·구소련·일본 등을 통해 연결되는 국제전화의 경우 1984년에 약 33회선 정도이던 것이 1990년에는 약 50회선으로 증설

○ 그러나 북한의 통신정책은 일차적으로 공적인 행정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적통신은 극히 낙후되어 있는 실정임.

○ 북한의 전화 가입자수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으나 대략 30~50만 회선 수준으로 추정되며 도시별 자동화 비중은 별로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평양을 비롯한 주요도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동식교환시스템으로 운용되고 있음.

* '92년 북한이 ITU(국제전기통신연합)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전화가입자수는 1,089,300회선인 것으로 알려짐.

○ 전화 자동교환기의 종류는 전자식 교환기, Crossbar 교환기, Step by Step 교환기 등이 있으며, 시외전화회선은 하다가회선 및 마이크로회선을 사용하고 있는데, 장래의 ISDN(종합정보통신망)을 고려, 디지털통신방식으로서의 구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짐.

○ 북한의 통신망을 보면, 사회주의권과는 평양-북경, 평양-모스크바를 연결하는 무선망과 신의주-북경, 청진-블라디보스톡을 연결하는 유선망을 이용하고 있으며, 서방권과는 평양-싱가폴, 평양-홍콩, 평양-일본사이의 무선망과 중국을 통한 간접통신망이 연결되어 있음.

○ 텔렉스시설은 1980년대부터 일본 및 구서독 등지에서 텔레타이프를 도입, 주로 지방의 관공서와 주요 기업소, 무역상사 등 무역관련기관 등에 설치하여 이용토록 해왔음.

○ 국제통신망으로는 마이크로파 회선과 위성통신 회선 두가지를 모

두 사용하고 있는 바,

- 1984년 인터스푸트니크(공산권 통신위성기구)에 가입, 동 체계에 FDM 22회선, SCPC 10회선을 운용하고 있으며
- 1986년 프랑스와 기술제휴로 인도양상의 인텔세트(INTELSAT)의 위성통신지구국을 평양에 설치, 동 체계에 FDM 36회선과 SCPC 18회선을 연결·운용하여 일본을 제외한 서방국가들과의 위성통신이 가능하게 되었고
- 그후 1990.11월 북한·일본간 직통위성통신회선 및 국제전용회선 상호제공 협약이 체결됨으로써 전화 3회선, 텔렉스 10회선, 전보 1회선을 개통·운영하고 있으며
- 이외에 마이크로파 회선능력 24회선, 테이블 네트워크는 15회선을 운용하고 있음.

〈표 32〉 주요 도시 전화회선 및 장거리전화 확충 실태

도 시 명	시내전화회선수		평양과 각 도시간의 장거리회선수	
	1988	1993계획	1988	1993계획
평양	80,000	300,000	—	—
함흥	21,500	71,000	198	750
청진	36,000	66,000	144	670
평성	32,000	75,000	261	600
신의주	29,000	51,000	216	450
강계	28,500	59,000	75	650
혜산	22,500	60,000	90	460
남포	17,000	31,000	235	650
사리원	12,000	25,000	141	310
원산	21,000	45,000	90	350
개성	11,000	31,000	120	320

- 한편 통신분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선방송부문은
 - 주민선전·선동, 정보통제 및 동원 등 정치적 목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 설치비용이 과다하지 않고 지방중계소에서 독자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지역단위의 정보를 제공이 용이하기 때문에
 - 새로 건설된 살림집(아파트)단지 내에 필수적인 부대시설로 설치·운영되고 있음.
- * 유선방송은 해당지역까지 케이블을 가설, 간단한 앰프시설과 스피커만 갖추면 가능하며, 별도의 방송케이블을 설치하지 않고 전화선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짐.

10. 도시와 농촌건설

(1) 주택건설

- 제 3 차 7 개년계획기간중 북한은 가까운 기간내에 주택문제를 완전 해결한다는 방침 아래 매년 15~20만세대의 주택목표를 설정하고 아파트, 공동주택 등 다세대 주택 위주로 건설을 추진하였음.
- 특히 평양시에서는 통일거리, 광복거리 등 시가지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3만세대 규모의 고층 아파트 건설을 연이어 추진하였으며 만경대구역, 룡성구역, 순안구역 등 평양시 외곽지역에는 『씨리카트』벽돌집 건설에 주력하였음.
- 지방의 도시 및 농촌들에서는 지방의 자재와 건재를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주택을 건설한다는 기본 방침하에 추진하였음.
- 북한은 『제 3 차 7 개년계획('87~'93) 수행 총화보고』('93. 12. 9)를 통해 계획기간중 100만세대의 주택을 건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나 북한의 연도별로 발표내용을 기초로 하여 평가하는 경우 계획기간중 북한의 총 주택건설실적은 총 29만~34만세대에 불과하며

- 북한 주택건설부문의 계획수행률은 20.7~32.4%로서 매우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음.

〈표 33〉 연도별 계획수행률 (단위 : 만세대, %)

구분	'87	'88	'89	'90	'91	'92	'93	평균
목표	15~20	15~20	15~20	15~20	15~20	15~20	15~20	15~20
실적	2	3~4	3~4	6~7	8~9	3~4	4	4.1-4.9
수행률	10.0~13.3	15.0~26.7	15.0~26.7	30.0~46.7	40.0~60.0	15.0~26.7	20.0~26.7	20.7~32.4

- 〈표 33〉을 보면 평양시에 3만~5만세대의 아파트를 완공한 '90년도 및 '91년도가 주택건설이 가장 활발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90년도에는 인민군을 대거 투입하여 평양시 통일거리에 3만세대 고층 아파트 건설을 대대적으로 추진, 완공하였으며 지방의 도시와 농촌들에서도 각 『도지방건설건재총국』의 주관아래 수만세대의 주택을 완공하였음.
- '91년도에는 평양시 5만세대를 완공하였으며 신의주시, 안주시, 강계시 등 지방도시들과 농촌들에도 수만세대의 주택을 완공하였음.
- 계획기간중 평양시외에 가장 주택건설이 활발하였던 지역은 안주, 순천, 개천, 덕천 등 탄전이 발달되어 있는 평안남도 지역임.
- 기간중 평안남도에서는 연평균 5,000여세대의 탄부주택을 건설함으로써 총 35,000여세대의 주택건설실적을 기록하였음.
- 또한 '88.6월부터 북한은 평안북도 신의주 신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

로 남신의주지구 주택건설에 주력하여 왔는 바, 이는 대중국 교역의 관문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음.

- 그러나 농촌지역의 주택건설은 군단위별로 원료 및 자재를 자체 해결하도록 하는 기본 방침하에 추진함으로써 기간중 1개군당 50~100여세대를 건설하는데 그치는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였음.
- 이로 볼 때, 계획기간중 북한의 주택건설은 투자재원 부족 및 건설자재 공급난으로 인해 “가까운 시일내에 주택문제의 완전한 해결”이라는 당초의 방침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 평양시 등 일부 도시의 전시적인 미화사업 또는 탄부주택 공급확대에만 역점을 둠으로써 일반 지방도시 및 농촌의 주택공급은 전반적으로 부진하였던 것으로 분석되며
 - 이에 따라 '93년도 북한주민의 주택사정은 '86년의 수준보다 더욱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겠음.

(2) 도시경영 및 문화시설 건설

- 북한의 도시경영사업은 도시의 주택, 공공건물, 도로, 상하수도, 교통시설 등 주거환경과 공공시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지칭함.
- 그동안 도시경영사업과 관련한 북한의 주요 조치들을 보면
 - '62. 9 김일성은 『도인민위원회위원장협의회』에서 도시경영사업을 개선 강화할 것을 지시한 바 있으며
 - '77. 4에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토지법』을 채택, 국토개발 및 국토관리차원에서 계획적·지속적으로 도시개발을 추진토록 하였고
 - '85. 5에는 『향토조성사업』, '89.10에는 『우리마을 우리거리 꾸리기 운동』을 전개, 전군중적 운동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미화작업을 추진하여 왔음.

- 또한 '89. 1 정무원에 『도시경영부』를 신설하여 도시개발과 주거 환경 업무를 전담토록 하였으며
 - '90. 5에는 『전국도시경영근로일군열성자회의』를 개최하고 주택, 수도건설, 오수처리, 난방, 도로포장 등 당면한 도시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기도 하였음.
- 제 3 차 7 개년계획기간중 문화시설의 주요 건설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음.
- '87년에는 남청진다리를 개통한데 이어 안주시 청남구에 석탄단과 대학, 인민병원, 목욕탕, 상점, 고등중학교 등 50여동의 공공건물, 사리원경기장, 개성물놀이장 등이 완공되었음.
 - '88년에는 김정일 지시에 의해 남신의주 도시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금강산, 송도원 등의 북한 주요 명승지에 연 건축면적 13만 8,000㎡의 국제관광호텔 건설을 추진하였음.
 - '89년에는 장자강과 그 지류인 북천과 남천에 10개의 다리를 건설한 것을 비롯, 북한 전역에 240여개의 다리(평남 53개, 황남 39개, 황북 29개, 함북 22개, 강원도 19개)를 건설하였음.
 - '90년에는 평양시 녹화사업에 역량을 집중하였고 남청진 송평지구 에 수백개의 공공건물을 건설하였음.
 - '91년에는 평양시 통일거리에 학교, 유치원, 탁아소 등 공공건물을 완공하였으며 각도시 및 농촌들에서는 녹화사업의 일환으로 산림 개조사업을 전개하였음.
 - '92년에는 태권도 전당, 함흥시 상수도 확장공사(송수관 21.8km), 평천정화장 정화계통공사, 황북 평산군 군민체육관(연 건축면적 6,200㎡) 등을 완공하였음.
 - '93년에는 전승기념관, 동명왕릉개선공사, 과학자여관, 평성경기장,

강원도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개건·확장공사 등을 추진, 완공하였음.

- 그러나 이와 같은 북한의 문화시설건설은 내용면에서 정치적·전시적 목적의 상징물 건설에 치우치고 있어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Ⅲ. 대 외 경 제

1. 무역부문

가. 대외무역

(1) 정책방향

- 북한의 무역정책은 대외무역이 주체경제, 즉 자력갱생 원칙에 입각한 자립적 민족경제의 달성과 대내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보조적 수단이라는 소극적 입장을 바탕으로 하여 전개되어 왔음.
- 그러나 북한은 '80년대부터 합영법을 제정('84년)하는 등 부분적인 경제개방정책을 추구하여 왔으며, 대외무역의 발전이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절실한 요구로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하는 등 대외무역발전에 강한 의지를 보여 왔음
 - 대외무역발전을 위해 북한은 대외무역의 다양화·다각화, 해외시장의 확대, 수출품 생산기반의 확충, 대외신용기반의 구축, 무역전문가의 양성, 대외무역결제 방식의 개선, 새로운 무역체계의 수립 등 새로운 방침들을 제시하였음.
- 기간중 수출증대를 목적으로 UNDP, UNIDO 등 국제 경제기구들의 도움을 받아 무역현장 근로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특정산업부문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도 추진하였음.
 - 기간중 북한은 UNDP와 전기기계측정시험소설치, 토양·식물체 분석시험소 강화등 총17건의 계획에 합의하였으며 UNIDO와는 북한의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총 464.9만달러 상당의 경제지원을 받았음.

- 제3차7개년계획기간 중에는 외국과의 통상교류를 발전시켜 교역 규모를 3.2배로 증대시키겠다는 목표하에 다음과 같은 세부방침을 제시하였음.

〈수출품 생산〉

- 현대적 공작기계, 중량화차, 선박, 전기기계, 농기계 등 기계설비들의 수출을 늘일 것.
- 유색금속, 마그네샤크링카, 시멘트 및 중공업 제품들의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이며, 유색금속 및 마그네샤크링카의 수출에서는 가공품의 비중을 결정적으로 늘일 것.
- 피복가공제품, 도자기류, 유리제품, 범랑칠기, 수지일용품 등 경공업 제품 수출을 늘일 것.

〈국가·지방 무역〉

- 국가무역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방무역·변경무역을 활발히 벌여 지방경제를 발전시킬 것.
- 수출품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공장·직장을 널리 조직하고 수출품 생산기지를 조성하며, 해운·철도·항공운수를 적극 발전시켜 수출품 수송을 원만히 보장할 것.

〈합영·합작·대외경제협력〉

- 기간중 기계공업과 전자공업, 자동화 공업을 비롯한 여러 공업분야와 풍부한 부존자원을 이용하는데 외국과의 합영·합작을 널리 발전시킬 것.
- 대외경제사업에서 사회주의 시장을 계속 중시하고 기간중 사회주의 제국과의 무역과 합영·합작·기술협조사업을 폭넓게 발전시킬 것.
- 비동맹국, 개발도상국들과 대외경제관계를 적극 발전시켜 나가

고 농업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합영 및 기타 형태의 협조를 적극 발전시켜 나갈 것.

- 북한에 우호적인 자본주의국가들과도 평등·호혜의 원칙에서 경제관계를 널리 발전시킬 것.
- 세계각국과 무역·경제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신용제일주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외국과 맺은 경제협정들을 어김없이 이행하여야 함.

(2) 교역여건

- 북한은 전통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들과 우호가격에 의한 정부간 청산결제방식의 교역을 해왔으나 구소련, 동구제국 등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로 말미암아 국제경쟁력이 약한 북한으로서는 수출이 어려워지는 대신 수입부담은 커지는 등 교역조건이 악화되었음.
 - '91년부터 러시아와 국제시장가격에 의한 경화결제방식 채택
 - '92년부터 중국으로부터도 경화결제방식 채택 압력
 - 이에 따라 '91년부터 교역규모는 종전의 절반수준으로 격감
- 시장구조면에서 볼 때 북한교역 총액의 50~70%는 중국, 일본 및 러시아에 편중되는 등 시장구조상의 취약점을 보이고 있음.
- 수출상품구조는 조총련계 합영기업을 주축으로 임가공 생산하는 봉제의류 등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공산품들이 품질면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기술부족·산업생산력의 한계로 수출상품의 종류가 극히 제한받고 있음.
- 수입상품구조는 원유, 곡물, 코크스탄 등 주요 전략물자의 수입이 중국에 편중되어 있음.
 - '93년기준 상기 물품의 대중국 수입의존도는 원유 77.2%, 곡물

67.9%, 코크스 78.9% 등임.

- 또한 북한의 무역관련 기업소(무역상사 포함)들의 낮은 신용도, 중앙통제 경제체제에 기인한 기업소 자체의 해외 마케팅 능력 부족,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경험부족 등이 약점으로 되고 있음.

(3) 무역실적

(가) 교역규모

- 제3차 7개년계획기간의 종료연도인 '93년도의 무역총액은 26.4억달러로서 동구 사회주의권 체제변화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89년 이후 5년 연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91년에는 종래 최대교역 대상국이었던 러시아와의 경화결제 실시의 여파로 교역규모가 전년비 -41.4%로 급감하였으며, 러시아에 크게 의존하였던 원유, 코크스 등의 공급이 원활치 못해 심각한 에너지부족 현상을 가져왔음.

〈표 34〉 기간중 교역규모 추이

(단위 : 억달러, %)

구 분	'87년	'88년	'89년	'90년	'91년	'92년	'93년
무역총액	41.4	52.4	48.0	47.2	27.2	26.6	26.4
증감률	16.0	26.6	△8.4	△1.7	△42.4	△2.2	△0.8
(수출)	(16.4)	(20.3)	(19.1)	(19.6)	(10.1)	(10.3)	(10.2)
(수입)	(25.0)	(32.1)	(28.9)	(27.6)	(17.1)	(16.3)	(16.2)

- 한편 북한은 제3차 7개년계획기간 교역증대목표(교역규모 3.2배 증대)에 대해 연평균 52.5%에 불과한 계획수행실적을 보였음.

〈표 35〉

연도별 교역실적

(단위 : 억달러, %)

구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누계
계 획	—	42.2	49.8	58.8	69.4	81.9	96.7	114.2	513.0
실 적	35.7	41.4	52.4	48.0	47.2	27.2	26.6	26.4	269.2
수행률	—	98.1	105.2	81.6	68.0	33.2	27.5	23.1	5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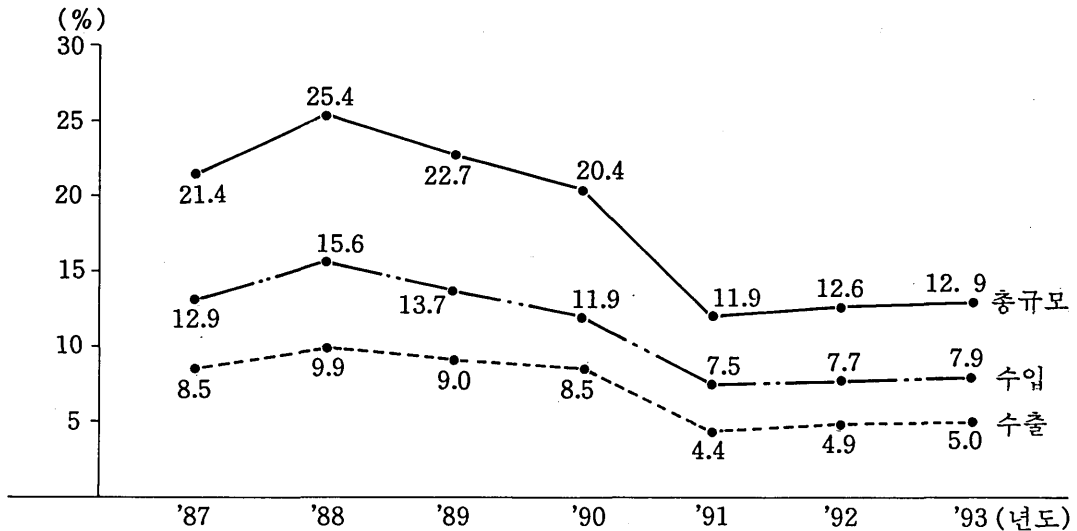
주 : 계획된 북한의 교역규모는 연평균 목표 증가율을 적용·산출

(나) 무역의존도

- 제 3 차 7개년계획기간중 북한의 무역의존도를 보면 연평균 무역의존도는 18.2%로서 제2차 7개년계획기간('78~'84년)의 연평균 무역의존도 21.4%보다 3.2%포인트 감소되었음.
- 이와 같이 무역의존도가 낮아진 것은 '90년대들어 구소련 및 동구제국의 붕괴를 계기로 종래의 무역패턴이 크게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적절히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북한의 대외거래가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임.

〈그림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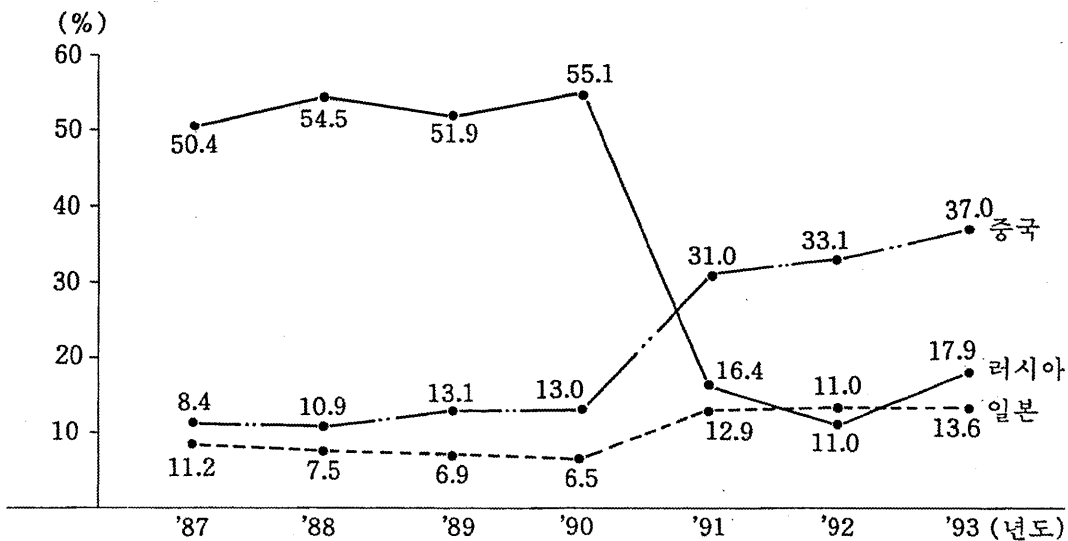
무역 의존도



(다) 시장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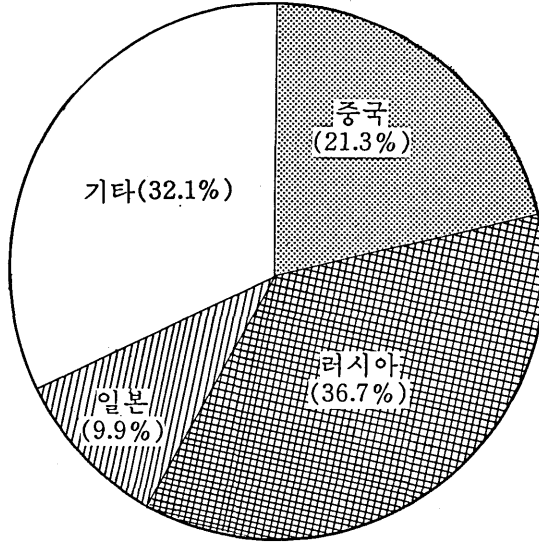
- 북한의 교역대상국은 80여개국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간중 중국, 일본, 러시아 등 3개 국가와의 교역비중이 전체의 52.9~74.8% (평균 66.5%)까지 차지하고 있어 이들 3개국에 심한 무역 편중 현상을 보여왔음.
- 국가별로는 러시아와의 교역이 기간중 전체 교역규모에서 점유하고 있는 비중이 평균 34.3%로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중국(18.4%), 일본(13.8%)이 각각 2, 3위를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91년부터 러시아와의 교역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러시아를 대신하여 중국이 제1위 교역국으로 부상하였음.
- 기간중 북한의 최대 수출대상국은 러시아로서 연평균 수출비중이 30.4%를 차지하였으며, 일본(연평균 19.8%), 중국(연평균 13.7%)이 각각 2, 3위의 수출대상국이었음.
- 기간중 북한의 수입대상국으로는 러시아가 연평균 수입비중 36.7%로서 중국(연평균 21.3%), 일본(연평균 9.9%)을 제치고 제1위의 수입대상국이었음.

〈그림 19〉 주요 국가의 수입구성



〈그림 20〉

'87~'93 기간중 국가별 평균 수입·구성



〈중 국〉

- 북한-중국간의 교역은 '91년이래 중국측의 거둬들인 경화결제방식으로의 전환 시도에도 불구하고 구상무역 형태가 주종을 이루고 있음.
 - 즉, 경화결제방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경화부족으로 북한측의 결제 지연 등 실무상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자 중국측은 다시 바터교역 방식을 용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기간중 중국과의 교역규모는 '89년까지 5억달러 내외를 유지해 왔으나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이 심화된 '91년부터 교역규모가 증가추세를 보여 북한의 최대교역 대상국이 되었으며 '93년에는 9억달러의 교역실적을 기록하였음.
- 한편 북한·중국간 교역에서 북한의 대중국 무역수지가 기간중 매년 적자를 나타냈으며, 특히 '91년이래 적자폭이 3~4억달러로 커졌는 바,
 - 이러한 적자폭의 확대는 북한·중국간 결제방식이 주로 구상무역 방식에 의존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북한측의 대중국 미지급금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표 36〉

대중국 교역동향

(단위 : 억달러, %)

연도	구분	총교역규모		북한의 수출		북한의 수입		무역수지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1987		5.2	△ 5.5	2.4	△17.2	2.8	7.7	△0.4
1988		5.8	11.5	2.3	△ 4.2	3.5	25.0	△1.2
1989		5.7	△ 1.7	1.9	△17.4	3.8	8.6	△1.9
1990		4.8	△15.8	1.2	△36.8	3.6	△5.3	△2.4
1991		6.1	27.1	0.9	△25.0	5.2	44.4	△4.3
1992		7.0	14.8	1.6	77.8	5.4	3.8	△3.8
1993		9.0	28.6	3.0	87.5	6.0	11.1	△3.0

- 북한의 중국으로부터의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 곡물, 코크스 등 전략물자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 '93년의 경우 원유는 북한의 총원유수입량의 77.2%, 곡물은 총곡물도입량의 68%를 점유함으로써 중국은 북한이 체제유지에 필요한 이들 전략물자의 최대 도입원이 되고 있음.
-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철강, 시멘트 등 건축용 자재를 비롯해서 수산물 등이 주도하고 있으며
- 한편 북한·중국 정부간 협정무역의 보조수단으로 변경무역이 정책적으로 장려되고 있는 바, 변경무역은 중국 동북부지역과 북한간의 상호 보완적인 상품교류를 통해 양측의 지방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북한·중국간에 주요한 교역방식으로 자리잡고 있음.
 - 특히 중국 길림성, 요령성, 흑룡강성 등과의 변경무역이 중국

과 의 총교역의 근 80%에 이르고 변경무역을 통한 중개무역도 활발히 전개되었음.

〈일 본〉

- 일본은 '91년이래 북한의 제2위 교역상대국이 되었으며, 북한이 구소련 등 동구사회주의권의 붕괴로 해외시장 기반을 상실하게 되자, 북한의 무역·경제교류 대상국으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 졌음.
- 그러나 약 800억엔에 달하는 북한의 대일본 채무불이행과 핵사찰문제로 인한 정세불안 등이 양국간 거래에 큰 걸림돌로 작용함으로써 일본 기업들은 북한과의 교역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북한-일본간의 거래는 대부분 조총련계 기업을 주축으로 대북 소규모 합영사업과 임가공 무역위주의 소위 『조·조 무역』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 특히 섬유제품 임가공무역이 북한-일본간 교역을 주도하고 있는데, 북한의 풍부한 저임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임가공교역은 북한의 주요한 외화가득원이 되고 있음.
- 기간중 일본과의 교역규모는 4.5억달러에서 5.6억달러의 범위내에서 큰 변동폭 없이 유지되어 왔으나 '89년부터 교역규모가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 북한의 대일수출규모가 '91년부터 매년 감소됨에 따라 북한측의 무역수지 흑자폭이 '90년을 고비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특징임.

〈표 37〉

대일본 교역동향

(단위 : 억달러, %)

연도	구분	총교역규모		북한의 수출		북한의 수입		무역수지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1987		4.5	28.6	2.4	41.2	2.1	16.7	0.3
1988		5.6	24.4	3.2	33.3	2.4	14.3	0.8
1989		5.0	△10.7	3.0	△6.3	2.0	△16.7	1.0
1990		4.8	△4.0	3.0	-	1.8	△10.0	1.2
1991		5.0	△4.2	2.8	△6.7	2.2	22.2	0.6
1992		4.8	△4.0	2.6	△7.1	2.2	-	0.4
1993		4.7	△2.1	2.5	△3.8	2.2	-	0.3

- 기간중 북한의 대일본 주요 수입품목은 기계·장비, 섬유, 화학제품 등 공산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 '93년의 경우 상기품목들이 대일수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6.4%임.
- 기간중 북한이 일본에 대한 수출한 품목들은 주로 송이버섯, 수산물 등 식품류와 섬유·금속제품 등의 공산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 이들 품목이 '93년 대일수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식품류(30.7%), 섬유(36.9%), 금속제품(11.4%) 등 79%에 달함.
 - 특히 합영기업 또는 임가공형태로 제조·수출하는 섬유(봉제 의류)의 규모가 '91년 3,971달러, '92년 6,641만달러, '93년 9,303만달러로 큰폭의 성장률을 보였음.

〈러시아〉

- 러시아는 '90년까지 북한 총교역규모의 근 50% 내외에 달하는 북한 최대의 교역상대국이었을 뿐 아니라 북한의 경제건설지원 및 원유·코크스 등 전략물자의 유력한 공급원이기도 하였음.
- 러·북한간 무역결제방식은 '90년까지 우호가격을 기준으로한 청산결제방식이었음.
- 그러나 '91년부터 북한·러시아간 교역의 결제방법이 국제시장 가격에 기준한 경화결제로 전환됨으로써 북한-러시아간 거래가 급격히 위축되었음.

〈표 38〉

대러시아 교역동향

(단위 : 억달러, %)

연도	구분	총교역규모		북한의 수출		북한의 수입		무역수지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1987		19.4	14.8	6.8	7.9	12.6	18.9	△5.8
1988		26.4	36.1	8.9	30.9	17.5	38.9	△8.6
1989		23.9	△9.5	8.9	-	15.0	△14.3	△6.1
1990		25.7	7.5	10.5	18.0	15.2	1.3	△4.7
1991		4.6	△82.1	1.8	△82.9	2.8	△81.6	△1.0
1992		3.2	△30.4	0.7	△61.1	2.5	△10.7	△1.8
1993		3.5	9.4	0.5	△28.6	3.0	20.0	△2.5

* '87~'91년은 소련, '92~'93년은 CIS

(라) 상품구조

〈수출상품〉

- '93년 북한의 주요 수출상품중 가장 수출비중이 높았던 상품은 철강 및 철강제품, 아연괴 등 卑金屬製品으로서 총수출규모의 31.3%를 점유하였으며, 대부분 임가공 제품인 섬유제품이 21.4%로 2위, 광물, 수산물이 각각 8.3%, 7.5%로 3, 4위를 차지하였음.
- 특히 철강은 '92, '93년중 대일본 수출규모가 각각 전년비 10.6%, 17.5%로 급감하고 대중국 수출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하였는 바, 이는 특히 중국 동북3성의 건설수요증가에 힘입어 철강, 시멘트 등 전자재 수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북한의 대중국 수출 철강중에는 중개무역으로 거래한 러시아 산철강도 일부 포함되어 있음
- 한편 '87년 조총련계 모란봉주식회사와의 합영기업인 모란봉합영 회사의 설립을 계기로 신사복 등 섬유류, 임가공제품이 북한의 주종 수출상품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대상국가도 종래의 일본 위주에서 독일 등 유럽지역 국가들로 확대되고 있음.
- 그 밖에 '93년중 승용차를 중심으로 한 차량의 수출증가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는 바, 이는 일본으로부터 중고승용차를 구입하여 제3국으로 판매하는 이른바 『되거리무역』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 '93년중 대일 승용차 수입은 전년비 424% 증가

〈수입상품〉

- '93년도 북한의 수입상품중 가장 비중이 큰 품목은 원유 및 석유 제품, 코크스탄 등 에너지자원을 중심으로 한 광물성 생산품

이었으며, 임가공을 위한 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이 2위, 卑金屬과 그 제품이 3위, 기계류가 4위, 식량은 전년비 38% 증가하였으나 제5위에 머물렀음.

나. 남북한 교역

(1) 개 황

- '88년 7월의 『7.7 특별선언』 및 동년 10월의 남북한 물자교역지침 등 대북 경제개방조치 이후 '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으로써, 본격적인 남북교역 추진을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음.
- 이에 따라 남북교역은 승인기준으로 볼 때, '89년과 '90년의 2천만 달러대에서 '91년 1억 9천만달러로 급증한 이후 '92년에는 2억 1천 만달러, '93년에는 2억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또한 통관기준으로는 '89년 '90년의 1천만달러대에서 '91년 1억 1천만달러, '92년 1억 7천만달러, '93년 1억 9천만달러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남북교역규모는 약 26억달러 내외로 평가되는 북한의 대외 무역 규모에서 중국, 일본, 러시아에 이어 4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결코 적지않은 규모임.
- 그러나 '91년이후 교역규모가 연간 2억달러 수준에서 정체되고 그것도 대부분 반입위주의 간접교역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 이는 근본적으로 그간의 남북교역이 우리정부의 일방적인 선언과 조치로 진행되어 왔으며, 이에 상응하는 북한측의 공식적인 조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기인한 것임.

- '93년에는 북한의 교역대상물자 및 결제능력 부족 등 북한 경제난의 심화와, 북한 핵문제 장기화에 따른 전반적인 남북관계 경색 및 남북간 교역제도의 미비 등이 남북교역의 활성화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한편, '93년에는 섬유류를 중심으로 한 위탁가공교역이 '92년 대비 7배이상 대폭 증가함으로써 앞으로 남북교역에서 위탁가공 교역의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었으며, 철강금속류와 의류의 반입 비중이 높아지고 화학제품의 반출비중이 낮아지는 등 교역구조상의 변화가 있었으나, 대부분의 교역이 간접교역형태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는 지난해와 다름이 없음.

(2) 교역현황

〈교역규모〉

- '88년의 대북 경제개방조치 이래 '93년까지의 교역 승인총액은 652,891천달러이며, 통관총액은 503,475천달러임.
- '93년의 교역 승인규모는 반입 188,528천달러, 반출 10,262천달러, 합계 198,790천달러임.
 - '92년 대비 반입·반출이 각각 6.1%, 19.9%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6.9% 감소하였음.
- '93년의 통관실적은 반입 178,166천달러, 반출 8,425천달러, 합계 186,591천달러임.
 - '92년대비 반입은 9.4% 증가하였으나 반출은 20.2%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4.5% 증가하였음.

〈표 39〉

연도별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연도	반 입		반 출		계	
	승 인	통 관	승 인	통 관	승 인	통 관
'88	4/ 1,037				4/ 1,037	
'89	57/ 22,235	66/ 18,655	1/ 69	1/ 69	58/ 22,304	67/ 18,724
'90	75/ 20,354	78/ 12,278	4/ 4,731	4/ 1,187	79/ 25,085	82/ 13,465
'91	328/ 165,996	300/ 105,722	40/ 26,176	23/ 5,547	368/ 192,172	323/ 111,269
'92	365/ 200,685	510/ 162,863	42/ 12,818	63/ 10,563	407/ 213,503	573/ 173,426
'93	478/ 188,528	601/ 178,166	76/ 10,262	97/ 8,425	554/ 198,790	698/ 186,591
計	1,307/ 598,835	1,555/ 477,684	163/ 54,056	188/ 25,791	1,470/ 652,891	1,743/ 503,475

〈교역수지〉

- 통관기준으로 반출입수지는 남북교역의 특성상 계속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93년에는 169,741천달러를 기록, '89년 이후 적자누계는 451,893천달러임.

〈표 40〉

남북한 교역수지

(단위 : 천달러)

연 도	반입통관액	반출통관액	수 지
1989	18,655	69	△ 18,586
1990	12,278	1,187	△ 11,091
1991	105,722	5,547	△100,175
1992	162,863	10,563	△152,300
1993	178,166	8,425	△169,741
계	477,684	25,791	△451,893

〈교역 승인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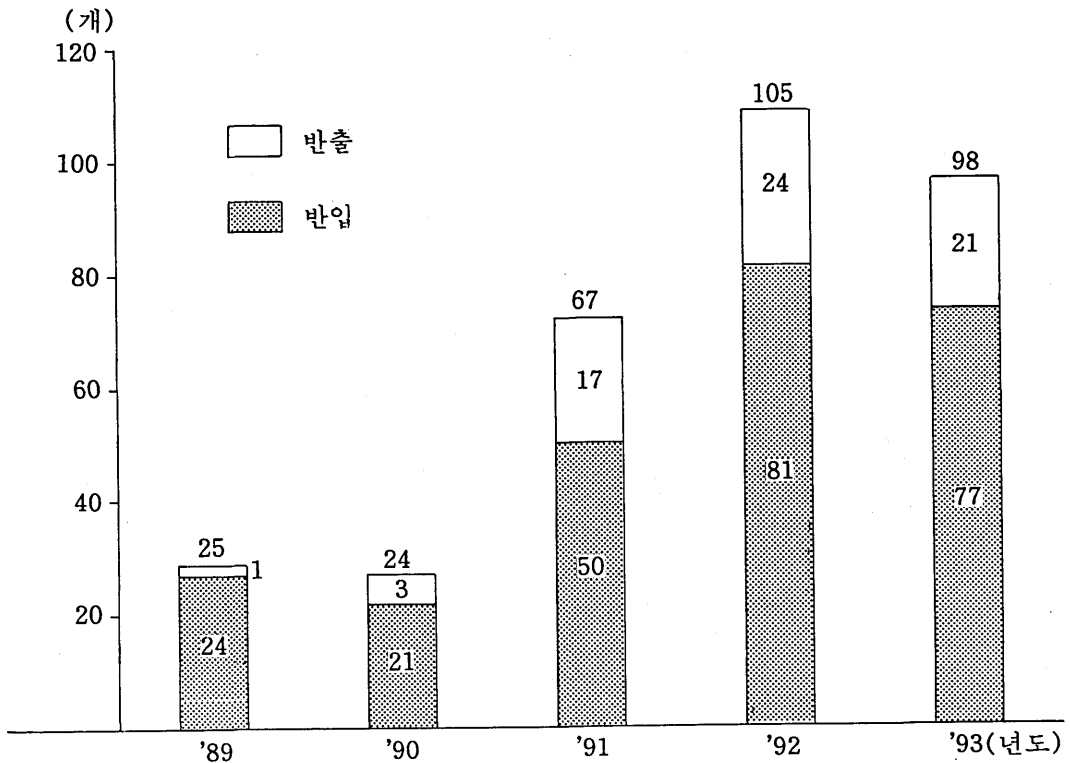
- '93년의 반입승인기관별 승인액은 제한승인이 9,804천달러로 5.2%, 자동승인이 178,724천달러로 94.8%를 나타내, '90년 이후 자동승인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음.
- 반출 승인기관별 승인액은 제한승인이 1,723천달러로 16.8%, 자동승인이 8,539천달러로 83.2%를 기록하여, 자동승인 비율이 '92년의 88.0%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음.

〈교역품목 : 통관기준〉

- '93년도 교역품목수는 반입이 77개품목, 반출이 21개품목, 도합 98개품목으로 '92년에 비해 7개 품목이 줄었음.

〈그림 21〉

반출입 통관품목수



- '93년도 반입통관 품목구조는 철강금속이 86.6%, 농산물 5.4%, 섬유류 5.0%, 광산물 0.8%, 화학제품 0.4%, 수산물 0.5%, 기타 1.3% 임.
- 철강금속류의 비율이 '92년 77.0%보다 9.6% 포인트 증가한 86.6%이고, 섬유류가 2.3%에서 5.0%로 증가하였음.
- 그러나 광산물, 수산물, 농산물은 각각 8.9%, 3.1%, 6.4%에서 0.8%, 0.5%, 5.4%로 하락하였음.
- 반출통관 품목구조는 섬유류가 74.5%, 화학제품 13.0%, 전기·전자제품 5.5%, 철강류 0.5%, 농수산물 0.1%, 기타 6.6% 등임.
- 섬유류의 비율이 위탁가공교역에 힘입어 '92년 4.7%에서 74.5%로 급증한 반면, '92년 주요 반출품목인 화학제품이 75.1%에서 13.0%로, 철강재가 18.5%에서 0.5%로 대폭 감소하였고, 지난해에는 없었던 전기·전자제품이 5.5% 반출되었으며, 농수산물은 감소, 기계류의 반출은 없었음.

〈표 41〉

연도별 반입통관 품목구조

(단위 : 천달러)

연도	농산물	수산물	광산물	철강· 금속	섬유류	화 학 제 품	기 타	계
'89	414 (2.2)	174 (0.9)	1,094 (5.9)	15,073 (80.8)	1,311 (7.0)		589 (3.2)	18,655 (100)
'90	4,931 (40.1)	392 (3.2)	1,599 (13.0)	4,529 (36.9)	204 (1.7)		623 (5.1)	12,278 (100)
'91	4,600 (4.3)	3,053 (2.9)	6,619 (6.3)	86,046 (81.4)	1,588 (1.5)	1,672 (1.6)	2,144 (2.0)	105,722 (100)
'92	10,435 (6.4)	5,085 (3.1)	14,579 (8.9)	125,416 (77.0)	3,683 (2.3)	1,248 (0.8)	2,417 (1.5)	162,863 (100)
'93	9,674 (5.4)	878 (0.5)	1,371 (0.8)	154,263 (86.6)	8,945 (5.0)	663 (0.4)	2,372 (1.3)	178,166 (100)
계	30,054 (6.3)	9,582 (2.0)	25,262 (5.3)	385,327 (80.7)	15,731 (3.3)	3,583 (0.7)	8,145 (1.7)	477,684 (100)

주 : ()안은 총액 대비, CIF 가격 기준임.

<표 42>

연도별 반출통관 품목구조

(단위 : 천달러)

연도	농수산물	섬유류	전기·전자제품	기계류	화학제품	철강재	기타	계
'89		69						69
'90				1,094 (92.2)	83 (7.0)		10 (0.8)	1,187 (100)
'91	1,607 (29.0)	25 (0.5)		447 (8.1)		3,468 (62.5)		5,547 (100)
'92	64 (0.6)	496 (4.7)		22 (0.2)	7,932 (75.1)	1,957 (18.5)	92 (0.9)	10,563 (100)
'93	6 (0.1)	6,274 (74.5)	463 (5.5)		1,096 (13.0)	34 (0.5)	552 (6.6)	8,425 (100)
계	1,677 (6.5)	6,864 (26.6)	910 (3.5)	1,116 (4.3)	12,579 (48.8)	1,991 (7.7)	654 (2.6)	25,791 (100)

주 : ()안은 총액 비교, FOB 가격 기준임.

- 주요 개별품목별 반입 통관실적은 금괴가 반입 통관총액의 44.1%인 78,657천달러, 아연괴가 29.6%인 52,780천달러, 빌레트가 7.1%인 12,688천달러, 은괴가 4.5%인 8,096천달러로 이들 4개 품목이 반입 통관 총액의 85.3%를 차지하였음.
- 통관총액이 1백만달러 이상인 품목은 철강·금속류 5개품목, 농임산물 3개품목, 섬유류 3개품목, 주류 등 12개품목으로서, '92년도 통관액 1백만달러 이상 품목 16개품목보다 4개품목이 줄었음.
- 품목별 반출 통관실적은 테트론솜이 37.8%인 3,184천달러, 면직물 등 직물류가 17.6%인 1,483천달러, 재봉사 등 의류부속품이

16.5%인 1,392천달러로 이들 섬유류 3개품목만이 1백만달러 이상 반출 통관되었음.

〈표 43〉 연도별 주요 반입통관 품목

(단위 : 천달러)

1991			1992			1993		
품 목	수 량	금 액	품 목	수 량	금 액	품 목	수 량	금 액
아 연 괴	43,640 t	47,047	아 연 괴	46,181 t	59,309	금 괴	6,930kg	78,657
금 괴	1,515kg	17,537	금 괴	3,472kg	37,193	아 연 괴	55,377 t	52,780
열연코일	28,943 t	9,136	빌 레 트	68,619 t	16,849	빌 레 트	50,202 t	12,688
빌 레 트	29,711 t	7,608	시 멘 트	211,451 t	11,618	은 괴	59,191kg	8,096
시 멘 트	64,067 t	3,394	한 약 재	1,684 t	4,563	호 두	2,145 t	3,627
무 연 탄	69,324 t	2,779	은 괴	30,268	3,872	남성자켓	19,545dz	2,242
한 약 재	621 t	2,593	열연코일	12,969 t	3,654	한 약 재	744 t	2,009
냉동명태	4,239 t	1,718	냉동명태	7,514 t	2,826	면 타 월	2,657천dz	1,654
생 사	47 t	1,588	무 연 탄	62,824 t	2,514	건고사리	424 t	1,653
연 괴	2,548 t	1,466	선 철	18,078 t	2,164	남자바지	20,600 t	1,561
은 괴	8,693kg	1,204	감 자	6,257 t	1,882	열연코일	5,002 t	1,348
기 타		9,652	호 두	1,008 t	1,780	주 류	915,627병	1,193
			연 괴	2,853 t	1,756	기 타		10,658
			남성용자켓	252,420pcs	1,616			
			냉장명태	1,266 t	1,393			
			염화비닐수지	2,155 t	1,099			
			기 타		8,775			
계		105,722	계		162,863	계		178,166

주 : 금액 1백만달러 이상 품목을 대상으로 작성

<표 44>

연도별 주요 반출통관 품목

(단위 : 천달러)

1991			1992			1993		
품 목	수 량	금액	품 목	수 량	금액	품 목	수 량	금액
쌀	5,000 t	1,607	LDPE	5,854 t	5,132	테 트 론 솜	3,100 t	3,184
고유황디젤유	3,970 t	1,392	냉 연 강 판	5,034 t	1,957	직 물 류	694,894	1,483
플라스틱가소제	1,200 t	1,137	폴리에틸렌필름	730 t	1,226	의 류 부 속 품	sm	1,392
칼 라 TV	2,130대	427	폴리에틸렌수지	1,200 t	837	매 탄 울	-	783
폴리에틸렌필름	200 t	250	직 물	516 t	260	칼 라 TV	5,560 t	463
LDPE	300 t	216	담 배 필 터	43 t	242	LDPE	1,000대	313
PS 수 지	196 t	161	플라스틱가소제	193 t	183	알 미늄 은 박 지	250 t	225
HDPE	200 t	146	폴리프로필렌수지	200 t	130	세 탁 비 누	100 t	124
고무가황촉진제	20 t	56	종 이 (한 지)	134 t	128	설 탕	408 t	63
아 크 릴 수 지	24 t	44	자켓원부자재	21종	96	오 리 털 지 퍼	200 t	49
담 배 종 이	20 t	40	신 발 갑 피	2,086kg	80	아 크 릴 사	4,366kg	44
냉 장 고	100대	20	폴리에스터직물	7,291 t	42	남 자 정 장	6,786gs	38
기 타		51	남 성 용 정 장	996벌	37	스 테 인 레 스 강	81 t	37
			여성의류(7종)	3,589PCS	30	레 이 블	83dz	34
			남성의류(8종)	9,488PCS	28	기 타	20 t	25
			고유가촉진제	10 t	27		3,260kg	168
			진 공 포 장 기	2세트	22			
			LDPE(포 장 용)	249,200PCS	20			
			기 타		22			
계		5,547	계		10,499	계		8,425

주 : 금액 2만달러 이상 품목을 대상으로 작성

〈교역업체〉

- '93년 남북교역 참여업체는 130개 업체로서, 지난해에 비해 10개 업체가 증가하였음.
- 개별업체별 반입 승인액은 삼성물산이 59,570천달러, 럭키금성상사가 35,454천달러, (주)대우가 21,805천달러, 서린금속이 21,097천달러이며, 그뒤로 한국제강, 현대종합상사, (주)선경, (주)쌍용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승인액 1천만달러 이상 업체가 삼성물산 등 4개업체로 이들 업체의 승인액이 총 반입 승인액의 73.2%를 차지함.
 - '88년이후 누계가 5백만달러 이상인 업체는 14개업체로 농수산물 유통공사와 코오롱상사가 새로이 진입함.
- 업체별 반출 승인액은 삼성물산 2,961천달러, (주)선경 2,020천달러, (주)대우 1,518천달러, 럭키금성상사가 823천달러임.
 - '88년이후 누계가 1백만달러 이상인 업체는 10개업체로 (주)선경 과 (주)대우가 새로이 진입하였음.

〈교역방식〉

- '93년에도 해외중개상을 통한 순수한 형태의 간접교역과 국내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에서 북한측 당사자와 직접 협의하되 계약 및 대금결제는 해외중개상을 통하는 간접교역방식이 전체 남북교역의 98.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남북교역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직교역은 '92년 3,287천달러에 비해 '93년에는 3,447천달러로 소폭 증가하였음.
- 위탁가공교역은 의류를 중심으로 '92년 556천달러에서 '93년 4,385천달러로 7배이상 증가하였으며, 전체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92년 0.26%에서 '93년 2.2%로 증가하였음.

〈교역중개지〉

- 반입 중개지로는 홍콩이 전체 478건의 74.5%인 356건을 중개, 꾸준히 남북교역의 주요 중개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일본이 14.4%인 69건, 중국이 5.7%인 27건, 싱가포르가 1.5%인 7건임.
 - '93년 남북간 직교역은 14건이 성사되었으며, '92년 11건에 비해 3건 증가하였음.
- 반출 중개지 또한 홍콩이 60건으로 전체 반출 승인건수의 7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 7건, 중국 3건, 싱가포르 4건, 기타 2건임.

2. 대외경제협력

가. 대외경제협력관련 법·제도의 정비

(1) 개 황

- 북한은 '84.9 합영법 제정이후 외채상환 부담이 없는 외국과의 합영 및 합작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으나 북한당국이 기대했던 성과가 없었음.
- 이에 따라 북한은 그동안 부정적 입장을 고수해 왔던 중국식의 『경제특구』방식을 도입키로 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91. 12. 28 함경북도 나진-선봉지역의 621km²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하였음.
- 이후 북한은 기제정된 『합영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서방의 선진자본과 기술유치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령정비 작업에 주력하였음.
 - 계획기간중 총 13건의 외자유치관련 법령을 제정·정비

- 이러한 법령의 정비는 3차 7개년계획에서 목표로 제시된것은 아니지만 외국투자유치를 위한 사전 준비임을 감안할 때,
 - 동 계획기간 후반기에 북한당국이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대외경제협력 또는 경제개방이 불가피성을 내부적으로 인식한데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음.

〈표 45〉 계획기간중 외국투자유치관련 법령정비 현황

시 기	제 정 법 령	비 고
92. 10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합영법시행세칙	개 정
93. 1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외화관리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	
	합영회사 재정부기계산 규정세칙	시기미상
93. 10	토지임대법	
93. 11	외국투자은행법	
	자유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출입규정	
93. 12	외국투자기업 노동규정	
	세관법	개 정

(2) 각 법령의 주요내용

〈외국인투자법〉

- 동법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창설·운영에 관한 일반원칙과 질서를

포괄적으로 규제함으로써 합병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의 기본 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

- 투자기업의 형태는 합병기업, 합작기업, 외국인기업으로 구분하며, 그 구체적 법 적용은 합병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에서 정하고 있음.
 - 합병기업은 투자 양측이 공동으로 투자·운영, 지분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임.
 - 합작기업은 투자 양측이 공동으로 투자하나 북한측이 운영하며, 투자의 상환 또는 이윤배분은 계약에 의하는 기업임.
 - 외국인기업은 외국투자가가 단독으로 투자·경영하는 기업임.
- 합병기업과 합작기업은 북한 전지역에서 설립이 가능하나, 외국인기업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만 설립이 가능함.
 - “공화국 영역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들도 이 법에 따라 투자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남한기업에 대한 투자문호를 개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합작법〉

- 합작법은 『외국인투자법』의 부수법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외국인 투자법에 정의된 합작기업의 합작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그 주요내용은 사업대상, 합작기업의 설립절차 및 운영, 투자에 대한 상환·이윤분배·송금, 경영활동, 합작사업의 종료 등에 관한 것임.
- 그 특징으로서는 북한식 『합작』의 개념대로 외국투자가는 경영에 개입할 수 없고, 합작제품에 의한 이윤분배나 투자자금의 상환을 받을 수 있을 뿐이나

- 『외국투자기업 노동규정』('93.12 제정)에서는 인력의 채용·해고, 최저임금 문제 등에 관해서 합작기업도 외국투자기업으로 간주하고 있음.

〈외국인기업법〉

- 외국인기업법은 합작법, 합영법과 함께 『외국인투자법』의 부수 법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외국인투자법에 정의된 외국인기업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그 주요내용은 외국투자자가 100% 투자하는 외국인기업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설립절차, 경영활동, 해산과 분쟁해결 문제 등에 관한 것임.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 동법은 외국투자관련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재산세 등 각종 세법을 하나로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음.
- 북한이 외국투자 유치를 위해 세율을 중국보다 전반적으로 조금 낮게 책정함으로써 외국투자자들이 중국에 진출하는 것보다 다소 유리하도록 배려한 것이 특징임.
- 예를 들어 기업소득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중국이 33%인데 비해 북한은 25%이며,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중국이 15%인데 비해 북한은 14%임.

〈외화관리법〉

- 동법은 외화거래와 외화유가증권의 발행 및 그 반출입에 관한 원칙과 질서를 규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북한주민과 북한 영역내에서 외화를 사용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물론 북한 영역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들”에게도 적용됨.
- 외화, 유가증권, 귀금속 등의 반입이나 외국투자자가 기업운영에

서 얻은 이윤, 기타 소득금의 송금 및 자기자본 이전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자유경제무역지대법〉

- 동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창설과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여 대외 경제협력을 확대 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서도 북한의 주권이 행사되나 이 지대는 북한이 특별히 세운 제도와 질서에 따라 경제무역활동을 수행하는 지역으로 규정함으로써 시장기구가 기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이 지대는 『대외경제위원회』와 『지대당국』이 개발 및 관리운영의 책임을 지도록 하였으며, 외국투자가의 토지 임차가 가능하고 또한 일부 대중 소비품을 제외한 상품가격은 시장가격(판매자와 구매자간 합의)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토지임대법〉

- 동법은 생산수단의 국유화 원칙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범위내의 임대 방법을 통해 토지이용권을 재산권으로 인정하고 판매, 재양도, 증여 등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면에서는 중국의 관련법을 많이 원용하였으나
 - 토지이용권 양도시 북한당국이 우선구매권을 보유하고 있어 임차자가 임의로 양도할 수 없고, 양도받은 경우에도 당초 목적에 따라서만 이용토록 함으로써 토지이용권 양도에 상당한 제약을 두고 있음.

〈외국투자은행법〉

- 동법은 외국투자은행을 합병은행, 외국은행, 외국은행지점 등으

로 구분하고

- 외국은행이나 외국은행지점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만 설립 가능토록 했으며, 동 은행들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상의 우대 조치를 마련하고 있음.
- 자본금의 경우, 등록자본금은 최소 3,000만원이며, 외국은행 지점의 운영자금은 최소 800만원이상이어야 함.

〈외국투자기업 노동규정〉

- 동 규정은 '92년말부터 나진·선봉지역에 외국투자 유치를 위해 발표한 각종 법령들의 후속조치로서
 - 외국인기업법, 외국인투자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 등에 규정된 노동 관리규정·운영에 대한 시행세칙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 동 규정의 내용도 여타 외국투자유치 관련 법령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중외합자경영기업 노동관리규정』('80.7)과 『중외합자경영기업 노동관리규정 실시규칙』('84.1)을 혼합, 원용한 것임.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출입규정〉

- 동 규정은 '93.1월 발표된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의 시행령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외국인원 및 차량의 출입을 관리하기 위한 것임.
- 입국절차 개요
 - 여권 또는 여권대용증명서 소지 외국인(공화국 영역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 포함)의 경우
 - 직접 입국시 : 북한의 기관·기업소·단체, 외국인투자기업의 초청장 필요
 - 다른지역 경유시 : 일반 입국시와 같이 사증 필요
 - 관광증 소지시 : 자유로운 출입 가능

- * 관광증은 지대내 관광봉사기관·당국·재외공관에서 발급
- 북한주재 외교관, 무역대표부·국제기구대표부 직원의 경우
 - 북한당국 발행의 출입증과 자동차통행증 필요

○ 출국절차 개요

- 직접 출국시 : 사증없이 출국 가능
- 다른지역 경유시 : 지대당국 출입국사업부서에서 사증발급 필요

나. 합영·합작사업 추진실태

(1) 추진 경위

- 북한은 '60년대까지는 중·소를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의 경제지원과 주민소비 억제를 통한 내부자원 동원을 극대화하는 경제개발을 추진하였으나,
 - '61년의 제1차7개년계획은 중·소 이념분쟁 격화에 따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지원감소로 계획기간을 3년 연장하였으나 실패하였음.
- 이에 따라 6개년계획('71~'76)에서는 사회주의국가들의 경제지원 감소에 대응하여 서방선진국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자력갱생 노선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시도하였으나,
 - 이러한 노력도 서방으로부터의 차관도입 부진, '73년의 제1차 석유파동 및 북한의 주력 수출상품이었던 연·아연의 국제가격이 급락하자 외채가 누증되어 '75년부터는 외채상환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음.
- 이에 북한당국은 외채난을 해결하고, 경제난의 극복을 위해 '84

년에는 합병법을 제정하고 원리금상환 부담이 없는 합병방식으로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음.

- 그러나 계획기간중 북한의 합병실적은 정치·사회적 폐쇄성, 사회간접 자본시설의 낙후 등에 따른 서방기업의 투자기피로 인해 건수면, 투자 규모면에서 모두 부진하였음.
- 특히 '89년이후 동구 및 소련에서의 사회주의체제 붕괴로 주요 해외시장을 상실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합병실적 역시 부진하게 됨으로써 북한의 경제침체를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었음.
- '91년도 무역총액은 27.2억달러로 전년비 42.4% 감소되었으며, 경제성장률은 -5.2%로 전년도(-3.7%)보다 더욱 침체

(2) 합병·합작 실적

〈대내 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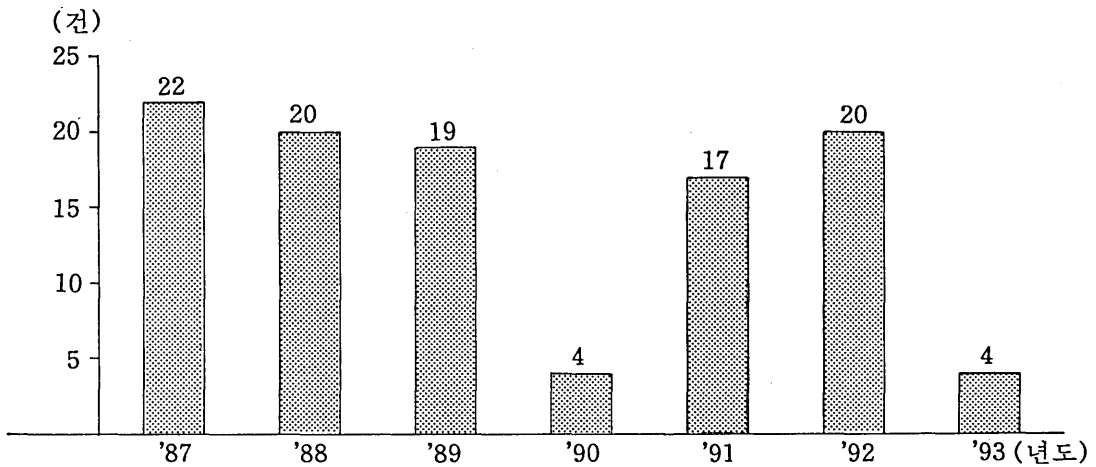
- '84년 합병법 제정이후 북한당국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에도 불구하고 하고 정치적 폐쇄성 및 사회간접시설, 에너지의 부족 등 투자여건의 미비로 실적은 부진한 편임.
- 중국의 경우는 홍콩, 대만의 화교자본이 초기에 대량 유입됨으로써 외국의 투자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나, 북한은 남한자본의 유치에 소극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남한기업의 대북투자 유인에 실패한 것이 외국투자유치 실적부진의 주요 원인중의 하나로 분석됨.
- '93.12월말까지 총 150여건의 합병사업을 유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정확한 합병회사의 수 및 합병사업 투자금액은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 유치된 합병사업 가운데도 계약은 이루어졌으나 실제 조업에

들어 가지 못하였거나 조업이 중단된 기업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계획기간중 합영실적은 총 106건으로 연평균 15건을 기록하였으며 '90년대들어 합영실적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 연평균 합영실적이 '87~'89년에는 20건이나 '90~'93년에는 11건에 불과

<그림 22>

계획기간중 합영실적



- 합영대상국은 일본, 특히 조총련계 상공인과의 합영이 대부분이며 업종별로는 경공업 및 서비스 분야가 58.5%, 농림수산업 11.3% 등을 차지, 투자규모가 작은 업종이 주종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와 같이 북한의 적극적 투자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영실적이 부진한 것은
 - 북한의 자립적 경제건설 노선이 투자여건의 미비 등으로 외국기업 진출시 채산성이 불투명한데다가 정치적 폐쇄성으로 서방기업이 감수해야 하는 위험부담이 매우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해외 경제진출〉

- 북한의 해외경제진출은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한 단순 인력의 진출, 제3세계국가들에 대한 농업기술지원, 식당업을 위주로 한 합작투자 사업 등으로 대별되고 있음.
- 투자금액, 투자업종, 투자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합작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상당한 내용이 알려지고 있는 바, 지리적으로 인접한 러시아 극동지역과 중국의 북경·연변지역이 주된 진출지역이 되고 있음.
 - 계획기간중 북한의 해외진출실적은 총 59건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러시아 29건, 중국이 14건으로 이들 양국에 대한 진출전수 비중이 전체의 72.9%를 점유
- 해외 인력진출은 주로 러시아와의 임업협력사업으로 추진중인 벌목공 진출과 중동과 러시아 극동지역 건설현장의 근로자 진출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다. 국제기구와의 경제협력

- UNDP는 '79. 11. 8 평양에 사무소를 설치한 이래 UNDP자금에 의한 대북 경제지원을 추진해 왔으며, 제 3 차 7개년계획 기간에는 국제기구중 북한의 최대 경제협력 상대였음.

〈표 46〉 UNDP의 대북한 자금지원 현황 (단위 : 천달러)

사업관련	'82~'86	'87~'91	'92~'96	계
금 액	16,550	17,330	21,742	55,622

- 특히 사회주의권 붕괴 및 북한핵문제 등으로 인해 외국과의 경제협력이 거의 단절된 상태에서 UNDP의 지원은 북한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왔음.

〈표 47〉 계획기간중 UNDP·북한간의 경제협력관련 합의내용

시 기	합 의 내 용
'88. 5. 18	북한의 남새육종 현대화를 위한 협조문건
'88. 5. 26	전기기계측정시험소 설치에 관한 협조와 향료공업발전을 위한 협조문건
'88. 9. 15	토양·식물체분석 시험소의 강화에 관한 협력문서
'88. 10. 7	과일생산 및 저장기술 개선을 위한 협조문건, 벼육종개선을 위한 협조문건
'88. 10. 26	변압기생산 현대화 대상을 위한 협조문건
'88. 11. 21	축산개발계획에 관한 협조
'89. 7. 13	피복디자인기술현대화 프로젝트에 관한 협력문서
'89. 8. 14	스테비아(식물의 일종)의 가공협력에 관한 문서
'90. 3. 29	평양전자계산기운영회사를 강화할데 대한 협력계획에 관한 문서 합의
'90. 8. 27	UNDP와 WHO의 협조로 기상위성수신소 준공
'90. 8. 29	협조대상들에 대한 합의서, 과학원 함흥분원의 화학실험 기구연구소를 현대화할데 관한 합의서
'91. 3. 28	건설설계의 전자계산기화를 실현하며 중앙위생방역소의 실험실들을 강화할데 대한 협조 문건
'91. 8. 14	북한 유엔개발계획사이에 강화대상에 관한 협조
'92. 3. 19	급전지령체계의 현대화 프로젝트에 관한 문서
'92. 4. 9	피복연구소 강화 대상에 관한 합의서
'93. 3. 25	안주채굴공학연구소와 관광개발에 관한 협력프로젝트에 관한 합의서
'93. 9. 8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공업소유권 체계의 현대화에 관한 문서

- 한편 UNIDO는 북한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계획기간중 북한의 기술개발 관련하여 총 464.9만달러 상당의 경제지원을 하였음.
- 그러나 연도별로는 '87년의 211만달러에서 점감추세를 보여 '92년에는 64만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3. 경제개방 정책 추진

가. 경제개방 추진 경위

- '84.9월 합영법 제정이후 '92.10월 『외국인기업법』을 제정하기까지는 법령상의 새로운 조치는 없었으나, '91.12.28 정무원 결정 74호를 통해 함경북도 나진·선봉일대 621km² 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포하고, 나진, 선봉, 청진 3개항을 자유무역항으로 지정 하였음.
- '93.3.12 『국토건설종합계획』을 입안, 정부에서 공식 승인하고
- '93.12월에는 자유경제무역지대의 면적을 746km²로 확대하였음.
- 또한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외국투자유치를 위한 기구로서 '92년에는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93년에는 경제개발총국을 설립하였음.
-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동 지대의 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해나가기 위한 모체기관으로서 개발계획과 관련한 대내외 기관과의 조정, 홍보, 투자유치 촉진활동을 담당하며
- 경제개발총국은 동 지대에서의 개별 투자안전에 대한 창구기관으로서 외국투자의 접수·심사 및 조정을 통해 투자안전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나. 나진-선봉지역 개발계획 추진동향

(1)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계획 개요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계획〉

- 개발목표 : 나진·선봉지역을 국제화물 중계기지, 제조업 가공수출 기지, 국제관광지로 조성
- 개발단계 : 1993~2010년간 3단계로 추진
 - 1단계(1993~1995) : 동 지역을 국제화물중계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정비
 - 2단계(1996~2000) : 국제화물중계기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수출주도형 제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 투자를 본격적으로 유치
 - 3단계(2001~2010) : 중계무역, 수출가공, 관광 및 금융 등 제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국제교류 거점도시로 육성
- 주요 사업내용
 - 인프라부문 개발은 항만, 철도 등 7개분야 23개 단위사업을 중점 추진(투자 소요액 : 33.3억 달러)
 - 공업부문 개발은 9개 공업단지(신흥, 동명, 창평, 청계, 후창, 백학, 관곡, 홍의, 웅상지구)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10개분야 68개 단위사업을 중점 추진(투자 소요액 : 36.6억 달러)
- 단계별 투자계획(총사업규모 : 69.9억달러)
 - 1단계 : 41.4억달러(인프라부문 12.9억달러, 공업부문 28.5억달러)
 - 2단계 : 11.3억달러(인프라부문 10.2억달러, 공업부문 1.1억달러)
 - 3단계 : 17.2억달러(인프라부문 10.2억달러, 공업부문 7.0억달러)

- 북한은 장기적으로 나진·선봉지역을 중국의 길림성, 러시아의 연해주와 연결되는 국제화물중계기지 및 제조업 가공수출기지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설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북한은 계획기간중 법령정비 작업을 통해 동 지대내에서 외국인 투자시 조세감면 등 각종 세제상의 특혜, 출입국시 무사증 제도를 적용하고 외국인 단독투자 기업의 설립도 허용하는 등 기존의 북한정책과는 달리 외자유치를 위한 여러 우대 조치를 강구하는데 주력하였음.
- 특히 북한은 경제개방의 관건으로 평가되는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 지대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외국자본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기본전략하에
 - 중국, 러시아 등 개별국가와의 쌍무적 협력방식과 UNDP, UNIDO 등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국제협력방식을 병행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기본적으로 공업부문에 대한 업종별 건당 평균 투자규모를 한국에 비해 7~17배 정도 크게 산출하는 등 과도한 의욕을 보이고 있어 투자규모를 현실성있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 또한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내자동원 내지 차관도입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합작·합영 등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므로 동 계획의 실현성 여부는 외자도입의 성공여부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으로 분석됨.

(2) 중국과의 경제협력동향

- 중국-북한간 경제협력문제는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장 : 김정우)와 중국의 길림성정부 산하『동북아철로 항구집단 유한공사』(총재 : 유백송)가 쌍방을 대표하여 공식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왔음.

- '93.3월 김정우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중국을 방문, 중국 측과 UNDP 두만강지역개발계획 추진 협조 및 두만강지역 철도·항만의 공동개발·이용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기로 합의 하였음.

(3) 러시아와의 경제협력동향

- 김정우 위원장은 '93.8.6~16간 모스크바를 방문하고 다음사항을 논의 하였음.
 - 북한-러시아간 민간차원의 무역협회 창설문제 협의
 - 나진항에 대한 러시아 민간기업의 투자 요청
 - 프라도코프 대외경제성 차관 면담, 투자보장·관세협력·이중과세 방지 협정 체결문제 논의
 - 모스크바 『Trading House』건립에 관여한 21개 민간기업 대표 면담, 대북한 투자 촉구 등
- 러시아기업들은 전통적으로 구소련의 물동량을 처리해 왔던 나진항의 경제적·지리적 유리함 때문에 나진항 진출에 대해 비교적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

(4) 기타 대외경제협력 추진동향

- 북한은 중국, 러시아 외에도 일본, 동남아, 유럽 등 각국의 기업인들을 방북 초청하거나 국제회의 참석, 해외방문 및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나진·선봉지역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음.

다. UNDP 두만강지역개발계획 추진동향

(1)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 개요

- '90.7월 중국 장춘에서 열린 제1차 동부아 경제기술발전 학술회의에서 두만강지역 개발 필요성이 최초로 제기된 후
 - '91.3월 UNDP가 두만강지역개발을 남·북한, 중국, 몽골이 공동 참여 하는 동북아지역 협력사업으로 구상하였음.
- '91.7월 UNDP는 몽골 울란바토르의 UNDP 수혜국 회의에서 제5차 사업년도('92~'96) 기간의 동북아지역 협력사업중 최우선 과제로 두만강 지역개발을 추진키로 결정했으며
 - 동 회의에서 러시아는 두만강 접경국가로서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키로 합의되었음.
- '91.10월 평양에서 UNDP와 남·북한, 중국, 몽골, 러시아 등 5개국이 TRADP 협의 전담기구로 계획관리위원회(PMC)를 설치키로 합의함에 따라
 - PMC 제1차회의('92.2 서울), 제2차회의('92.10 북경), 제3차회의 ('93.5 평양) 및 분야별 관계전문가 회의에서 개발대상지역 범위와 개발원칙, 두만강지역개발회사(TRAD Co.) 설립문제, 토지임차문제, 접경 3개국간 Committee 구성 및 PMC 5개국간 Commission 구성문제 등에 관해 협의했으나 현재까지는 최종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음.

(2) 북한의 나진·선봉지역개발 연계동향

- 북한은 '91. 7월 몽골에서 개최된 UNDP 회의에서 “선봉지역 경제 무역 지대 개발구상”을 처음으로 발표하는데 이어

- '91.8월 중국 장춘에서 개최된 제2차 동북아경제협력 세미나에서 “북부 선봉지구 경제무역지대 개발구상”을 발표하였음.
- 한편 '91.10월 두만강지역개발관련 UNDP 평양회의에서 “선봉지역 개발계획”에 대해 UNDP로부터 우선적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아 합의내용에 반영하고자 시도했으나 실패함에 따라
- 한편 '91.10월 두만강지역개발관련 UNDP 평양회의에서 “선봉지역 개발계획”에 대해 UNDP로부터 우선적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아 합의내용에 반영하고자 시도했으나 실패함에 따라
- '91.12월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한 후 적극적으로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 TRADP 초기단계에서 고집했던 개방으로 인한 부작용 방지차원의 독자개발방식을 변경, 공동개발 방식을 제한적으로 수용하였음.
- '93.5월 평양에서 개최된 PMC 제3차회의에서는 UNDP의 토지임대 원칙에 동의하는 등 더욱 적극적 자세로 전환하면서 나진·선봉지역 투자안내서 『황금의 삼각주』 등 홍보자료를 회의참가자들에게 배포 한바 있으며
- '93.11월 서울에서 개최된 TRADP 제2차 『산업·자원분야 워크샵』에서도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외국투자 유치를 적극 유도하면서 『황금의 삼각주 : 나진·선봉 투자대상 안내』등 홍보자료를 배포 하는 동향을 보였음.

라. 한국기업과의 경제협력문제

-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체제에 미치게 될 부정적 파급효과 때문에 남북경협에 대한 북한당국의 기본자세는 매우 소극적인 편임.
- '92. 10월 외국인투자법 제정이후 남한기업도 합영사업 추진이 일

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규정해왔음.

- 제정전: “재일조선상공인을 비롯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들도 합병할 수 있다.”
- 제정후: “공화국영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과도 합병사업을 창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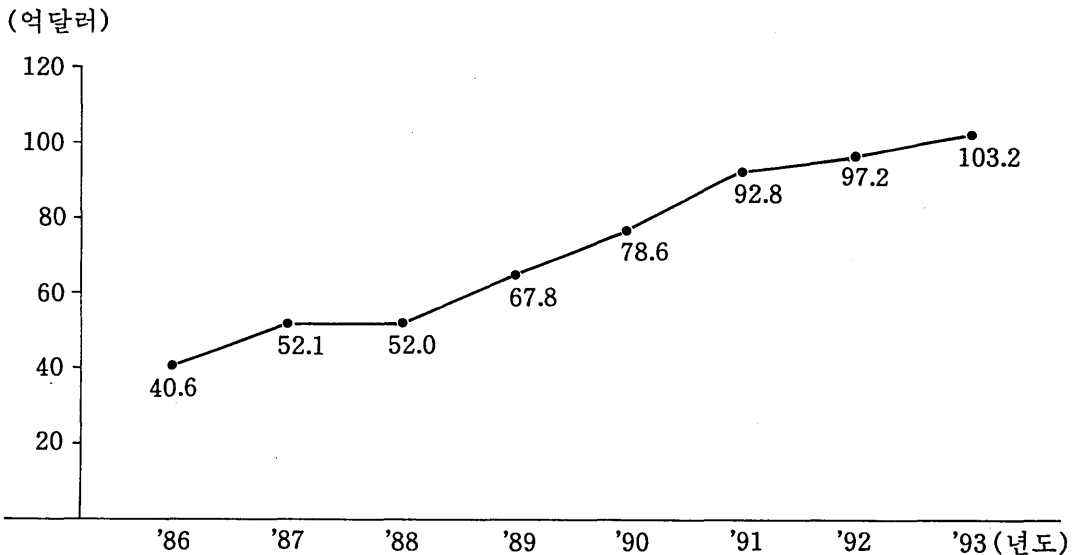
○ 그러나 북한은 나진·선봉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비공식적 창구를 통해 남한기업의 진출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계속 표명해 왔음.

4. 외채 현황

- 북한의 외채발생 배경을 보면, 중·소 등 구 사회주의권 국가의 경우에는
 - '60년대말까지는 북한의 전후 복구사업을 위한 대북한 경제지원이 대부분 무상지원이었으며, 유상일 경우에도 원조형식으로 상환이 면제되어 외채가 전무하였으나
 - '70년대초부터는 중·소와 무역거래시의 적자분을 외채로 산정토록하는 계약을 체결('70.9월)함에 따라 무역적자가 외채로 누적되기 시작하였음.
- 또한 서방권 국가의 경우에는
 - 주로 '71~'76년간의 6개년 경제계획기간중 연불로 도입한 광산장비, 석유화학 등의 설비대금을 계약기간내 지불치 못함에 따라 외채가 발생하였고,
 - '77년 이후에는 원금을 상환치 못한 채 이자의 일부만을 지불함으로써 외채가 계속 누적되기 시작하였으며(연평균 1.2억달러 상당),
 - 더욱이 '85년부터는 이자조차 지불하지 못함으로써 서방채권단이 북한을 『파산국가』로 규정, 현금결제 이외의 대북한 금융 거래를 전면적으로 중지해오고 있음.

- 계획기간중 북한의 외채는 '86년의 40.6억달러에서 연평균 14.2%의 증가율을 보여 제3차 7개년계획 종료년도인 '93년에 103.2억달러로 계획착수 이전보다 2.5배가 증가하였음.
- 특히 계획기간중 북한의 외채는 서방권으로부터의 신규 차관도입보다는 주로 중·소 등 공산권국가와의 무역적자 및 이들 국가의 대북한 경제지원성 외채가 누적된 것으로서 북한의 극심한 경제침체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그림 23〉 계획기간중 북한의 외채증가 추이



- 북한은 서방 채권은행단에 대해 '84년까지는 부분적으로나마 외채에 대한 이자라도 상환한 바 있으나 '85년이후에는 20년이 넘도록 거의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100억달러 정도의 북한 외채중 절반이상이 중·소 등 구 사회주의권국가에 대한 것이고, 서방권에 대한 외채는 이자 포함 40억달러 정도 이나

- '86년 파산국가로 선언된 이후 '87년 북한은 영국과 프랑스에 있는 북한의 대외자산 동결을 해제하려고 국제상공회의소 등에 중재를 신청하기도 했으나, 즉시 상환하라는 결정이 내려진 바 있음.

IV. 종합평가 및 전망

1. 계획수행실적 종합평가

- 제 3 차 7개년계획기간중 북한은 대내적인 경제건설의 중점방향을 전력, 석탄, 금속공업 등 에너지 및 소재산업부문과 열악한 주민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경공업부문의 강화에 초점을 두었음.
- 북한은 종래 그 어느때 보다도 무역 및 경제협력부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출증대를 통한 외화획득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음.
-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과시적인 경제계획수립으로 인해 목표치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게 과대 설정되어 있는 것을 의식하여 제 3 차 7개년 계획의 목표는 이전계획인 제 2 차 7개년계획, 『'80년대말 10대전망 목표』 등을 그대로 연장하거나 약간 상향조정하는 수준에서 계획되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3 차 7개년계획은 그 실적이 전반적으로 당초 목표에 크게 미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동 계획은 실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북한 스스로도 『제 3 차 7개년계획('87~'93) 수행 총화보고』(93. 12. 9)를 통해 일부 공업부문의 성장률만을 당초 계획에 크게 미달된 수준으로 발표하였음.
- 동 계획의 수행실적은 국민소득이 목표대비 51.8% 수준에 머물렀으며 연평균 대외무역실적은 목표의 52.5%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북한의 주력 산업부문의 목표수행률이 대체로 20~50%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북한의 종합적인 계획수행률은 51.8% 이하의 수준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특히 전력, 석탄, 금속공업부문은 에너지 및 원자재난 해소를 위해 계

- 획기간중 북한이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왔던 산업부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장 저조한 계획수행률을 보인 것은
- 북한이 현실성과는 동떨어지게 과대 설정된 10대전망 목표치를 수정없이 동 계획의 목표로 재설정함으로써 당초부터 실현가능성이 없었는데다가
 - 석탄의 채굴조건 악화, 생산효율 저하 등으로 기간중 생산실적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한편 계획기간중 고속도로, 내륙철도, 관개수로 건설 등 노동집약적인 건설사업은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기간중 고속도로 3개노선(약 282km), 북부철도(약 250km), 관개수로(약 800km), 전철화(800km) 추진 완료
- 그러나 계획기간중 계속되는 흉작으로 곡물생산은 목표의 25.9%에 머물렀으며 경공업부문에서도 계획수행률이 직물 12.7%, 화학섬유 23.6%에 불과하여 북한의 주민생활 수준이 계획초기보다 더욱 악화되었음.
- 또한 주택건설 실적은 100만세대(그중 평양시 10만세대)로 발표되었으나 이는 실제보다 크게 과장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주택건설 목표를 연간 15~20만세대('93년까지 105~140만세대)로 설정한 바 있어 북한발표에 의할 경우 최소 71.4%의 계획수행률을 기록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 실제로는 연간 4.1~4.9만세대를 건설하는데 그쳐 당초 목표에 크게 미달된 20.7~32.4%의 저조한 계획수행률을 보였음.
- 이는 북한이 『주민의 식·의·주 생활향상』을 계획기간중 실현해야 할 주요 정책과업으로 내세웠으나 내자동원의 한계 등으로 정책추진의 여력을 상실함으로써 당초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주민생활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임.

〈표 48〉 제 3 차 7개년계획 수행실적 (1993년 현재)

구 분	목 표	실적(평가)	수행률(%)
국민소득	1.7배	0.88배	51.8
공업생산	1.9배	(1.5배)	(78.9)
무 역	3.2배	0.74배	연평균 52.5
곡 물	조곡 1,500만톤	조곡 520만톤	34.7
쌀	700만톤	181.9만톤	26.0
수 산 물	1,100만톤	109만톤	9.9
전 력	1,000억kwh	221억kwh (676억kwh)	22.1 (67.6)
석 탄	12,000만톤	2,710만톤 (10,710만톤)	22.6 (89.3)
철 강	1,000만톤	186만톤 (875만톤)	18.6 (87.5)
비철금속	170만톤	16.4만톤	9.6
화학비료	720만톤	160.9만톤 (560만톤이상)	22.3 (77.7이상)
합성수지	50만톤	(9.2만톤이상)	(18.4이상)
시 멘 트	2,200만톤	398만톤 (1,200만톤이상)	18.1 (54.5이상)
지방공업	2.5배	(1.7배)	(68.0)
직 물	15억m	1.9억m	12.7
화학섬유	22.5만톤	5.3만톤	23.6
주택건설	매년15~20만세대	매년4.1~4.9만세대 (총100만세대)	20.7~32.4 (71.4~95.2)

주 : ()내 수치는 북한발표치에 의거 산출한 것임.

2. 실패의 요인

<대내적 요인>

○ 과도한 목표설정

- 제 3 차 7개년계획은 노동당 6차대회('80.10)가 제시하였던 소위 『사회주의 경제건설 10대 전망목표』 달성이란 부담을 안고 출발함으로써
- 당초 계획 자체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할 정도의 높은 수준에서 목표가 설정되었음.

○ 재원조달 여력의 한계

- 한편 계획목표의 과다설정으로 제 3 차 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규모의 재원동원이 불가피하였음.
- 그러나 제 2 차 7개년계획의 실패 등 경제성장 둔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재정면에서는 매년 팽창 예산정책이 지속됨으로써 제 3 차 7개년계획 착수전에 이미 내자 동원을 증대시킬 수 있는 여력이 없었음

※ 제 3 차 7개년계획기간의 연평균 성장율은 4.5%였으나 재정 증가율은 연평균 9.7%

○ 자원배분의 왜곡

- 재정사정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실질군사비 지출을 감소시키지 않았음은 물론 김부자 우상화 관련사업 등 비생산 부문에 대한 지출을 계속함으로써 자원배분의 왜곡이 더욱 심화되었음.
- 제 3 차 7개년계획 기간중에도 투자우선순위는 여전히 전력·석탄·금속·화학 등 소위 『선행부문』 산업에 두었음.

○ 근로자들의 노동의욕 침체

- 자본·기술 부족으로 노력경쟁운동의 지속적 전개 등 노동집약적 생산요소 투입이 불가피하였으나
 - 실질소득의 감소, 소비재 공급 부족 등 주민소비생활 여건의 악화로 노동의욕은 오히려 감소하였음.
- (※) 1인당 평균 생산지수는 '86을 100으로 하였을 때 '93년에는 71.4로 하락

<대외적 요인>

○ 소련 등 사회주의국가들의 대북지원 감소

- 제 3차 7개년계획 수립 당시 재원조달 계획은 '85년 12월 체결된 『북소 정부간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등 소련의 지원을 기본으로 하였음.

※ 소련은 동 협정에 의거 김책제철 시설확장, 안주탄광 확장, 동평양화력발전소 건설, 은파광산개발 등 1990년까지 총 19개 프로젝트에 대해 지원하기로 약속하는 한편 별도 협정에 의거 176만kw 규모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지원하기로 하였음.

- 그러나 고르바초프의 집권이후 개혁개방과 소련 경제사정의 악화로 대부분의 지원 약속이 이행되지 못했음.

○ 사회주의 시장의 붕괴

- '89년말 이후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의 체제 와해로 이들국가와 체결했던 장기 무역협정이 사실상 파기되는 등 사회주의 시장 기반이 붕괴되었음.
- 그 결과 사회주의국가에 수입 의존해 왔던 설비부품, 식량, 원유, 원자재 공급 감소로 생산 및 무역침체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북한의 대사회주의권 무역은 '88년 35.9억달러(전체 무역의 68.5

%)를 차지했으나 '93년에는 13.4억달러(전체 무역의 50.8%)로 무역규모 및 의존도가 모두 줄어들었음.

○ 서방 선진국의 대북경제교류·협력 외면

- '70년대 후반부터 발생하였던 서방국가의 은행 및 기업에 대한 외채 문제의 미해결로 제3차 7개년계획 기간에도 대북 무역 및 투자실적이 극히 저조하였음
- 특히 북한의 핵개발 추진으로 인한 국제적 고립으로 인해 '91년말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설치 등 외자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방기업들이 대북진출을 기피함으로써 외부로부터의 자본·기술도입도 실패하였음.

3. 전 망

○ 북한은 당 제6기 21차 전원회의('93. 12. 8)를 통해 2~3년간의 완충기를 설정하고 경제구조 조정을 위해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를 기본전략으로 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음.

○ 이와 같은 정책변화는

- 식량 및 소비재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만 증대가 권력승계 및 체제수호에 가장 큰 걸림돌로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중공업우선정책에 따른 산업구조 불균형이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 경공업 육성을 통해 주민생활수준 향상과 수출증대를 도모해 보려는 의도로 분석됨.

○ 그러나 북한은 제3차 7개년계획의 실적이 너무 부진하기 때문에 2~3년간의 완충기간내에 미달된 계획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며

- 다만 심화된 경제구조의 불균형을 다소나마 개선하여 차기계획수립의 기반을 모색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원자재 및 에너지 부족, 중공업 편중의 왜곡된 산업구조, 생산력 저하현상 등 북한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점을 감안할 때
 - 완충기간중 3대제일주의 전략이 어느정도 주효하게 되더라도 현재와 같은 경제침체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성장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 농업부문은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일 뿐만 아니라 경공업 및 무역부문 역시 북한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전체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낮을 수 밖에 없음.
- 북한은 새로운 권력구조가 안정되고 대미일 경제협력 여건이 개선될 경우 완충기간의 종료 여부에 관계없이 새로운 경제계획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음.
- 향후 북한경제의 성장 가능성 및 그 속도는
 - ① 대외경제개방 및 개혁의 속도와 범위
 - ② 대미관계 개선의 속도 및 대일 수교 협상의 진전 여부
 - ③ 남북한 경제협력에 대한 북한의 태도변화 여부등에 좌우될 것임.

